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

**KWMC2000**

**2000.7.24(월)-28(금)**

**빌리그래함센터/윗튼대학/시카고**

## 환영의 글



빌리 그라함 / 명예대회장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성회를 비롯하여 2백만 이상의 성도가 모인 열렬한 전도대회에 수차례 참석하면서, 나는 한국교회의 기도생활, 전도열정, 교회성장, 그리고 선교사 파송 등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년 여름에 열릴 사상최대의 암스텔담 선교대회와 때를 같이하여 선교의 횃불을 들어올리는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는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총동원하시는 선교적 명령이라고 보며 주님의 위대하신 축복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왕 / 명예대회장

세 번에 걸친 한인세계선교대회마다 주강사로 초청받은 나는 한국교회의 복음적 신앙과 선교적 열정에 진실로 감동하였으며, 세계복음화의 미완성과업 성취에 있어 한국교회가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새천년의 지평, 역사의 종말을 예고하는 도전적 시대상황 속에서 인류가 설로 긴박하게 천국복음을 들어야 할 현시점에서 열리는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는 한국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십자군으로 재무장하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빌 브라이트 / 명예대회장

이 시대에 한국성도들은 전세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의 모범적 교회상을 보여 줍니다. 수차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나는 한국과 전세계에서 사역하는 한인목회자들과 한인선교사들을 통해 강권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동일하신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미국과 전세계에 불붙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금번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임동선 / 명예대회장

새 밀레니엄을 맞으며 인류는 컴퓨터속도 만큼이나 물질문명의 변화와 지식혁명을 경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개념, 예배의 개념, 그리고 윤리의 개념에도 많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인류의 갈망은 문명의 발전보다 순수하고 생명력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축복하셔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금번 대회는 보다 창의적, 조직적, 진취적이며 성숙한 대회, 지구촌복음화를 위한 영적 재충전의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차경호 / 명예대회장

선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선교동역자님들, 선교사님들과 평신도사역자, 21세기를 책임질 자랑스러운 젊은 선교후보생 모두를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정중히 초청합니다. 새천년 선교의 비전, 선교전략과 정보교환, 그리고 천태만상으로 얼룩져가는 마지막 때 주님의 지상명령 수행을 위한 새로운 결단과 방법을 모색하여 시대적 사명을 이루도록 결속하는 세계선교 올림픽에 본대회 최고 대회장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꼭 만나고 싶은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승계** / 공동대회장

새 시대의 문턱에서 우리는 남은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세워집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4) 다가오는 새 세기에도 이 막중한 사명 감당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다가 그 날 그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 받는 우리 모든 선교동지들 되기를 이번 대회에서 다시 심장으로 다짐합니다.



**정남식** / 공동대회장

기원 2000년! 새 천년의 동이 텃습니다. 새 천년은 선교의 피치를 올려야 할 세기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도처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 가슴이 뭉클한 이 새 밀레니엄의 원년에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열게 된 것은 참으로 뜻깊습니다.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다짐을 뜨겁게 하는 선교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태용** / 공동대회장

정보인프라혁명, 지구촌 네트워크형성 등 세계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지향하고 세계 문화를 양도할 선교전략의 수립이 시급한 때입니다. 금번 대회를 통해 지구촌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결실들이 맺어지기를 소망하며 아울러 하나님께서 제5차 선교대회를 평양에서 열게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장영순** / 공동대회장

정보인프라혁명, 지구촌 네트워크형성 등 세계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지향하고 세계 문화를 양도할 선교전략의 수립이 시급한 때입니다. 금번 대회를 통해 지구촌복음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결실들이 맺어지기를 소망하며 아울러 하나님께서 제5차 선교대회를 평양에서 열게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방희민** / 공동대회장

이번 선교대회에서는 21세기를 맞이하여 해외에 흩어진 600만 코리안디아스포라의 선교적 사명을 다시 한 번 조명하고 다짐해 보며 21세기의 문화상황을 분석평가 해봄으로 새 시대에 걸맞는 선교전략을 세우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대각성과 한인교회의 선교동원을 위한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상모** / 공동대회장

'새 천년일까, 주 오시면 종말일세. 성도여, 미전도종족 찾아가 복음선교 헌신하자!' 사이버우주공학시대인 21세기의 선교는 오직 협력선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선교의 방해자는 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룩하는 대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서삼정** / 공동대회장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시고 그 시대의 행할 일을 보여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새 밀레니엄에 열리는 제4회 한인세계선교대회를 통해서 어찌면 역사의 마지막 장을 펼쳐 보여 주시고 우려로 하여금 일을 시키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입니다.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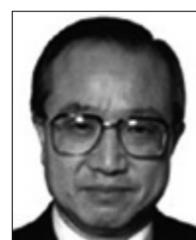
**고인호** / 공동대회장

미국은 예수님 당시 로마요 영어는 그 당시의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이같은 미국에 있게 된 것은 복음으로 미국을 정복하고 여기서 2세 복음의 일꾼들을 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단결하여 이 축복된 사역에 동참하며 쓰임 받는 우리 민족이 되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인한** / 공동대회장

새 밀레니엄을 향한 지구촌은 종말론적 도전과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있으며 극도의 정신적 영적 타락상을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영적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인류는 소망이 없다 할 것입니다. 금번 선교대회가 성령강령의 역사가 재폭발하는 오순절적 사건이 되며 한국교회 선교적 대각성의 역사적 기폭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성기** / 공동대회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지구촌복음화라는 두 개의 세계사적 도전을 안고 있는 긴박한 시대성이 써 밀레니엄의 본질입니다.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선교적 상황분석과 전략수립이 요청되는 현 시점에서 열리는 금번 대회는 조국과 해외에 흩어져있는 한국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하도록 재촉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남 / 공동대회장

할렐루야! 원대한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개최케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새 천년을 맞이한 지금부터 예수님 오실때까지의 땅끝선교는 한국교회에 맡겨진 시대적 사명이요 최우선적 과업인줄 믿습니다. 금번 대회가 새 천년 새 선교 역사의 장을 여는 하나님의 사건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일곱가지 비전성명, 한가지 기도탄원



고석희 / 사무총장

### 우리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종족에게! Jesus Christ for Every People in our Times!

새천년(New Millennium)의 여명이 밝아오는 역사의 분수령 서기 2000년은 새 시대를 향한 희망과 도전을 요청하며, 특히 우리들 각성된 복음주의자들로 하여금 지구촌복음화의 기념비적 이정표를 세우도록 독촉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한다.

그리하여 왕의 재림을 대망하는 종말론적 시대감각과 지상명령의 긴박성을 절감하는 범세계적 복음주의선교운동들이 2000년대를 「천국추수의 년대」로 상징하는 공통된 비전을 나누는 현시점에서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는 이 시대 한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선교적 대각성과 총동원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성명」(Vision Statement of God)이라고 확신한다.

사상 유례없는 1,000명 한인선교사를 비롯하여 목회자, 신학자, 평신도, 여성, 청년, 대학생 등 한국교회의 선교동반자들이 한 광장에 집결하는 이 역사적 선교대회는 비전의 융합(Fusion of Vision), 기도의 연합(Concert of Prayer), 사랑의 교제, 사명의 재무장, 정보와 전략의 상호교류 그리고 영적, 인적, 재정적, 시간적 선교역량의 촉진(Catalyzing), 동원(Mobilizing), 번식(Multiplying)을 도모하여 한 목표인 세계복음화의 미완성 과업(Unfinished Task of World Evangelization) 성취를 위한 새 지평을 창출하는 동반자 협력선교의 대광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상실된 영혼들을 향한 거룩한 불길이 타오르는 오순절적 성령폭발의 현장이 될 것이며,

고통하는 인류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고통으로 인하여 마치 불이 바람에 시달리듯 우리의 성령이 그렇게 시달리게 될 위대한 고통의 축제가 될 것이다.

선교는 「예수운동」(Jesus Movement)이다. 「생명운동」이다. 생명의 불길이다.

선교는 대회(Conference)나, 과업(Task)이나 전략(Strategy)이나 사역(Ministry)이기 이전에 생명에 대한 감동이며, 열정이며, 끓어오르는 연민이며, 타오르는 사명감이다.

호흡하는 생명은 누구나 지상에서 성령의 불을 경험하지 못하면 장차 지옥에서 유흡불을 경험해야 된다는 이 한가지 준엄한 사실로 인하여 지금 우리들의 심장이 타오르는 선교의 불에 고통하며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불타시겠는가?  
왕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종족에게!」

「Jesus Christ  
For Every People  
In Our Times!」

여기에 이 위대한 비전과 함께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지향하는 일곱가지 선교과제(Mission Task)가 있다'

## 1.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도전받는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개방성 재천명

기독교는 초창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Uniqueness of Jesus Christ)에 대한 사탄의 치열한 공격으로 말미암아 적대시하는 로마제국의 불과 피의 박해에 직면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않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자의 장엄한 행렬이 끝없이 줄을 이었고, 사탄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서 광란의 기독교 박멸공작을 전개했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지난 2000년 간 무려 420여회의 순교적 극한상황에 처했다. 10만명 이상 순교한 상황이 56회, 50만명 이상 순교한 상황이 20회, 100만명 이상 순교한 상황도 12회나 발생했다. 순교자 총계는 무려 4천만명에 달하며,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매년 평균 17만명의 순교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위해 피를 뿌리고 있다,

그러나 생명의 불꽃은 꺾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더 치렬하게 타오르는 법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탄생한 그의 몸된 교회는 순교성도들의 피로써 이렇게 성장해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것은 기독교의 생명이며 온 인류의 생명이다.

초대교회의 저 위대한 성도들을 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부모도, 처자도, 재산도, 명예도, 공민권도, 목숨조차도 포기해버린 순교적 신앙 이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 공동묘지 땅굴 속에서 무려 300여년간이나 카타콤 생활을 하며,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지고, 말뚝에 묶여 화형을 당하고, 원형극장 콜로세움에서 굶주린 사자에게 물려 죽으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 갔던 사람들!

저 위대한 순교적 복음주의자들의 심장을 불태웠던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하는 성령의 불길이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파열되었다. 그리고 불과 피가 쏟아졌다. 그 사랑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 사랑이 우리를 울리게 한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들의 심장에 불을 지른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화가 지상과 지신에 대한 상대화를 가능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구원받은 성도의 절대적 신앙 고백이며, 교회의 초석(foundation rock)이며, 선교의 심장(Heart of Missions)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시대정신은 어떠한가?

종교적 신학적 혼합주의, 세속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등 날로 범람하는 다원화현상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복음주의 신앙과 신학 그리고 선교운동은 어느 시대보다 강한 도전을 받고있다.

다원론자(Pluralist)들은 기독교를 많은 종교 가운데 한 종파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길 가운데 한 길로 치부하며, 우리 복음주의자들을 주관적, 독선적, 배타적 종교관의 희생자들로 비판한다.

사탄의 오른 팔이 복음의 심장부를 파고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는 세계복음화의 지상명령자이며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확고부동한 구원의 진리와 선교의 명제로 불기둥처럼 선포해야 하며, 「그가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할」(Proclaim Christ until He comes!) 것을 우리들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도전받는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사명이요, 영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것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신앙고백이요, 유일한 존재이며 도전받는 복음주의 선교운동을 위한 우리들의 유일한 도전장일 것이다.

## 2. 한인세계선교운동의 영적쇄신과 재무장을 위한 성령폭발

성령(Holy Spirit)은 「선교의 영」(Mission Spirit)이며, 선교는 「성령의선교」(Mission of Spirit)이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며, 사람은 성령의 병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령충만은 언제나 선교적 각성과 도전과 헌신과 동원으로 직결되어야 하며, 선교의 불길은 언제나 성령의 기름에 의해 점화되고 계속 타 올라야 한다.

사탄의 간교한 꾀술은 하나님의 복음운동을 가로막지 못할 때 그 운동을 가차없이 더럽히는 일을 한다. 사탄이 만약 그 운동만 앞에 내세우고 그 운동의 영은 뒷전으로 물러가게 할 수만 있다면 그는 그 영적 운동을 가차없이 물질화시켜서 철저히 부패시키고야 말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운동의 세속화와 물질화에서 그 운동을 구출해내는 유일한 길은 선교사역자들의 영적쇄신과 성령충만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영적원칙(Spiritual Principles)에서 절대로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적원칙을 떠난 어떠한 운동이나 그 전술전략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What we do) 보다도 「우리가 누구냐」(What we are)에 더욱 관심을 두신다.

우리들 선교사역자는 하나님의 전권대사로서 우리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더욱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를 선교사역자의 영적쇄신과 충만은 세계복음화운동의 핵심적 요소이다.

무엇이 전도의 문을 열겠는가?  
무엇이 선교현장에서 이교도들의 마음을 열겠는가?

막강한 조직력도, 효과적인 전략도, 풍부한 재정적 지원도

마침내 이교도의 벽을 허물고 복음의 문을 열고 우상숭배의 마음에 감동을 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결정적 힘은 되지 못한다.

오직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며 성령은 선교사역자들의 영적쇄신, 신앙적 단련, 도덕적 무장, 복음적 설교, 구령의 열정, 기도의 헌신, 희생적 사랑 등을 사용하여 그 일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선교운동의 불길은 끊임없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타올라야 하며, 선교사역자들은 끊임없는 성령의 재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서 계속 무장돼야 하지 않겠는가?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는 참여한 모든 선교동반자들의 영적각성과 쇄신과 충만. 그리고 영적 재무장을 위한 성령폭발의 현상이 되며, 사도행전적인 「하나님의 사건」이 되기를 열망한다.

## 3. 한인세계선교역량의 결집과 동반자적 협력선교의 대광장

진정한 협력(genuine cooperation)은 진정한 능력(genuine power)이다. 협력만큼 큰 능력이 있겠는가?

최고의 능력은 자유인들의 자발적 협력에 의해 결정된다. 세계복음화운동의 능력도 「그리스도의 자유인들」의 자발적 협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세계복음화」(World Evangelization)의 약자가 WE인 것처럼 선교는 「우리(WE)」가 하는 일이지 「나」(I)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의 협력정신과 공동체훈련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영적 통일성이 파괴되고 선교운동의 집중력이 훼손될 때 마다 승리는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세계복음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자기중심적 개인주의로 인한 소아적 갈등, 경쟁, 대립, 분열, 분쟁이라는 슬픈 사실을 절감하고 1974년 제1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 1989년 제2차 마닐라/로잔세계복음화대회, 그리고 1995년 5월 214개국 대표 4662명이 서울에 집결한 「세계복음화지구총전략대회」(GCOWE'95)를 통해 「동반자협력선교」(Partnership Mission)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할 수 없이 강조되어 왔다.

이렇게 2000년대 지상명령 완성의 공동목표와 공동전선 구축을 위한 범세계적 범교회적 협력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한인선교세력들의 동반자적 협력문제 역시 핵심적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분파의식이 농후한 민족성의 비극을 극복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영적 활력은 배웠어도 영적 연합은 배우지 못했다」고 지적한 어느 서구신 학자의 비판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우리 한국교회는 1980년대 교회 성장을 세계 1위의 위대한 축복을 받았다. 만약 한국교회가 세계복음화의 긴박한 지상명령을 위해 소아적 개인주의 교파주의 민족주의를 초월하고, 범교회적으로 총동원되어 협력선교의 큰 길을 열고 타 문화권선교의 큰 문을 열기만 한다면, 2000년대는 선교사 파송을 세계 1위의 진실로 위대한 축복을 받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자!

하나님은 이미 한국교회의 협력선교를 위한 위대한 가능성의 지평을 열어주셨다.

신학적 견해, 신앙적 노선, 교회적 입장, 교파적 배경을 초월하여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한 한민족의 시대적 사명과 북미주 한인교회의 존재이유를 확인하고 선양하자는 순수한 동기와 열정으로 1,500명의 선교동반자들이 KWMC의 이름으로 회동한 1988년도 제1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그리고 다시금 한국교회의 긴박한 선교적 사명과 동반자협력전신을 재확인하고 재선양하기 위해 2,500명이 재집결한 1992년도 제2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그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이제 다시금 2000년대 지구촌완전복음화의 위대한 비전과 긴박성을 재확인하고 3,500여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적 대각성과 총동원을 강권하시는 성령의 독촉을 받고 3,000명 한인세계선교역량이 총집결하는 금번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이 사상최대 협력선교의 대광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는가?

그러므로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는 한국교회 사상 최대의 한인세계선교세력이 총집결하는 광장이므로 진실로 동반자적 협력선교의 대광장이 되기를 열망한다.

#### 4. 2000년대 한인선교사의 좌표설정과 범세계적 연관대성 형성을 위한 공동모색

세계복음화운동이 예루살렘에서 이리안 자야까지(from Jerusalem to Irian Jaya) 대행군을 계속해 올 때 하나님은 복음의 전령들을 친히 차출하시고 성령의 선교적 충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과 심장, 전인격과 전생애가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불타게 하셨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자!

오대양 육대주, 사막과 바다, 산악과 평야. 도시와 촌락, 감옥과 유형지에서 구령의 열정을 불태우며, 복음의 철장권세로 사탄의 면상을 후려치며, 생명을 포기하며, 고난을 찬미하며, 「매를 맞으며,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으며」(고후 11:23-27)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항상 심령에 눌린 바 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확장하는 오직 그 하나의 기쁨으로 십자가를 높이 들고, 역사를 관통하여 달려온 저 장엄한 선교사의 대행군을 보라!

보라, 기독교 2,000년의 장구한 세월을 성령과 함께 달려온 저 위대한 복음의 전권대사들, 저 고독한 믿음의 영웅들, 저 장엄한 하나님의 창조적 소수들의 대행군을!

그들의 눈은 역사를 꿰뚫고, 그들의 입은 복음을 외치며, 그들의 손은 인류의 고통을 쓰다듬고, 그들의 발은 귀신의 처

소를 짓밟으며 그들의 피는 예수그리스도의 교회에 쏟아지며, 그들의 영은 세계복음화의 비전으로 불타고 있지 않은가!

저 장엄한 선교사의 대행군은 오늘도 오대양 육대주에서 서구선교사 85,000여명과 제3세계 선교사 55,000여명 도합 140,000여명의 개신교선교사들로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북미주한인교회가 파송한 4,000여명의 한인선교사들, 그리고 이렇게 KWMC2000 협력선교의 대광장에 찾아온 800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인선교사들로 그 대행군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와 세계한국선교사대회가 2000년대 한인선교사의 좌표설정과 범세계적 연관대성 형성을 위한 공동모색을 통해 세계복음화운동의 새 지평을 여는 기념비적 사건이 되기를 희망한다

#### 5. 2000년대 북미주 한인선교사 1000명 파송과 대학생선교운동의 기폭제

하나님의 「선교의 영」(Mission Spirit)은 19세기 말엽 위대한 복음 전도자 무디(D. L. Moody)와 피어슨 (A. T. Pierson) 등의 영적 감동력, 프린스턴대학 졸업생 로버트 윌더(Robert P. Wilder)의 선교적 비전, 코넬 대학생 존 모트(John R. Mott)의 천재적 조직력을 사용하여 당시 북아메리카대륙을 풍미한 「대학생 자원해외선교운동」(Student Volunteer Movement)을 일으키셨다.

당시 성령의 선교적 충동에 도전받은 젊은 복음주의자들은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화를!」(World Evangelization in Our Generation!) 이라는 찬란한 비전성명(Vision Statement)을 외쳤다. 그들은 서기 1900년까지 세계복음화의 미완성과업(Unfinished Task)을 끝내자고 하는 비장한 환상과 열정을 불태우며, 동시대 교회들의 선교적 대각성을 독촉하며, 오대양 육대주로 뛰쳐나갔다.

그들의 위대한 비전은 세계선교운동사에 빛나는 대약진의

장(章)을 기록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혼잡한 언어를 땅끝까지 정복하는 지상명령의 완성을 보지 못한 채 그들은 사명의 쟁기를 손에서 내려놓고, 역사의 휘장 뒤로 물러갔다.

그렇게 그들은 갔다. 역사에서 퇴장했다. 그러나 세계복음화를 향한 불타는 비전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 비전은 지금도 살아 있다. 그 비전은 지금도 역사를 만들고 있다. 그 심장을 불태웠던 그 위대한 비전, 그것이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들의 심장을 불태우고 있지 않은가!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화를!」  
「우리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종족에게!」

이제 그것은 그들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들의 비전이다.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이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서 이 시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군사로 동원명령을 받은 우리 새벽이슬 같은 젊은이들의 기도 속에, 증언 속에, 고백 속에, 대회 속에 분명히 「우리 세대에 세계복음화를!」 이라고 하는 비장한 결단과 헌신과 열망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우리는 볼 것이다.

그리고 이 위대한 「세계 비전」(World Vision)의 열망이 북미주에서 그리고 한반도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한민족의 젊은 심장들을 불태우며 확산된다면 마침내 전세계를 석권하는 「한인대학생 자원 해외선교운동」(Korean Student Volunteer Movement)이 폭발하는 것도 가능치 않겠는가?

19세기말 선교적 선풍을 일으켰던 「대학생 자원 해외선교운동」(SVM)의 위대한 신화를 20세기말 한민족의 젊은 후예들을 통해 다시금 찬란하게 재현시킬 수 있는 「역사창조의 가능성들」, 「하나님의 기폭제」들이 여기에 모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북미주 전지역의 신학교, 대학교, 그리고 한인교회에 숨겨두신 젊은 「엘리아의 700명」이 오늘 여기에 동석한 1000명 자랑스러운 선교소명자들이 들어 올리는 봉화불을 기다릴 것이다.

KWMC는 이 「예수의 젊은이들」을 위한 모성적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역사의 미래이며, 세계선교운동의 견인차(牽引車)이며, 차세대의 주자(走者)이기 때문이다.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는 2000년대 북미주 한인선교사 1000명 파송을 위한 대학생청년운동의 기폭제가 될 것을 확신한다.

### 6.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적 대각성과 총동원을 위한 평신도선교운동의 활성화

1974년 제1차 로잔대회의 「로잔언약해설」(Lausanne Covenant Commentary)에서 존 스토틀(John Stott)는 「온 교회의 총동원 없이 온 세계의 복음화는 불가능하다」(Unless the Whole Church is Mobilized, the Whole World is not likely to be Reached)고 외치며 세계선교를 위한 세계교회의 각성과 헌신을 호소했다.

그리고 1989년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로잔대회도 하나님은 「온 세계를 향해 온전한 복음을 전하도록 온 교회를 부르신다」(Calling the Whole Church to take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고 선언하며,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체 교회의 협력과 총동원을 촉구했다.

선교는 전쟁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확장하기 위한 성령과 사탄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다.

세계선교는 총사령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있는 지상명령이므로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병사들의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노력에 대한 최고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전쟁이다.

이 거룩한 전쟁을 휘나 전방전투부대에 투입된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오늘도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후방지원부대인 교회는 이 전쟁의 치열성과 긴박성을 깨닫고 분발하여 총동원되어야 한다.

전쟁은 전방을 향한 후방의 병력보충과 전력지원 없이는 승리는 쟁취할 수 없다.

그런데 후방의 총동원은 사실상 교회의 99%를 점하고 있는 평신도들의 선교적 각성과 헌신과 동원과 후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평신도를 깨워야 한다! 교회의 절대다수인 평신도를 향한 선교적 계몽운동이 세계복음화전략의 필수조건이다.

고통하는 세계를 향해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손과 발이 신속히 움직일 때 측량할 수 없는 선교역량이 창출될 것이며, 마침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복음이 온 지면을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통해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적 대각성과 총동원을 위한 평신도선교운동의 활성화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기를 열망한다.

### 7. 세계복음화 미완성과업을 위한 북미주 한인교회 300 미전도종족 입양운동과 총체적 북한선교운동의 고두보 구축

세계복음화 완성의 의미는 무엇이며, 지상명령의 「미완성 과업」(Unfinished Task)은 얼마나 남았는가?

세계복음화는 「모든 민족, 온 세상」(마 24:14), 「온 천하, 만민」(막 16:15), 「땅끝까지」(행 1:8), 「모든 족속」(마 28:19)에 대한 복음화를 의미한다. 일찍이 사도 요한은 세계복음화의 환상을 보고 기록하기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계 14:6)고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9)는 세계복음화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종족복음화운동의 개념인 것이다.

언어를 혼잡케 한 바벨탑의 심판 이후로 지구촌의 인류는 수없이 많은 종족들로 분할되었다.

데이빗 바렛(David Barrett)의 조사에 의하면 지구촌은 마치 모자이크처럼 언어와 문화가 다른 무려 24,000여개의 타문화권 종족그룹(Cross-Cultural People Group)들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지구상의 24,000여 종족그룹 가운데 지금까지 약 13,000여 종족그룹이 복음화되었고, 나머지 약 11,000여 종족그룹이 지상명령의 미완성 과업으로 남아있다.

이 11,000여 미전도종족그룹(Unreached People Group)은 복음을 접할 기회가 전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토착교회가 없는 「숨은 종족」(Hidden People)을 말한다.

이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은 주로 10/40창 지역의 30여개국 안에 산재하였으며 현재 60억5천만 인류 가운데 22.5%에 해당하는 13억에 이른다. 이들을 복음화하는 것이 오늘날 범세계적 선교운동들의 최우선 과제이다.

이와 같이 세계복음화의 대상을 통제가능한 단위(Manageable Units)인 종족그룹별로 분할하여 도전하는 「종족단위 복음화전략」이 1970년 맥가브란(McGavran), 랄프 윈터(Ralph D. Winter), 그리고 로잔운동(Lausanne Movement)을 통해 보편화된 이후 세계복음화의 개념은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갑자기 「한 촌락의 이야기」(talk of the town)가 되었고 손에 잡히는 절대적 가능성의 실상이 되었다.

미전도종족선교는 1930년 중반에 이미 시작된 운동이다. 근대선교운동사를 일별하면 대략 3단계로 전개된다.

1792년 윌리엄 케리(William Carey)에 의해 「해안선선교운동시대」(Coastal Land Mission Era)가 열렸고, 1865년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에 의해 「내륙선교 운동시대」(Inland Areas Mission Era)가 열렸고, 1935년 카메론 타운

센드(Cameron Townsend)에 의해 「미전도종족 선교시대」(Unreached People Mission Era)가 열렸다.

그리고 1936년 WEC 선교사 브리어레이(L. G. Brierley)는 최초로 미전도종족그룹(Unreached People)에 대해 전세계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1955년 맥가브란(D.A. McGavran)은 「하나님의 교량」(The Bridges of God)을 발행하여 종족단위 복음화운동의 개념을 재천명했다.

1974년 제1차 로잔세계복음화 국제대회(Lausanne I International Congress for World Evangelization)를 통해 이 종족단위복음화의 개념은 일반화되었고 랄프 윈터(Ralph D. Winter)를 비롯한 세계선교미국본부(U.S. Center for World Mission)의 「미개척선교운동」(Frontier Mission Movement)을 통해 「서기 2000년까지 모든 종족에게 교회 개척을!」(Church for Every People Group by A.D. 2000) 주창하는 이 개념은 한층 더 구체화되었으며 토마스 왕(Thomas Wang), 루이스 부시(Luis Bush) 등 제3세계 선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21세기운동」(A.D. 2000 & Beyond Movement)을 통해 「서기 2000년까지 모든 족속에게 교회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A Church for Every People and Gospel for Every Person by A.D. 2000) 주창하는 이 종족선교개념은 한층 더 현실화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11,000여 미복음화종족에 대한 미완성 과업을 끝낼 것인가?

첫째, 「서기 2000년까지 11,000여 미전도종족 안에 생동력 있고 성장하며 선교적 열정이 충만한 토착교회들을 세우고」(to plant vibrant, growing and mission-minded indigenous churches)

둘째, 「그 토착교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종족을 복음화하도록 한다」(let these indigenous churches evangelize their own people)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약 19억의 기독교인 가운데 복음주의자는 약 5억7천만명, 그들의 복음적 교회는 660만개에 달한다. 만약 이들이 11,000개의 미전도종족을 위해 선교적으로 동원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600개의 복음적 교회가 한 종족씩만 입양한다면 세계복음화는 통쾌하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얼마나 환상적인 산술인가!

만약 이와 같이 「종족입양」전략이 하나의 산술적 계산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대한 교회의 전폭적 순종과 성령의 선교적 충동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적용하기만 한다면 마침내 천국추수(Harvest of the Kingdom)의 영광은 인류역사 속에 불기둥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통해 성령의 미전도종족입양운동을 확산시켜 나가실 것이며 마침내 북미주한인교회는 2000년대까지 300 미전도종족을 입양할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북한의 체제붕괴를 예고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상황과 화급한 식량난 문제 등을 고려한 총체적 북한선교운동을 전개하는 교두보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8. 그리고 세계복음화 비상기도운동 제창

기도는 세계선교운동의 최우선 전략이다.

기도의 능력은 불의 세력을 떨치고, 성난 사자의 입을 재갈을 물리고, 난세를 평정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추방하고,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치유하며, 태양을 머물게 하고, 우리의 진행을 막으며, 죽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지구를 복음으로 석권한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들의 기도가 불타기 시작하면 세계는 변혁되고 천사들은 더욱 능력있게 움직이고 더욱 신속히 날며 하나님의 복음운동은 급속한 추진력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바로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과연 고통하는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고통하는 사랑을 느끼는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바로 그 고통하는 세계를 위해!

World Vision의 창설자 밥 피얼즈(Bob Piers)는 늘 지구본(globe)을 가슴에 끌어안고 울며 이렇게 기도했다.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의 심장을 아프게 하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종의 심장을 아프게 하는 고통이 되게 하옵소서!」

1723년 이미 스코트랜드의 기도의 사람 로버트 밀러(Robert Miller)는 미개인 개종을 위한 중보기도운동을 부르짖었고, 20년 후에는 대영제국 식민지 전역에 원주민을 위한 200개 이상의 「기도그룹」(Prayer Group)을 작동시켰다.

1747년 북아메리카의 영적 거인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는 영적 부흥과 그리스도의 왕국 확장을 위한 비상기도를 촉구하며 「세계복음화 비상기도동맹」 결성을 주장했다. 그 결과 뉴잉글랜드 대각성운동과 아메리칸 인다안선교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18세기 영국에 「기도부대」(Unit of Prayer)를 일으킨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 앤드류 홀러(Andrew Filler), 존 섯클리크(John Suckcliffe).

1794년 미국 모든 교파의 목사들에게 「기도탄원서」(Plea for Prayers)를 보낸 이삭 박커스(Isaac Backus).

1799년 캔키에서 「기도합주회」(Concert of Prayer) 운동을 일으킨 제임스 맥그레디(James McGready).

1858년 뉴욕시에서 80만 인구 중 불과 6명으로 시작된 합동기도운동이 마침내 「기도의 사태」(Landslide of Prayer) 현상을 일으켰던 예레미야 램피어(Jeremiah Lanphier).

뉴욕의 「기도사태」는 시카고로 번져 디 엘 무디(D.L. Moody)를 불질렀고 당시 3천만의 미국 인구 중 1년에 1백만 이상을 구원시켰으며 이 북아메리카의 부흥운동은 계속 영국으로 남인도로 남아프리카로 퍼져 나갔다.

1905년 예일(Yale)대학은 25%의 학생들이 기도그룹에 가입했으며 뉴저지의 아틀란틱시티는 6만 인구 중 50명만 불신자로 남고 전원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고 오레곤주 포틀랜드

드는 200개 이상의 상점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일제히 기도를 위해 문을 닫았다.

영국 웨일스의 한 청년 에반 로버츠(Evan Roberts)의 고독한 기도의 투쟁은 마침내 웨일스에서 대영제국으로, 노르웨이로, 스웨덴으로, 덴마크로, 독일로, 캐나다로, 오스트랄리아로, 뉴질랜드로, 아프리카, 브라질로, 멕시코로, 칠레로 끝없이 산불처럼 오대양 육대주를 휩쓸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간단하다. 사람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루셨다!

언제나 기도운동은 부흥운동을 촉발시켰고 부흥운동은 선교운동을 촉발시켰다!

언제나 시작은 기도운동이었다!

기도의 투쟁은 사탄과 세상을 향한 투쟁에서 승리를 보장한다!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는가? 선교운동의 저변확대, 다시 말하면 교회의 99%를 점하고 있는 평신도들의 선교적 각성과 헌신과 동원과 후원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

뿌리 없는 나무가 쓰러지듯 뿌리 없는 운동은 열매가 없다. 선교운동이 평신도운동으로 연결될 때만 교회의 선교적 동원은 가능한 것이 아닌가?

교회의 절대다수인 평신도들의 선교적 개발과 동원, 그리고 일선 선교사들을 위한 영적, 인적, 물적 지원확대, 그리고 선교운동 자체의 활성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교의 영」(Mission Spirit)이신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를 위한 최선의 전략, 최우선의 전략은 무엇인가?

「기도선교운동」이라고 믿는다.

더욱이 기도의 열정은 한국교회의 특별한 은사이며 영적 자부심이 아닌가? 한국교회 4만5천여 재단에 그리고 북미주 한인교회의 3500여 재단에 끝없이 타오르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의 불길 속에 세계선교의 미완성 과업이

불쏘시개처럼 타오르기만 한다면 세계복음화는 신속한 추진력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는 한국교회를 향해 「세계복음화 비상기도운동」을 제창하는 바이다.

##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조직

<b>명예대회장</b>	빌리 그레함 토마스 왕 빌 브라이트 론 엘리스 임동선 차현희
<b>증경대회장</b>	김득렬 김의환 나운태 림택권 서준태 안병국 조천일 한진관
<b>공동대회장</b>	고인호 김상모 김택용 박희민 서삼정 안성기 유효명 이상남 이승제 장영춘 정남식 정인찬
<b>대회고문</b>	계화삼 고원용 김영철 박재훈 이기홍 이상현 이승만 최찬영
<b>공동부대회장</b>	강성철 강세대 강인덕 권진태 김정진 김낙중 김남수 김만우 김만풍 김상구 김세웅 김영훈 김원기 김중기 김창제 김춘근 김택규 김화일 나구용 명돈의 목사군 박병석 박사무엘 박성규 박재영 박재호 방지각 배현찬 변인복 손인식 송정엽 송천호 안창의 오정현 우수명 유재송 윤사무엘 윤석현 윤영준 이상진 이석환 이연걸 이영섭 이용걸 이용봉 이용삼 이용창 이이삭 이정근 이종형 이훈경 임창호 장석진 장현식 전덕영 전익삼 정상균 조영진 최동필 최영기 호성기 홍춘만
<b>사무총장</b> 고석희 <b>서기</b> 배현찬 <b>부서기</b> 제석호 <b>회계</b> 조권행 <b>부회계</b> 이상진	
<b>공동준비위원장</b>	김영길 김영진 나광삼 박광자 송용걸 이영희 이원상 장동찬 전희근 최광언 최인순 황의춘
<b>공동총무</b> 이승중/단장	강준원 김기웅 김진호 박은우 박해철 손용억 안영섭 안영철 오명현 이은수 이정남 정중진 제석호 최은중
<b>중앙위원</b>	강부웅 강성훈 강일용 강준민 김대열 김동선 김상하 김성보 김승욱 김 영 김의식 김정호 김종길 김진호 김진환 김풍운 김현희 남궁전 남정부 노하덕 문명길 박찬수 박현승 백요한 변승지 송광률 송금섭 송성자 신인훈 양 연 양준길 오재호 유영기 유찬희 윤덕곤 윤백진 윤용주 윤은철 이동수 이명은 이성철 이승재 이승태 이승희 이의상 이재선 이재호 임현수 장춘원 장홍호 전요한 정강현 정인수 정재홍 조영철 조재호 조현배 주인백 진성인 차경태
<b>차세대준비위원</b>	조용중/위원장 심수영/총무 김종현 오다니엘 차피터 정민영 노진산 오석환 김인기 김의승 김현인 김정한 박짐밥 이원기 폴 양 데이빗 기븐스 송민호 박신욱 브라이언리 제이슨김 양춘호 강민호 전우창 존나 조셉양 조상래

## 4차 대회 주강사



**토마스 왕 / 국제대사명센터**

토마스 왕 목사는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나 11세 때 전도자 존성을 통해 회심했고 15세에 사역에 헌신하기 시작했다. 1953년 대만의 감리교 두 곳을 목회하였고 국제전도자로 유럽과 전세계에서 사역하였다. 1989년 마닐라 로잔회의의 국제 디렉터로 임명되어 사역하였고 현재 2000년까지 미전도종족을 대상으로 대사명을 달성하도록 교회들을 독려하는 기독교 21세기 운동(AD 2000 & Beyond Movement)의 국제 디렉터를 맡고 있다. 1989년 대사명센터를 설립 운영해오고 있다.



**로렌 커닝햄 / YWAM 총재**

로렌 커닝햄은 YWAM 선교회를 1960년 창설, 현재 130개국 650여 지역에서 11,000여명의 자원선교사들이 활약하는 세계최대의 초교파선교단체로 성장시켰다. YWAM의 현 총재이며 열방대학의 총장이다. 로렌 커닝햄은 40년 이상 열방을 대상으로 한 제자화사역을 통해 얻은 개인적인 경험들을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성경적인 예와 가르침을 보여줄 것이다. 마태복음 28:19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실질적인 적용을 통해 도전할 것이다. 대사명을 달성할 수 있는 간단한 공식을 예수님의 모델을 사용하여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제시할 것이다.



**로버트 콜만 / 트리니티신학교 교수, 세계선교대학 학장**

현 트리니티신학교 교수와 세계선교대학 학장인 콜만 박사는 전도학과 제자훈련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전도에 관한 교과서와도 같은 베스트셀러인 「전도의 마스터플랜」 등 다수의 책과 글을 출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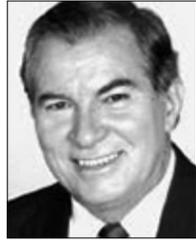
**폴 시더 / 로잔세계복음화운동 총재**

1974년 빌리그레함 주도로 복음주의 선교운동을 탄생시킨 로잔세계복음화운동의 현 총재인 폴 시더 박사는 현재 전 미국을 휩쓸고 있는 기도의 등대 선교운동단체인 미션아메리카의 총재직을 맡고 있다.



**딕 이스트맨 / Every Home for Christ 국제총재**

세계선교기도학교운동을 통해 120개국 2백만 이상의 기독교인에게 강력한 기도선교운동을 전개한 딕 이스트맨은 현재 Every Home for Christ의 국제총재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한 시간」 등 베스트셀러가 있다.



**돈 리차드슨** / 「화해의 아기」 저자

돈 리차드슨은 1962년 남태평양 이리안 자야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였고 그 당시 종족분쟁의 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바친 사건을 기록한 책, 「화해의 아기」로 문화충돌 해결의 효율적 방안을 제시한 현대선교의 전설적 인물이다.



**이동휘** / 전주안디옥교회 담임, 바울선교회 회장

2,700명의 교인이 1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재정의 60%를 선교비로 지출하면서 한국교회의 선교적 갱신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이동휘 목사는 한국신학대학교,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바울선교회 회장과 전주안디옥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사무엘 마펫** / 초기 한국 선교사

사무엘 마펫은 평양에서 동명의 초기 한국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1947년에서 1951년까지 중국에서 사역하다 공산정권에서 추방당한 이후 1955년부터 1981년까지 한국에서 사역하였다. 한국에 있을 동안 장로회신학교 협력총장, ACTS 디렉터, 로얄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 등으로 사역하였고 현재 프린스턴신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루이스 부시** / AD2000 & Beyond Movement 국제 디렉터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고 브라질에서 성장하여 텍사스에서 신학교를 나온 루이스 부시 박사는 기독교 21세기 운동(AD2000 & Beyond Movement)의 국제디렉터를 맡아 2000년까지 모든 미전도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세계교회를 동원하는 사역에 힘쓰고 있다.



**존 럽** / 월드비전 미전도종족기도운동본부장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사역하다 현재 월드비전의 미전도종족기도운동 본부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존 럽은 기독교21세기운동이 21세기를 기해 시작하는 미전도종족운동인 「비전2020」의 지도자로 지목받고 있는 세계적인 전략가다.



**K.P. 요하난** / Gospel for Asia 총재

아시아권 미전도종족 및 토착교회개척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Gospel for Asia의 설립자이자 총재인 요하난은 남인도 태생으로 현재까지 7천명의 현지인 교회개척자를 배출하였다. 저서로 「다가오는 세계선교의 혁명」 등이 있다.



**조나단 차오** / 중국국제선교회 총재

대만에 위치한 중국국제선교회의 창설자 및 현 총재이며 지난 21년간 중국선교에 헌신하며 매년 100여명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훈련, 파송해 왔다. 세계적인 중국선교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저서로 「중국회사핸드북」 등이 있다.



**손봉호** / 한국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표

수많은 저서와 강연을 통해 현대인의 도덕성과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온 손봉호 장로는 한국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대표이며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봉직하며 서울영동교회 장로로 시무하고 있다.



**바니 포드** / 어바나2000 디렉터

50년간 세계최대의 대학생선교대회의 전통을 이어온 어바나선교대회. 바니 포드는 금번 2000년 12월에 열리며 2만5천의 참석자들 중 한인대학생도 2,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어바나2000의 디렉터다.



**스티브 린튼** / 유진벨재단 대표

한국에서 선교사역에 일생을 바친 린튼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한민족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사명감을 소유한 린튼 박사는 북녘땅의 잃어버린 영혼들과 특별히 식량지원운동을 위해 창설된 유진벨재단의 대표로 사역하고 있다.



**스탠리 탐** / 미국플라스틱주식회사 사장

「하나님이 내 기업의 주인이다」의 저자인 스탠리 탐은 연간 일천오백만불의 매출액을 내는 오하이오 미국플라스틱주식회사 사장으로 사업이윤의 100%를 선교단체에 헌금해 오고 있다.



**이상진** / 코소보선교회

지구촌교회개척선교회와 코소보선교회를 설립하여 왕성한 평신도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상진 장로는 인도에 200여개의 원주민교회를 개척, 지원하고 있으며 코소보에 300개의 교회개척을 목표로 새 운동을 펼치고 있다



**신홍식** / 태국 선교사

1971년부터 현재까지 태국선교사로 최장기 사역을 하며 태국기독교총회, 방콕신학교, 부원장겸 신학대학 원장으로 신학교육을 통한 현지인교역자 양성, 신학서적 출판, 도시교회 개척지도 및 지원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강승삼** / 총신선교대학원장

현재 총신선교대학원장 및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회장,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선교위원장인 강승삼 목사는 나이지리아에서 12년간 교회개척과 신학교 설립, 현지지도자 양성사역을 했다. 트리니티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은무** / GP선교회 국제대표

종전의 PWM선교회와 지구촌선교회가 연합하여 120명이 넘는 대규모의 선교단체로 거듭난 GP(Global Partners) 선교회의 국제대표인 그는 1976년부터 선교사로 파송되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등지에서 사역해오고 있다.



**손중철** / 세계선교사회 사무총장

1978년 파송된 이래 두루선교회를 세워 60여명의 동역자들과 사역하며 인터넷세계선교사대학교를 설립, 범세계적 선교네트워킹의 비전을 불태우고 있는 손중철 선교사는 세계선교사회 사무총장으로도 봉사하고 있다.



**방기호** / 폴리신학교 교수

15년간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교회개척을 지도하며 장로교성서대학을 설립, 그곳에서 가르치며 학장으로 섬겼다. 필리핀장로교단 선교위원회 위원장, 필리핀한인선교사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폴리신학교에서 아시아 선교에 대해 가르치며 한민국의 디렉터로 있다.



**김종현** / 한미세계선교센터 디렉터

세계기도함주회를 창시자이자 회장인 데이빗 브라이언트는 미국국가기도협회 의장으로도 사역하고 있다. 그와 그의 기도팀은 부흥과 전도를 위한 도시별 기도회를 수백회에 걸쳐 진행해 오고 있다. 최근 저서로 「손안의 희망: 21세기를 향한 미국과 전세계 부흥을 위하여」가 있다.



**조영준** / GP선교회 북미주 상임총무

북미주 출신 제1호 선교사로 필리핀에 파송되어 7년간 필리핀과 동남아 미전도종족선교에 주력한 조영준 선교사는 현재 GP(Global Partners)선교회 북미주 상임총무로 있으며 제3세계 선교협의회의 사무총장으로도 사역하고 있다.



**백운영** / 인도네시아 선교사

북미주 출신 선교사로 5년간 필리핀에서 사역한 백운영 선교사는 현재 인도네시아 바투에서 선교사훈련사역을 담당하며 아시아 선교사들이 물결처럼 일어나는 비전을 불태우고 있다. 폴리신학교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노진산** / 그레이스웰로우십채플 담임

그레이스웰로우십채플의 담임목사이며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교수인 노진산 목사는 다수의 영어권 집회의 강사로 활약하고 있으며 한인 2세들을 차세대 교회 지도자들로 세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정민용** / 커버넌트웰로우십교회 담임

일리노이주립대학 내에 커버넌트웰로우십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민용 목사는 성경신학대에서 M.Div.를 받고 2세와 대학생들을 향한 열정을 품고 시작한 교회에 600명이 모이고 있다. 세계 각지 여러 대회에서 강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오다니엘** / OC국제선교회 선교사

미주한인교회에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목회자로 사역하였고 달라스에서 캄보디아난민들을 위한 사역 하던 오다니엘 목사는 1990년 OC선교회의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파송되어 지도자훈련, 제자훈련, 신학교 교수사역을 하였고 현재 OC국제선교회 본부에서 동원과 훈련사역을 하고 있다. 어바나96을 비롯한 여러 선교대회에서 강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차피터** / 태국 선교사

7년간 인터바시티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였고 12년간 미주한인교회와 미주 아시아권 교회들에서 섬겼던 차피터 박사는 현재 트리니티신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며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한 비전을 갖고 있다. 어바나93을 비롯한 여러 선교대회에서 주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오석환** / 오이코스 대표

남가주에서 교회개혁을 위한 오이코스사역을 펼치고 있는 오석환 목사는 14년간 미국내 한국 및 아시아계 사역을 해오고 있으며 강사로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며 미주 한인 사역에 관한 두 권의 책을 냈다. 플러신학교에서 M.Div.와 D.Min을 수료하였다



**심수영** / 아틀란타새교회

**선교보고 선교사**



**최순기**  
몽골 선교사



**김신호**  
일본 선교사



**브리스길라 리**  
중국 선교사



**정윤진**  
인도 선교사



**최재선**  
탄자니아 선교사



**정광호**  
케냐 선교사



**김신숙**  
이집트 선교사



**김원호**  
터키 선교사



**김진영**  
중앙아시아 선교사



**김호동**  
불가리아 선교사



**황상호**  
러시아 선교사



**정재순**  
파푸아뉴기니 선교사



**강성일**  
브라질 선교사



**김위동**  
콜롬비아 선교사



**김영화**  
아르헨티나 선교사



**최광규**  
도미니카 선교사

KWMC2000 대회일정					
일시	7/24(월)	7/25(화)	7/26(수)	7/27(목)	7/28(금)
06:00 AM		<b>새벽기도회</b>			
		<b>서삼정</b>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김유식/필리핀 심수영/차세대	<b>김상모</b> 고난을 뚫고 환희로! 이준교/이집트 정민홍/차세대	<b>고인호</b> 한인디아스포라의 사명 장순호/방글라데시 노진산/차세대	<b>안성기</b> 불광하고 기다리라! 김요한/UBF 오석환/차세대
07:00 AM		<b>아침식사 / 친교</b>		<b>북한을 위한 금식</b>	<b>아침식사 / 친교</b>
08:10 AM		<b>경배와 찬양</b>			
08:30 AM		<b>성경강해</b>			
		<b>로버트 콜만</b> 요한복음에 나타난 천국추수의 긴박성	<b>로버트 콜만</b>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교회의 최후승리	<b>이동휘</b>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선교적 구조갱신	<b>이동휘</b> 바울서신에 나타난 선교정신
09:10 AM		<b>주제강연</b>			
		<b>정인찬</b> 새 밀레니엄! 지구촌의 종말론적 도전	<b>존 럽</b> 최우선 과제, 미전도 종족입양선교운동	<b>폴 시디</b> 지역교회의 활성화 전략	<b>손봉호</b>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그 인격과 윤리성
09:50 AM		<b>휴식</b>			
10:00 AM		<b>주제강연</b>			
		<b>K.P. 요하난</b> 세계복음화 미완성과 10/40창 동향분석	<b>돈 리차드슨</b> 타문화의 나침반, 그리스도를 조준하라!	<b>유효명</b> 평신도선교자원 집중개발전략	<b>이상남</b> 21세기 선교사의 영적각성
10:40 AM		<b>루이스 부시</b> 세계선교의 최전선: 35/45창을 공략하라	<b>조나단 차오</b> 21세기 중국선교의 도전	<b>김종현</b> 북미주 차세대 선교동원전략	<b>신홍식</b> 내가 여기 있다이다 나를 보내소서!
11:20 AM		<b>박기호</b> 한인세계선교, 그 위대한 역사의 회고	<b>강승삼</b> 한인세계선교, 그 현황과 과제	<b>이은무</b> 한인세계선교, 그 창의적 선교패러다임	<b>손중철</b> 한인세계선교, 그 협력선교의 대행군
12:00 PM		<b>점심식사 / 선교전시장 / 친교</b>			
01:30 PM		<b>경배와 찬양</b>			
02:00 PM		<b>주제강연</b>			
		<b>바니 포드</b> 하나님의 고통하는 심장 그리고 대학생선교운동	<b>딕 이스트맨</b> 불타는 기도, 그리고 최후의 지구촌 부흥운동	<b>스탠리 탬</b>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b>폐회예배 (2-3)</b> 설교 김택용 축사 방지일 선언문 채택 고석희 성찬집례 임동선
02:30 PM	저녁식사(4-6)	<b>선교도전</b>			
	개회예배 (6-7)	<b>마포 삼열</b> 나는 왜 선교사인가	<b>스테판 린튼</b> 북한을 향한 그리스도의 대사	<b>이상진</b> 수난의 땅 코소보 모슬렘의 관문을 뚫자	
03:00 PM	개회선언 정남식	<b>휴식 / 선교전시장 / 친교</b>			
03:30 PM	선교사환영사 차현희	<b>선택강좌</b>			
04:30 PM	개회설교 이승제	<b>휴식 / 선교전시장 / 친교</b>			
05:00 PM	축사 론 엘리슨	<b>선택강좌</b>		<b>지역별 모임</b>	
06:00 PM	축사 이승만	<b>저녁식사 / 선교전시장 / 친교</b>			
07:30 PM		<b>경배와 찬양</b>			
08:00 PM		<b>선교대회</b>			
		<b>최순기/몽골</b> 김신호/일본 브리시길라리/중국 정윤진/인도 오다니엘/차세대 장영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b>최재선/탄자니아</b> 정광호/케냐 김신숙/이집트 김원호/터키 백운영/차세대 로렌 커닝햄 선교는 국경이 없다!	<b>김진영/중앙아시아</b> 김호동/불가리아 황상호/러시아 정재순/파푸아뉴기니 차피터/차세대 박희민 마지막때 세계선교 한민족이 담당하라!	<b>강성일/브라질</b> 김위동/콜롬비아 김영화/아르헨티나 최광규/도미니카 조용중/차세대 토마스 왕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 개회예배

개회선언/ 정남식 목사 타코마한인중앙장로교회  
선교사환영사/ 차현희 목사 벨리한인연합교회  
개회설교/ 이승제 목사 체리힐한인교회  
축사/ 론 앨리슨 빌리그래함센터  
축사/ 이승만 목사 PCUSA교단

## 저녁선교대회

사회/ 고석희 목사 KWMC사무총장  
기도/ 김영진 목사 나성한인교회  
선교보고/ 최순기 선교사 몽골  
선교보고/ 김신호 선교사 일본  
선교보고/ 브리스길라리 선교사 중국  
선교보고/ 정윤진 선교사 인도  
차세대선교도전/ 오다니엘 선교사 OC  
설교/ 장영춘 목사 쿤즈장로교회

## 개회선언

### [개회예배 개회선언]

공동의장 **정남식**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의 공동의장이며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2000) 공동대회장인 정남식 목사는 타코마한인중앙장로교회 은퇴목사로 월드비전 코리아데스크의 대표로 사역하고 있다.

만장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 천년 첫 해인 서기 2000년에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년 2000년은 여러 면으로 뜻이 깊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남북한의 정상회담으로 통일과 북한선교의 전망이 밝아졌고, 특별히 세계교회가 2000년을 맞아 선교의 시급한 사명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 의의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중에 큰 성과를 거두는 선교대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제 대회 개최를 선언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개최됨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의 화답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 선교사 환영사

### [개회예배 선교사환영사]

명예대회장 **차현회**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2000) 명예대회장인 차현회목사는 지난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96)의 대표대회장이었으며 현재 벨리한인연합교회에서 은퇴하고 웨슬리세계선교협의회를 통해 선교사역에 전념하고 있다.

할렐루야!

선교의 주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동안 선교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불철주야 순종과 충성으로 사역하시던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 모두를 큰 박수와 큰 절을 가슴으로부터 드리면서 진정 환영 또 환영합니다.

UN은 2000년을 "세계평화의 문화" 해로(International Year for the Peace of Culture) 정했습니다. 온 인류가 희망하는 공동과제인 평화와 화해를 성취하는 첩경은 먼저 ① 가서, ② 만나고, ③ 대화하며, ④ 사귀며, ⑤ 나눔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과업을 이미 여러분은 교회의 전체인 선교를 통하여 실천하고 계신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이기에 다시금 치하를 드리며 환영합니다.

중국 만리장성에 세워진 새천년 시계탑에는 "분초를 다뉘 조국건설에 이바지하자"고 새겨져 있습니다. 수퍼 차이나 시대를 만들겠다는 결의인 것입니다. 우리의 결의는 시계탑에서 선교탑으로 지구촌 24개 시간대 지역에 싸울 결의를 다짐할 때가 왔습니다.

갈릴리 선교의 후계자 여러분. 선교의 오순절인 본 대회의 최고 대회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열렬히 환영합니다

## 생명을 위한 사명자

### [개회예배 설교]

공동대회장 **이승제**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의 공동의장이며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2000) 공동대회장인 이승제 목사는 현 체리힐한인교회 담임이며 KWMC의 선교사후원운동본부장과 북한식량돕기운동본부장을 역임하고 있다.

[창세기 45:3-8]

서론- 오늘 본문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소년시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인해 형님들의 질시를 받아 마침내는 형님들의 손에 의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던바 그 모진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도 비전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일관했으나 모함을 받아 희망없는 지하 감옥살이로 고난당하는 중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바로의 꿈 해몽과 과정을 통해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어 흉년을 대처할 즈음 흉년이 들어 식량문제를 해결코저 찾아온 형님들을 맞은 요셉이 형님들과 나누는 대화속에 담겨진 귀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며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선교의 비전을 얻고자 한다.

1. 요셉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한 사명자입니다.
2. "나를 당신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5절)
3.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8절)

## 개회예배 축사

### [개회예배 축사]

빌리그래함센터 소장 **론 앨리슨**



빌리그래함센터 소장직을 맡고 있는 론 앨리슨 박사는 미국 로잔협의회에서 미선아메리카의 사무장직을 맡고 있으며 지난 25년간 교육자로, 전도자로, 목회자로, 예술가로, 그리고 강사로 사역해 왔다.

주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빌리그래함센터와 윗튼대학을 대신하여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장박동과도 같은 세계의 구원을 위해 모였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번 대회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0:37-39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면 잠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외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주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의 중심되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긴박성'과 '믿음'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 때입니다. 이제 시간은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천국으로 붙잡아 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역을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해 내야 합니다. 이 긴박성을 품은 성령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해 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On behalf of the Billy Graham Center and Wheaton College I want to welcome you with open arms to the KWMC2000. God is pleased you have gathered to dwell on that which makes his own hear beat - the salvation of the world!

I have chosen this text from Hebrews 10:37-39 to comment to you as you begin your conference. Listen to the Word of the Lord:

"For yet in a very little while, the one who is coming will come and will not delay; But my righteous one will live by faith. My soul takes no pleasure in anyone who shrinks back."

My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 remind you of the two great thoughts of this passage which I believe will be your guides through this conference. Urgency and faith. The time is now, the hour is late. The world is sliding toward Hell. We must love the "hell" out of people and put them on the road to Heaven! And, we must do this not in our own power, but in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Spirit-filled believers with a sense of urgency can and will reach the world! Hallelujah!

## 개회예배 축사

### [개회예배 축사]

미국장로교회 212차 전국총회장 **이승만**

현 미국장로교회 212차 전국총회장인 이승만 목사는 지난 25년간 PCUSA교단 선교국장으로 50여개국과 특히 북한을 향해 화해와 정의구현의 복음사역에 힘써왔다. 유니온신학교와 리치몬드장로회신학교의 교수이며 한국인으로서 미국교계의



##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몽골 선교사 **최순기**

경희대 체육대학을 졸업하고 도미하여 나성영락교회에 출석하다 미주한인장로회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몇차례의 소련과 몽골 단기선교 끝에 목사안수를 받고 현재 몽골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일본 선교사 **김신호**



###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중국 선교사 **이 브리스길라**

### [저녁선교대회 선교보고]

인도 선교사 **정윤진**

성균관, 고려대학 경영대학원, 총신대, 풀러신학교 국제교회행정대학원 등에서 수학한 정윤진 선교사는 1980년에 파송받아 아시아신학대학원, 바울유초중고등학교 및 초급대학을 설립,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교회를 개척해 오고 있다.



##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의 순종

### [저녁선교대회 차세대선교도전]

OC 선교사 **오다니엘**

OC선교회 선교사로 1990년 인도네시아로 파송받아 사역하였던 오다니엘 목사는 현재 OC본부에서 선교훈련과 동원책을 맡고 있으며 어바나 96 등 여러 선교대회에서 강사로 활약하였고 제자훈련사역에도 전념하고 있다.



#### I. 서론 : 나의 개인적 믿음의 여정

#### II. 믿음의 여정속에서 얻은 교훈들

1. 첫번째 교훈은 믿음의 여정은 새로운 길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험을 전면 조정함으로 시작되다는 것이다.
2. 두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믿음학교의 가장 중요한 과목은 바로 인생의 위기, 시험, 고난이라는 것이다.
3. 세번째 교훈은 그분의 주되심에 전적으로 순종, 복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4. 네번째 교훈은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과 축복을 위해 세운 나의 계획보다 훨씬 놀랍도록 아름답다는 것이다.
5. 다섯번째 교훈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할 절대적 필요와 그 핵심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 III. 결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 [저녁선교대회 설교]

공동대회장 **장영춘**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의 공동의장이며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2000) 공동대회장인 장영춘 목사는 미주크리스찬신문사 사장, 미주기독교 복음주의교회연합회 회장으로 현재 퀸즈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 [이사야 43:15-21]

서론 : 역사의 창조자, 주권자, 섭리자, 통치자이신 하나님 (새 천년) Ad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 I. 새 역사의 주권자 (새 전략)
- II. 새 일의 자격자 (새 헌신)
- III. 새 일의 내용
- IV. 결론 (새 도전)



##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김유식 선교사 필리핀개혁신학교  
선교도전/ 심수영 목사 아틀란타새교회  
설교/ 서삼정 목사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 성경강해

강사/ 로버트 콜만 박사 트리니티신학교

## 주제강연

주제강연 I 강사/ 정인찬 목사 휴스턴한인교회  
주제강연 II 강사/ K.P.요하난 박사 Gospel For Asia  
주제강연 III 강사/ 루이스 부시 박사 기독교21세기운동  
주제강연 IV 강사/ 박기호 목사 플러신학교  
주제강연 V 강사/ 바니 포드 어바나2000  
선교도전 I 강사/ 마포삼열 박사 프린스턴신학교

## 저녁선교대회

사회/ 이원상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기도/ 황의춘 목사 트랜트 장로교회  
선교보고/ 최재선 선교사 탄자니아  
선교보고/ 정광호 선교사 케냐  
선교보고/ 김신숙 선교사 이집트  
선교보고/ 김원호 선교사 터키  
차세대선교도전/ 백운영 선교사 인도네시아  
설교/ 로렌 커닝햄 목사 YWAM

##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 [새벽기도회 설교]

공동대회장 **서삼정**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의 공동의장이며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2000) 공동대회장인 서삼정 목사는 현재 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에서 담임목회자로 시무하고 있다.

[요나서 4:1-11]

요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요나의 사역을 다루고 있다.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싫다고 도망치는 요나를 강제로 붙잡아서 사용하셔서 그 땅에 전 민족을 단번에 구원하시는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3장에서 끝난다. 이것으로 끝나면 멋있게 해피엔드로 끝났는데 4장이 계속되고 있고 이 4장은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음이 개운치 않게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3장까지가 요나의 사역을 위한 것이라면 4장은 요나 자신을 위한 장이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 뿐 아니라 그의 깊은은심성의 문제(편견, 사랑의 결핍 등) 까지도 다루시고 수술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신 사역도 중요하게 다루셨지만 사역자 요나 자신도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12만여명을 구원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셨으나 한 사람의 주의 종 요나를 치유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다.

#### I. 마음이 상한 요나 (4:1-3)

1. 요나는 하나님은 오직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마음 상했다.
2.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징계해야 하는데 도리어 구원하시는 것이 마음 상했다.
3.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오해받게 될 곤란한 자기 처지를 생각지 않으시는 것이 마음 상했다.

#### II.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4:4-9)

1.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해야 하는 자기 사랑을 이해시켜서 상한 그의 마음을 치유하시려 준비하셨다.(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
2.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의 사랑이 되게 하심으로 그의 깊은 근본 심정까지 치유받게 하셨다. (10-11)
3. 미움의 감정은 미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비로소 치유된다.

#### III. 그 사랑의 강권하심 때문에 복음사역을 한다. (고후 5:14)

###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세계한인선교사회 회장 **김유식**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총신신학연구원(M.Div.),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Th.M.)을 수료한 김유식 선교사는 1979년 필리핀으로 파송받아 현재 필리핀개혁신학교 학장, 세계한인선교사회의 회장 등으로 사역하고 있다

### [새벽기도회 차세대 선교도전]

아틀란타새교회 담임 **심수영**



## 요한복음에 나타난 천국추수의 긴박성

### [성경강해]

트리니티세계선교대학 학장 **로버트 콜만**



현 트리니티신학교 교수와 세계선교대학 인장인 콜만박사는 전도학과 제자훈련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전도에 관한 교과서와도 같은 베스트셀러 「전도의 마스터플랜」 등 다수의 책과 글을 출간하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녀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샅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 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냐.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줄 앎이니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4:34-38, 42)

예수께서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을 추수해야 할 들판으로 비유하셨다. 그의 이러한 비전이 우리로 어떻게 행동하도록 제시하여 주며 우리 삶을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으로 채워주신다.

1. 기대되는 추수 (35, 42절)
2. 추수를 위한 일꾼들 (36, 37절)
3. 추수를 위한 선교 (38, 42절)
4. 추수의 기쁨 (36절)

"My food," said Jesus, "is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and to finish His work. Do you not say, 'Four months more and then the harvest?' I tell you, open your eyes and look at the fields! They are ripe for harvest. Even now the reaper draws his wages, even now he harvests the crop for eternal life, so that the sower and the reaper may be glad together. Thus the saying 'One sows and another reaps' is true. I sent you to reap what you have not worked for. Others have done the hard work, and you have reaped the benefits of their labor." ... They said to the woman, "we no longer believe just because of what you said; now we have heard for ourselves, and we know that this man really is the Savior of the world." (John 4:34-38, 42)

Jesus teaches us to see the world as a harvest field of people needing the Gospel. His vision guides our actions and fills our life with assurance of the coming Kingdom.

1. The waiting harvest, vss 35, 42
2. The workers for the harvest, vss 36, 37
3. The mission to the harvest, vss 38, 34
4. The joy of the harvest, vs 36

## 새 밀레니엄! 지구촌의 종말론적 도전

### [주제강연 I]

공동대회장 **정인찬**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의 공동의장이며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2000) 공동대회장인 정인찬 목사는 현재 휴스턴한인교회 담임목회자로 시무하고 있다.

밀레니엄(Millennium)이란 말은 본래 연대기적(Chronological)인 개념이라기 보다는 그리스도의 통치적(Lordship) 개념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 모두 6번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20:3~7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3:8에 나옵니다. 이 새 천년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지배하는 천년기간이므로 만물의 완성 직전이나 이후에 있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사변적 숙명론이나 어떤 결정론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종말론적 도전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섭리는 예지, 예언, 인도하심의 세 범주에 속합니다. 이제 지구촌의 종말론적 도전과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 I. 하나님의 권능과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
- II.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도전
- III. 생태의 위기와 생존권에 대한 도전
- IV. 인간 지식에 의한 정보와 기독교 사상에 대한 도전
- V. 교회의 위기와 도전

## 세계복음화 미완성과제 10/40창 동향분석

### [주제강연 II]

Gospel For Asia 총재 **K.P.요한**



아시아권 미전도종족 및 토착교회개혁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Gospel for Asia의 설립자이자 총재인 요한은 남인도 태생으로 현재까지 7천명의 현지인 교회개척자를 배출하였다. 저서로 「다가오는 세계선교의 혁명」 등이 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로마서 15:20)

- I. 10/40창의 도전 - 1. 정의 2. 상황
- II. 오늘날의 선교현황 - 1. 세계2차대전 이후의 현실 2. 종교의 부흥 3. 핍박
- III. 도전에의 응전 - 1. "어찌 들으리요?" 2. 우선순위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 IV.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 1. 개인적 동참 2. 부르심을 들으라. 그리고 가라 3. 현상황, 동향, 선교전략에 민감하라 4. 보내는 자가 되라 - 로마서 10장
- V. 교회의 위기와 도전

## 세계선교의 최전선 35/45창을 공략하라

### [주제강연 III]

기독교21세기운동 국제총무 루이스 부시

Luis Bush: "10/40창" 개념을 주창한 루이스 부시는 기독교21세기운동 국제총무로 사역하면서 「창을 통한 기도」, 「여호수아작전2000」 운동을 통한 미전도종족선교에 선봉장 역할을 강당하고 있으며 현재 메시아2000 예루살렘 선교대회를 준비중이다.



35/45창은 터키세계를 망라하는 한국교회가 통과할 회교권에 대한 복음의 관문이다. 한국교회와 세계 각국의 한국 선교사들은 바로 지금 이 시기에 협력하여 35/45 터키창으로 들어가야 한다. 왜냐하면...

1. 이 지역의 종족별 형성이 복잡한 양상을 띄기 때문이다.
2. 지난 10년간 교회가 놀랄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 이 지역의 경제적 불확정 상황이 자비량선교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이 지역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5. 기도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인데 한국교회가 바로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 한인세계선교, 그 위대한 역사의 회고

### [주제강연 IV]

풀러신학선교대학원 한국학부 책임 박기호

현재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책임자이며 아시아선교학부 교수인 박기호 목사는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 학위를 받고 1982년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 15년간 사역하고 현재는 선교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 I. 일제식민통치하에서의 선교
- II. 독립후의 선교
- III. 근래의 선교
- IV. 세계선교를 위한 한인교회의 도전

## 하나님의 고통하는 심장 그리고 대학생선교운동

### [주제강연 V]

어바나2000 총책임 바니 포드

바니 포드는 50년간 세계 최대의 대학생선교대회인 어바나선교대회. 2만 5천의 참석자들 중 한인대학생도 2,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2000년 12월에 열릴 어바나2000의 총책임자다.



#### I. 변화하는 북미문화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 II. 성경을 통해 살펴본 참된 예배

1. 예배란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어지는 하나님의 본질이다.
2. 예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에게 관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잘 협력된 찬양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

#### III. 학생들 삶의 여러 단계

1. 나아감 - 계명을 따르고 영적훈련을 하는 행동중심의 삶
2. 자라감 - 회개와 인적개발, 무엇보다 예배하는 시간을 존귀히 여기는, 존재중심의 삶
3. 기다림 - 재림하실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희망중심의 삶

하나님의 심장은 학생들의 삶 속에서 세상과 연결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며 예배하도록 계속적으로 박동치고 있다.

## 나는 왜 선교사인가

### [선교도전]

프린스턴신학교 명예교수 마포삼열

Samuel Moffett: 1916년 한국의 선구적 선교사인 마포삼열의 아들로 평양에서 출생하여 유타대학, 프린스턴신학교, 예일대학에서 수학하였다. 약 30년간 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였다. 현재 프린스턴신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1. 나를 부르심 : 순종의 교훈
2. 중국선교사 시절 : 실패의 교훈
3. 한국선교사 시절 : 성공의 교훈

##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탄자니아 선교사 **최재선**



###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케냐 선교사 **정광호**



총신과 고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정광호 선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교사로 1981년 파송받아 현재까지 아프리카복음주의장로교 은혜신학대학 교수처장, 니쿠르지방 교회장설 등으로 사역해 오고 있다.

###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이집트 선교사 **김신숙**



총신대 기독교교육과, 미국 칼빈신학대학원 교육학 석사를 마친 김신숙 선교사는 1977년 이집트 카이로로 파송되어 지금까지 헌신하고 있으며 현재 알사피아 선교훈련학교에서 사역하고 있다.

###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터키 선교사 **김원호**



칼빈신학교, 합동신학대학원, 풀러신학원(선교학 석사) 선교학박사과정 중인 김원호 선교사는 1987년 베를린 터키촌으로 파송, 그 후 터키, 불가리아에서 현지인 교회개척 사역을 하였다. 현재 나성한인교회 선교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 성령의 열정

###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차세대]

인도네시아 선교사 **백운영**



북미주 출신 선교사로 5년간 필리핀에서 사역한 백운영 선교사는 현재 인도네시아바투에서 선교사훈련사역을 담당하며 아시아 선교사들이 물결처럼 일어나는 비전을 불태우고 있다.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I. 성령의 사역

1. 주변민족 (marginal people)
2. 이민교회에서 세계교회로
3. 전세계에 걸친 부흥현상

#### II. 성령의 비밀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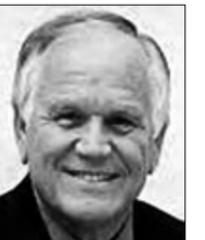
1. 순수한 믿음으로 넘치는 고통받는 교회들
2. 성공은 그 대가를 요구한다
3.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고통받는 교회들의 열정

#### III. 모든 민족으로부터

## 선교는 국경이 없다

### [저녁선교대회 설교]

YWAM 총재 **로렌 커닝햄**



로렌 커닝햄은 YWAM 선교회를 1960년 창설, 현재 130개국 650여개 지역에서 11,000여명의 자원선교사들이 활약하는 세계최대의 초교파선교단체로 성장시켰다. YWAM의 현 총재이며 열방대학 총장이다.

[사도행전 17: 26-27]

서론: 하나님의 계획과 열방의 목적 (예; 한국)  
국가에는 국경이 있지만 사역에는 국경이 없다.

- I. 국경은 없다 - 기도와 중보사역
- II. 국경은 없다 - 구제
- III. 국경은 없다 - 의사소통
- IV. 국경은 없다 - 가라!



##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이준교 선교사 이집트  
선교도전/ 정민용 목사 커버넌트헬로쉽교회  
설교/ 김상모 목사 뉴욕만백성교회

## 성경강해

강사/ 로버트 콜만 트리니티신학교

## 주제강연

주제강연 I 강사/ 존 럽 월드비전미전도종족기둥운동  
주제강연 II 강사/ 돈 리차드슨 월드팀대표  
주제강연 III 강사/ 조나단 차오 중국국제선교회  
주제강연 IV 강사/ 강승삼 목사 총신선교대학원장  
주제강연 V 강사/ 딕 이스트맨 Every Home for Christ  
선교도전 I 강사/ 스테판 린튼 유진벨재단

## 저녁선교대회

사회/ 최광언 목사 공동준비위원장  
기도/ 김영길 목사 공동준비위원장  
선교보고/ 김진영 선교사 중앙아시아  
선교보고/ 김호동 선교사 불가리아  
선교보고/ 황상호 선교사 러시아  
선교보고/ 정재순 선교사 파푸아뉴기니  
차세대선교도전/ 차피터 교수 트리니티신학교  
설교/ 박희민 목사 YW 나성영락교회 AM

## 고난을 뚫고 환희로!

## [새벽기도회 설교]

공동대회장 김상모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이며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2000) 공동대회장인 김상모 목사는 현재 뉴욕의 만백성교회 담임목회자로 시무하고 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24)

고난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서 고난을 뚫고 환희의 승리를 얻는 비결을 배웁시다.

첫째,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고후 1:9)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세상의 것을 의뢰하는 자는 실패합니다.

둘째, 고난은 기도하게 합니다.

바울은 고난 중의 기도는 곧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약 5:13)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행 16:25)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기도한 결과 고난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을 얻었습니다. 기도는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셋째, 고난은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 119:17) 성도 여러분, 고난을 겪어 보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큰 감동이 안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며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됩니다.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난과 시험에 순종함으로써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창 22:1-19)

맺는 말

고난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 여러분, 그리고 선교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뚫고 환희의 감격이 넘칠 것입니다

## 애굽을 고치시는 하나님

##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이집트 선교사 이준교



안양대 신학과, 서울대학원, 총신대 신학대학원, 카이로 아메리칸대학 아랍어 과정, 미국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미국 헤리티지대학교(신학박사)를 졸업한 이준교 선교사는 1979년 이집트로 파송되어 사역해 오고 있다.

[시편 19:21-22]

1. 애굽이 심판을 받음 (1-4절)
2. 애굽을 심판하신 이유 (1-3절)
3. 애굽을 고치시는 하나님 (22절)
4.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22절)

## 선교, 하나님의 고통

## [새벽기도회 선교헌신/차세대]

커버넌트헬로쉽교회 담임 정민용



정민용 목사는 1990년에 일리노이주립대학 내에 커버넌트헬로쉽교회를 설립, 2세/대학생 사역에 헌신하여 현재 600명이 넘는 2세들이 모이고 있다. 전세계 및 전국적으로 여러 대회와 세미나에 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I. 서론

II. 본론

1. 그리스도의 고난 - 1) 그리스도의 고통 2) 하나님의 진노
2. 우리의 고통 - 1) 그리스도께서 기름부으신 방법 2)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고통
3. 적용 - 1) 개인적인 면 2) 사역면에서

III. 결론

##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교회의 최후승리

### [성경강해]

트리니티세계선교대학 학장 **로버트 콜만**

현 트리니티신학교 교수와 세계선교대학 학장인 콜만 박사는 전도학과 제자훈련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전도에 관한 교과서와도 같은 베스트셀러 「전도의 마스터플랜」 등 다수의 책과 글을 출간하였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10-11)

우리는 세계선교의 강력한 적, 사단의 공격이 말세에 가까울수록 극심해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승리한다. 우리는 승리하고야 말 것이다.

1. 승리의 복음 - 어린양의 보혈
2. 승리의 방법 - 우리의 증거하는 말
3. 승리의 헌신 -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

## 최우선 과제, 미전도종족입양선교운동

### [주제강연 I]

월드비전 미전도종족기도운동 본부장 **존 럽**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사역하다 현재 월드비전의 미전도종족기도운동 본부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존 럽은 기독교 21세기 운동이 21세기를 기해 시작하는 미전도종족운동인 「비전2020」의 지도자로 지목받고 있는 세계적인 전략가이다.



서문 : 모스크바에서의 만남, Dr. M의 이야기

1. 미전도종족은 하나님의 심장박동이다.
2. 선교의 하나님께서는 종족들을 전도하고 계신다.
3. 그리스도의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을 경험하라.
4. 미전도종족을 향한 실제적인 단계들

## 타문화의 나침반, 그리스도를 조준하라!

### [주제강연 II]

월드팀 대표 **돈 리차드슨**

돈 리차드슨은 1962년 남태평양 이리안 자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였고 그 당시 종족분쟁의 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바친 사건을 기록한 책 「화해의 이야기」로 문화충돌 해결의 효율적 방안을 제시한 현대선교의 전설적 인물이다.



### I. 성경상의 예

1. 유대문화
  - 1) 구약시대의 동물제사 - 예수, 하나님의 어린양 (요한복음 1:29)
  - 2) 모세가 장대 위에 뿔뿔을 든 것 -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 (요한복음 3)
2. 이방문화
  - 1) 아테네의 이름모를 신을 위한 제단 - "엘로힘"이 그 이름모를 신이다 (사도행전 17)
  - 2) 모든 변화 뒤에 있는 고정자인 헤라클리투스의 "로고스" -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으니 바로 예수이다 (요한복음 1:1-14)
  - 3) 원인과 결과 속의 연속적인 그리스 철학개념 -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연속성에 대해 답함 (사도행전 14:17)

### II. 기독교 선교역사상 풍성한 실례들

1. 중국
2. 인도
3. 뉴기니아 종족 - 알족속의 피난처소, 싸위족의 화해의 이야기

III. 결론 : 그 외에도 그리스도를 조준하고 있는 많은 문화의 나침반들이 발견되어지기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가라!

## 21세기 중국선교의 도전

### [주제강연 III]

중국국제선교회 총재 **조나단 차오**



대만에 위치한 중국국제선교회의 창설자 및 현 총재이며 지난 21년간 중국선교에 헌신하며 매년 100여명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훈련, 파송해 왔다. 세계적인 중국선교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저서로 「중국선교핸드북」 등이 있다.

서론 : 1949년 이후 괄목할 만한 중국교회의 성장

1. 중국의 급속한 변화
2. 중국의 종교정책과 선교전망
3. 중국인들의 열린 마음
4. 급성장하는 중국교회를 위한 다단계 목회/신학훈련
5. 올바른 중국선교정책 개발을 위한 도전
6. 성령안에서 평화와 할일을 위한 노력
7. 신앙서적 제작 및 보급
8. 선교사훈련의 새로운 방식
9. 변화하는 중국문화의 도전

## 한인세계선교, 그 현황과 과제

### [주제강연 IV]

총신선교대학원장 **강승삼**



현재 총신선교대학원장 및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회장,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선교위원장인 강승삼 목사는 나이지리아에서 12년간 교회개척과 신학교 설립, 현지지도자 양성사역을 하였다. 트리니티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불타는 기도, 그리고 최후의 지구촌부흥운동

### [주제강연 V]

Every Home for Christ 총재 **딕 이스트맨**



세계선교기도학교운동을 통해 120개국 2백만 이상의 기독교인들에게 강력한 기도선교운동을 전제한 딕 이스트맨은 현재 Every Home for Christ의 국제총재이며 저서로 베스트셀러인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한 시간」 등이 있다.

거대한 영적추수가 전세계를 휩쓸었으며 도시 전체를 변혁시켰다. 이러한 영적추수 이면의 영적인 힘, 그것이 바로 전략적인 기도다.

## 북한을 향한 그리스도의 대사

### [선교도전]

유진벨재단 대표 **스테판 린튼**



한국에서 선교사역에 일생을 바친 린튼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한민족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소명감을 소유한 린튼 막사는 북녘땅의 잃어버린 영혼들과 특별히 식량지원운동을 위해 창설된 유진벨재단의 대표로 사역하고 있다.

빌리 그래함 목사와 한국목회자; 대사의 역할; 마르쿠스와 종교; 북한의 종교; 선한 대사의 특성; 그리스도의 선한 대사; 너희가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 한국교회를 부른다

###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차세대]

트리니티신학교 교수 **차피터**



트리니티신학교 교수: InterVarsity에서 7년간 캠퍼스사역으로 헌신하였고 현재 트리니티신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차피터 교수는 차세대 지도자를 길러내는데 온 열정을 쏟고 있으며 어버나 등 여러 대회에서 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러시아 선교사 **김진영**

미국 바이올라대학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하고 탈북신학교(M.Div.), 뉴욕 나약신학교 선교훈련을 마친 김진영 선교사는 북미주에서 1994년 러시아 칼막키아공화국으로 파송받아 현재 2기 사역중이다.



###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불가리아 선교사 **김호동**

부산장로회신학교, 충신대학교를 나와 소피아대학에서 박사과정 이수중인 김호동 선교사는 1992년에 불가리아로 파송받아 소피아한인장로교회 시무, 불가리아개혁장로교신학교 설립, 동유럽선교사협의회 회장 등으로 사역하고 있다.



###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러시아 선교사 **황상호**



###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파푸아뉴기니 선교사 **정재순**



## 마지막때 세계선교 한민족이 담당하라!

### [저녁선교대회 설교]

공동대회장 **박희민**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이며 제4차 한인세계대회(KWMC2000) 공동대회장인 박희민 목사는 현재 나성영락교회에서 담임목회자로 시무하고 있다.



21세기 초반에는 한국교회가 세계선교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큰 몫을 하리라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 타문화권과 세계무대에서 잘 활동할 수 있는 1.5세와 2세들에 의해 크게 주도될 것이다.

#### I. 세계선교리더십 발휘를 위한 4가지 중요한 요소

1. 교회성장이다.
2. 경제적으로 중진국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인재가 많아야 한다.
4. 선교의 비전과 열정이다.

#### II. 세계선교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가?

1. 각 지교회가 좀 더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목회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2. 교단이나 교파를 초월한 선교대회를 통하여 교육하고 도전하며 활성화한다.
3. 신학교에서 선교교육이 잘 되도록 변화나 개혁이 필요하다.
4. 한인 이민교회에서 자란 2세들을 훈련하고 파송할 수 있는 선교단체가 필요하다.

21세기는 양(quantity)보다 질(quality)의 시대이다. 누가 더 좋은 질의 상품을 생산하는가에 의해 승부가 결정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앙과 선교에서도 이제는 참으로 헌신되고 훈련된 정예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어야 하며 현지선교사를 길러내야 할 줄 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수에 집착하였으나 21세기에는 기드온 300명 같은 정예선교사를 길러내고 파송하므로 세계를 변화시켜 가야 할 것이다.



##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장순호 선교사 방글라데시  
선교도전/ 노진산 목사 리빙웨이스커뮤니티교회  
설교/ 고인호 목사 공동대회장

## 성경강해

강사/ 이동휘 목사 전주안디옥교회

## 주제강연

주제강연 I 강사/ 폴 시더 로잔세계복음화운동  
주제강연 II 강사/ 유효명 장로 KWMC평신도선교  
운동  
주제강연 III 강사/ 김종헌 총무 한미세계선교센터  
주제강연 IV 강사/ 이은무 목사 GP선교회  
주제강연 V 강사/ 스탠리 템 미국플라스틱주식회사  
선교도전 I 강사/ 이상진 장로 타코마중앙장로교회

## 제석선교대회

사회/ 최광언 목사 공동준비위원장  
기도/ 김영길 목사 공동준비위원장  
선교보고/ 강성일 선교사 브라질  
선교보고/ 김위동 선교사 콜롬비아  
선교보고/ 김영화 선교사 아르헨티나  
선교보고/ 최광규 선교사 도미니카  
차세대선교도전/ 조용중 선교사 GP선교회북미주  
설교/ 토마스 왕 기독교21세기운동

## 한인디아스포라의 사명

### [새벽기도회 설교]

공동대회장 **고인호**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이며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2000) 공동대회장인 고인호 목사는 미장로교단 북미선교부(MNA)에서 한인담당으로 사역하고 있다.

[사도행전 13:1-3]

#### I. 서론

1. 구원은 아담의 타락 이래 하나님이 인간역사에 두신 가장 크신 뜻이다.
2.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민족을 택하시고 쓰신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쓰시려고 하셨으나 쓰실 수 없었다.
3. 하나님은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교회보다 안디옥교회를 쓰셨다.
4. 그 하나님은 말세에 한국백성을 쓰시려는 계획이 계시다.
5. 하나님은 한국백성을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퍼진 디아스포라로 만드셨다.

#### II.

1. 미국으로 온 한인디아스포라와 초대교회의 디아스포라 비교.
2. 하나님은 왜 안디옥교회를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로 쓰셨던가?
3. 미국은 예수님 당시 로마와 같은 나라요 영어는 예수님 당시 헬라어와 같은 언어다.

#### III.

1. 초대교회때 헬라와 유대인들을 써서 세계선교를 하신 하나님은 말세에 미국에서 자라는 한국 2세들을 쓰시기 원하신다. 2세들은 곧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될 수 있는 자들이다.
2. 세계선교는 1세보다 2세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2세는 곧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이중문화와 이중언어권에 속한 자들로 오늘날 세계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찾는다.
3. 세계문화와 세계언어를 습득한 자가 말세에도 세계선교에 쓰임받을 것이다.

#### IV.

1. 이민교회의 사명을 다른 것이 아닌 2세들을 키워서 세계선교를 이룩하는 것이다.
2. 2세들을 키우려면:
  - 1) 1세들의 유대와 유대인들과 같은 권위의식을 제거하여야 한다.
  - 2) 1세들은 2세와 같이 낮아져야 한다.
  - 3) 2세들의 문화를 이해하라. 곧 미국문화를 이해하라.
  - 4) 2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 5) 그리하여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라.

## 엘리아의 침상

### [새벽기도회 선교도전/선교사]

방글라데시 선교사 **장순호**



웨스턴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과정 중인 장순호 선교사는 1984년 방글라데시로 파송되어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다

[열왕기상 17:19-24]

구약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3년 반 동안의 기근 시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고 그후 그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무는 동안 떡 반죽 그릇과 기름병을 마르지 않게 하심으로 기근을 넘기게 하신 사건이 있다.

1.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름과 가루를 마르지 않게 하셔서 굶어죽지 않게 하실 때에는 계속해서 굶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저 받아먹기만 했지 그 과부에게서 아무런 감사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분만 아니라 그러한 도움을 받도록 해준 엘리아에게 당신은 창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먹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란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되자 엘리아에게 대들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라고 항의를 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많은 "MISSION"들이 해왔던 대로 그저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는 것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2. 끌어 안고 부르짖다.

엘리아는(19-20절) 그 죽은 아이를 달라 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21절) 그냥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엎드리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엘리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아이의 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게 되었다. 그러자(24절) 비로소 여인이 말하길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고 고백한다.

3. 겸손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역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상으로 이 지상에 오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자인 들에게 낮아지지 못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 인간을 찾아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있지는 않는가? 낮아져야 그리스도의 인척도 나타나고, 감동도, 능력도 나타나며, 기적도, 복음증거도 선교도 가능하다.

## 선교와 자기희생

### [새벽기도회 선교헌신/차세대]

리빙웨이스커뮤니티교회 담임 **노진산**

노진산 목사는 뉴욕의 리빙웨이스커뮤니티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동부개혁장로교신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영어권 목회에 헌신하고 있으며 2세들을 위한 여러 대회와 세미나에 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마태복음 10:1-10]

예수의 선교사들은 전적인 자기 헌신을 통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

서론 : 마태복음서에서 5가지의 하나님 왕국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을 보면 모두 선교를 위한 제자훈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마태복음 7:28, 11:1, 13:53, 19:1, 26:1)

1. 예수의 제자들을 부르심
2. 제자란? - 예수를 그들의 전 삶의 주로써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
3. 진정한 제자의 모습 - 전적 헌신, 자기 부인, 예수와 함께 기꺼이 고통을 받으려는 자세

##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선교적 구조갱신

### [성경강해]

전주안디옥교회 담임 **이동휘**

2,700명의 교인이 160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매월 10만불 이상의 선교비를 지급하는 양철콘센트로 만든 전주안디옥교회의 담임인 이동휘 목사는 바울선교회를 창설, 회장으로도 사역하고 있다.



사도행전 2장 1-47절을 중심으로 본인이 시무하는 전주안디옥교회의 선교를 소개하므로 선교하는 교회의 구조와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교회설립 이념과 목적을 선교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행전 교회는 교회자체가 선교의 모판이었다.)
2. 교회재정의 70%는 선교비로 (현금 나온 것은 모든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
3. 교회는 일년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주님의 명령따라 집행했다.)
4. 교회 내 각 기관을 보조하지 않는다. (성령이 바로 교회의 재산이고 힘이였다.)
5. 모든 봉사자는 어떤 보수도 받지 않는다. (초대교회는 모두 자비량 봉사자이다.)
6. 교회를 선교체제로 운영한다. (교회가 설립되면 바로 선교를 위해 재생산하는 교회였다.)
7. 교회 밖의 선교는 세 가지로 나눈다. (초대교회는 대내 대외사역을 같이했다.) - 해외선교, 농어촌선교, 특수선교.
8.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기쁨을 교인들이 가지는 결과가 되었다. (사도행전 교회는 칭송받는 교회였다.)
  - 1) 선교명령을 실천하고 있다는 기쁨
  - 2) 부흥과 안정을 다 같이 주셨다.
  - 3) 불신사회에 대한 빛의 사명
  - 4) 농촌교회에 자립의지를 심어주었다.
  - 5) 특수소외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 6) 각 나라를 위한 기도와 관심이 많아졌다.
  - 7) 한국교회의 자극을
  - 8) 선교헌신자 배출
  - 9) 교회개혁을 지속적으로
  - 10) 바자회를 통해서 선교의 한 몫을 담당

## 지역교회 선교활성화전략

### [주제강연 I]

미선아메리카 총재 폴 시더



1974년 빌리 그레함 주도로 복음주의 선교운동을 탄생시킨 로잔세계복음화운동의 현 총재인 폴 시더 박사는 현재 전 미국을 휩쓸고 있는 기도의 등대 선교운동 단체인 미선아메리카의 총재직을 맡고 있다.

#### I. 전도를 위한 지역교회의 실패와 모델

- 1) 복음전도/선포 중심의 교회 2) 계획적인 전도 중심의 교회 3) 기도전도 중심의 교회 4) 불신자 중심의 교회
- 5) 세계선교 중심의 교회 6) 세포/등대 중심의 교회 7) 제자훈련 중심의 교회
2. 세계복음화를 위한 효과적인 교회모델 제안
  - 1) 기도 2) 사랑과 공화 3) 제자훈련 4) 지역전도사역 5) 타문화권 전도사역 6) 전세계를 향한 선교사역

## 평신도선교자원 집중개발전략

### [주제강연 II]

KWMC평신도선교운동본부장 유효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정신과 의사이며 현재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고 있는 유효명 장로는 KWMC에서 평신도선교운동 본부장직을 맡고 있으며 기독교21세기운동 평신도선교위원이다.

#### I. 평신도

1. 통속적 개념 : Clergy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의 Laity
2. 성서적 개념 :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Laos

#### II. 선교자원

1. 제자, 증인 (Great Commission Christian, World Christian)
2. 선교동원된 크리스찬 (Mobilized Christian)

#### III. 개발전략 - 예수님의 전도사역 방법

(마태복음 9:35-36)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전략

1. 적극적 방안 (가르침과 전파를 통한 전략)
2. 소극적 방안 (영적 질병을 치유함으로 개발하는 전략)
3. 제도적 방안
  - 1) Organization(Institution)에서 Organism(유기체)으로서의 교회 패러다임의 전환
  - 2) 분화된(compartmentalized) 교회조직에서 전략적 교회조직으로
  - 3) "팔방미인적" 교회사역에서 선교지향적 교회로
4. 새 개혁 - 만인제사장직 회복운동

## 북미주 차세대 선교동원전략

### [주제강연 III]

한미세계선교센터 총무 김종헌



미국세계선교센터에서 북미주 선교동원책으로 사역을 시작한 그는 1989년 선교센터에서 북미주 한인선교동원의 필요를 느껴 적극 후원을 받아 한미세계선교센터를 창설, 현재 총무로 섬기고 있다.

서론 : 2000년까지 1,000명?

#### I. 무엇이 있었는가?

1. 지구촌선교교회
2. 단기선교
3. 제1차 한인세계선교대회
4. KAYC
5. 어바나 '90, '93, '96
6. 제2차, 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
7. 세계기독교운동조망 훈련코스
8. 병주동이 신드롬

#### II. 연속성에 관하여

1세 한인교회와 2세교회와의 관계성

#### III. 어떻게 할 것인가?

1. 1세 한국어권 회중들을 후원협력자로
2.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3. 북미주 한인선교사 파송구조의 필요성

## 한인세계선교, 그 창의적 선교패러다임

### [주제강연 IV]

GP선교회 국제대표 이은무



종전의 PWM선교회와 지구촌선교회가 연합하여 120명이 넘는 대규모의 선교단체로 거듭난 GP(Global Partners) 선교회의 국제대표인 그는 1976년부터 선교사로 파송되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등지에서 사역해오고 있다.

#### I. 패러다임 무엇이 문제인가?

#### II. 왜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가?

1. 우리의 선교환경이 변하고 있다.
2. 우리가 전해야 할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
3. 우리의 선교패턴이 변화되고 있다.

#### III. 우리가 추구하는 창의적 선교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1. 종합적 팀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상호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다각적 동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4. 현지인의 인격이 존중되어 현지인 리더십이 세워져야 한다.
5.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여야 한다.
  - 1) 철저한 희생과 헌신의 정신
  - 2) 한 영혼의 귀중성 회복, 사랑과 인격의 만남
  - 3)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져야 한다
  - 4)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한 사역

##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 [주제강연 V]

미국플라스틱주식회사 회장 **스탠리 탬**

「하나님이 내 기업의 주인이다」의 저자인 스탠리 탬은 연간 일천오백만불의 매출액을 내는 오하이오의 미국플라스틱주식회사 사장으로 사업이윤의 100%를 선교단체에 헌금해 오고 있다.



한국전쟁 중 한국을 방문했던 스탠리 탬 박사는 세계선교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미국에 돌아왔다. 자신의 전 사업을 하나님의 선교 지원책으로 작정한 후 1952년 5,000불이었던 선교지원이 1999년에는 년 3백만불이 되었다.

## 수난의 땅 코소보, 모슬렘의 관문을 뚫자

### [선교도전]

타코마중앙장로교회 장로 **이상진**

지구촌교회개척선교회와 코소보선교회를 설립하여 왕성한 평신도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상진 장로는 인도에 200여개의 원주민교회를 개척, 지원하고 있으며 코소보에 300개의 교회개척을 목표로 운동을 펼치고 있다.



##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브라질 선교사 **강성일**

장로회신학대학을 졸업한 강성일 선교사는 1983년 브라질로 파송받았으며 현재 브라질장로교신학대학 학장 등으로 사역하고 있다.



###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콜롬비아 선교사 **김위동**

부산대 사범대와 장로회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 김위동 선교사는 1987년 콜롬비아로 파송받고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다.



###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아르헨티나 선교사 **김영화**

경희대, 총신신대원을 졸업하고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1983년 파송된 김영화 선교사는 A.C.E.C.A. 교단을 설립하였고 방 송국을 설립하여 대표로 있으며 교회개척사역 등을 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평화복지인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도미니카 선교사 **최광규**

대한신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Universidad Tercer Edad 법대를 수료한 최광규 선교사는 1988년 도미니카에 파 송되어 세노비교회 등 교회개척, 한도학교 설립, 신학교 강의 등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 [저녁선교대회 선교도전]

GP선교회 북미주상임총무 **조용중**

북미주 출신 제1호 선교사로 필리핀에 파송되어 7년간 필리핀과 동남아 미전도종족선교에 주력한 조용중 선교사는 현재 GP(Global Partners) 선교회 북미주 상임총무로 있으며 제3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으로도 사역하고 있다.



##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 [저녁선교대회 설교]

기독교21세기운동 국제총재 **토마스 왕**

중국기독교외교 창설 및 사무총장, 중국세계선교협의회 창설 및 사무총장, 로잔세계선교운동 국제총무 등을 역임하였고 기독교21세기운동을 창안하여 국제총무로 현재까지 미전도종족 복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요한복음 20:1-23]

1.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심 - 구속과(디모데전서 1:15, 16), 교회를 세우심(마태복음 16:18, 19),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하여 (요한계시록 11:15)
2.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보내심 - 선교사역의 계속을 위하여
3. 중심연결고리인 그리스도 -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신 것처럼 우리를 함께하심. (요한복음 15:9, 10:14-15, 15:10, 17:18)
4. 파송의 권위 (마태복음 28:19, 요한복음 20:21, 마태복음 16:18) - 헤롯, 빌라도, 가야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권위는 모두 스러져 버리지만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권세는 지속됨.
5. 파송의 목적 - 1) 인류의 구속 2) 교회를 세움 3) 변화된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6. 메시지 (고린도후서 4:5, 고린도전서 2:2, 디모데후서 2:15)
7. 선교사 (모든 교회) (마태복음 5:13-16, 사도행전 8:4) - 평균적으로 한 교회의 교인 중 10%만이 "선교적"인 행동하는 기독교인이고 90%는 "명목상"의 교인이다. 지도자들은 바로 이 90%를 움직여야 한다.
8. 전세계로 (사도행전 1:8, 요한복음 20:21) - 모든 사회, 모든 영역으로
9. 파송의 의무 (마태복음 5:16) - 진리를 선포할 뿐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관계성을 드러내야 함.



##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김요한 목사**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  
선교도전/ **오석환 목사** 오이코스미니스트리  
설교/ **안성기 목사** 시카고남서부교회

## 성경강해

강사/ **이동휘 목사** 전주안디옥교회

## 주제강연

주제강연I 강사/ **손봉호 장로** 서울영동교회  
주제강연II 강사/ **이상남 목사** LA 한인등대교회  
주제강연III 강사/ **신홍식 선교사** 태국  
주제강연IV 강사/ **손중철 선교사** 세계한인선교사회

## 프레젠테이션

사회/ **최인순 목사** 공동준비위원장  
기도/ **전덕영 목사** 공동부대회장  
설교/ **김택용 목사** 와싱턴환인장로교회  
축사/ **방지일 선교사** 한국초기선교사  
선언문채택/ **고석희 목사** KWMC사무총장  
성찬집례/ **임동선 목사** 명예대회장

## 불 밝히고 기다리라

### [새벽기도회 설교]

공동대회장 **안성기**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이며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2000) 공동대회장인 안성기 목사는 현재 시카고남서부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살면서... 선교하면서 (디모데후서 4: 1-2)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야고보서 4: 14)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에베소서 5:15-16)

우리에게는 한가지 일을 끝내 놓고 자녀교육 끝내 놓고 ... 그때에 주의 일도 하고 선교도 하겠습니까 ...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인생 최대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이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히 명하신 지상명령입니다. (본문 1, 마태복음 28: 19-20, 마가복음 16: 15, 사도행전 1 :8).

심판주로 오실 주님은 성도 각자에 대한 심판의 기준을 선교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다른 요소들은 이 선교를 위하여 존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와 관계없이 행하는 일은 실패요 무가치하며 낭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전 삶을 선교에 집약할 때입니다. 성도의 선교생활화, 사업의 선교도구화, 교회의 선교체제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본문 2)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과 기회와 환경을 모두 선교를 위해 사용합시다.

### [새벽기도회 선교도전]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 총무 **김요한**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의 한국지부장인 김요한 목사는 현재 UBF(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 홍보국제총무이며 대학선교문화연구소장이다.

## 주님의 큰 민족을 이루라!

### [새벽기도회 선교도전/차세대]

오이코스미니스트리 **오석환**



남가주에서 교회개혁사역을 하며 오이코스미니스트리를 창설한 오석환목사는 14년간의 미주 2세 한인 및 아시아인 사역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 모임에서 강사로 활약하고 있으며 한인 2세 사역을 위한 책을 집필하기도 했다.

[창세기 12: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 바울서신에 나타난 선교정신

### [성경강해]

전주안디옥교회 담임 **이동휘**



2,700명의 교인이 160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매월 10만불 이상의 선교비를 지급하는 양철콘센트로 만든 전주안디옥교회 | 담임인 이동휘 목사는 바울선교회를 창설, 회장으로도 사역하고 있다.

선교사되는 8가지 (바울서신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선교사되라는 말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되어야 할까요. 8가지 면에서 선교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 첫째, 젊은이들은 선교사로 나갑시다. (해외선교사) (소명받은 일꾼들이 선교군단을 이루어 땅끝까지 갔다)
- 둘째, 부모는 자녀를 선교사로 바칩시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기도로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
- 셋째, 기도선교사가 되십시오. (바울은 서신서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 넷째, 물질선교사가 되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물질로 바울을 힘있게 도왔다)
- 다섯째, 직장 선교사가 됩시다. (바울이나 아굴라는 직업을 가지고 선교했다)
- 여섯째, 가족 선교사가 됩시다. (구레네시몬은 그가정을구원하여 그부인은 바울의 믿음의 어머니되는 신실한 신앙인이었다)
- 일곱째, 문화선교사가 됩시다. (바울은 이방풍속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정신대로 살 것을 서신서 후반부에 기록했다)
- 여덟째, 길거리 선교사가 됩시다. (위험을 당하면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다)

##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그 인격과 윤리성

### [주제강연 I]

한국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표 **손봉호**



수많은 저서와 강연을 통해 현대인의 도덕성과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온 손봉호 장로는 한국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대표이며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봉직하여 서울영동교회장으로 시무하고 있다.

I. 현대세계의 중요한 성격과 기독교에 대한 도전 -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라 할 수 있고, 그들은 각각 그리스도인들에게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많은 도전을 하고 있다'

1. 세계화와 물질주의
2. 다원주의와 상대주의
3. 시민사회의 발달과 신앙의 자유 위협

II. 기독교의 자원과 대응 -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으로 발굴하고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어느 시대에나 할 말이 있는 성경은 이 시대에도 분명히 권위를 가지고 제시할 내용이 있다.

1. 사랑과 진실의 보편성
2. 정의와 선교
3. 그리스도인의 세계연대

III.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윤리성 (사랑) - 세상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가진 자원을 개발하고 세상이 제공하는 가능성을 이용할 뿐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60-80년대에 강조되던 구조결정론은 이제 많이 약화되고 개인의 자질과 도덕성이 다시 중요시되고 있고, 이는 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 관용과 확산
2. 성령과 성화
3. 세계내적 금욕

## 21세기 선교사의 영적각성

### [주제강연 II]

공동대회장 **이상남**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이며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2000) 공동대회장인 이상남 목사는 현재 LA 한인등대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사도행전 1:8]

서론 : 일찌기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두 가지 사설을 언급해 주셨다. 그 첫째는 성령충만(성령세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고 그 둘째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사설을 강조해 주셨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땅끝 세계선교의 중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선교사들의 영적각성의 비결을 찾아볼 수 있다.

1. 21세기 선교사들이 영적으로 올바르게 각성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성령세례)을 받아야 하겠다.
2. 21세기 선교사들이 영적으로 올바르게 각성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인격과 생활이 성결하게 변화되어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하겠다.

결론 : 우리는 주님의 분부하신 본문 말씀(행 1:8)의 참된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 크게 각성해야 하겠다

##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 [주제강연 III]

태국 선교사 **신흥식**



1971년부터 현재까지 태국선교사로 최장기 사역을 하며 태국기독교총회, 방콕신학교 부원장 겸 신학대학원장으로 신학교육을 통한 현지인교역자양성, 신학서적 출판, 도시교회 개척지도 및 지원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1.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한 결단은 자발적 헌신의 의사표시
2.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한 결단은 성육신적인 고난의 각오를 내포합니다.
3.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한 결단은 영광스러운 내일을 약속하는 복된 선택이었습니다.

## 한인세계선교, 그 협력선교의 대행군

### [주제강연 IV]

세계한인선교사회 사무총장 **손중철**



1978년 파송된 이래 두루선교회를 세워 60여명의 동역자들과 사역하며 인터넷세계선교사대학교를 설립, 범세계적 선교네트워킹의 비전을 불태우고 있는 손중철 선교사는 세계선교사회 사무총장직으로도 봉사하고 있다.

현재 한인선교사는 8천여명에 이르며 150국가에서 선교하고 있다. 새천년에 들어와 한인세계선교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선교사로 동원하고 이미 해외에 나와있는 이들을 모두 선교사로, 혹은 적합한 선교사역을 담당케 할 때 교역자 선교사 수만 2만8천여명, 해외 평신도선교사 1백만, 한국내 평신도선교사를 합하면 1백만여명에 이른다. 모두 2백2십만명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선교협력과 동원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1. 인구증가 (세계선교는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라가지 못함)
2. 기독교인 수의 변화 1960년 이후 급격한 감소율
3. 선교사들 철수 축구의 실수
4. 폭탄적 선언 -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방대한 인구
5. 최대한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 골목마다 보내자, 선교력 총동원
6. '미전도종족선교'에서 '미전도지역선교'에로 나아가자
7. 전투적 프로젝트 선언을 중단하자
8. 새천년에는 '두루선교(Thru Mission)' 하자

## 명절의 끝과 선교대회의 끝날

### [폐회에배 설교]

공동대회장 **김택용**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이며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KWMC2000) 공동대회장인 김택용 목사는 현재 와싱톤한인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요한복음 7:37-39]

1. 축제의 중심은 감사,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의 끝날은 축제의 절정을 이루는 날로서 모인 무리들이 그들이 일주일간 머문 장막을 거두기 전에 종려나무 가지나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또 그들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할렐루야 감사찬송도 불렀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2. 사명감에 불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절기의 끝날에 열심을 다하시는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피곤함이 있어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연민의 정을 가지시고 진리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셨습니다.

3. 생수가 넘쳐 흘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인 무리에게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시는 방법은 예수님께서로 나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4차 선교대회를 마감하는 때를 맞이하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 분야에서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세계 각 곳에서 선교전선을 지키고 계신 선교사님들께 격려를 보냅니다. 또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선교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복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명감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수가 넘쳐흐르는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제5차 선교대회는 평양에서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 가라

[폐회예배 축사]

한국 초기 선교사 **방지일**



[여호수아 1:2]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가라"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사 대속, 구속의 대업을 이루시어 죄인 대신 죽으셨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 된 권능으로 부활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사실을 오늘까지 실천하여 나오는 선교의 역사에 동참하여 선교한국을 과시하는 모임이 이번까지 네번째 모임을 갖고 이제 다시금 "가라"하시는 명령을 재음미하며 떠나야 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지시하시는 분부를 감당하기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할일은 내게 맡긴 모든 백성과 같이 가라는 것입니다. 내게 누구를 맡기셨는지 이 맡은 이들을 다 데리고 가야합니다. 이 분부하심에 순종하여 소임을 감당하여야 마땅합니다. 이번 이렇게 모였다 헤어지면서 다시 주신 그 분부를 재음미하면서 떠나 갑시다.



다양한 선교현안들과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위해 150여개의 다양한 주제들과 한인/외국인/선교사 강사들의 선택강좌가 대회중 화/수/목 오후 3:30과 5:00에 1시간씩 진행됩니다.

## 1. 선교일반

①-01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선교	최인순	화 3:30	Armerding 126
①-02	세계선교에 대한 구속사적 전망	김영진	화 5:00	Armerding 126
①-03	교회사의 비평적 평가	돈 리차드슨	수 3:30/5:00	BGC 432C
①-04	그리스도인의 대서명	홍원기	화 3:30	Blanchard 139
①-05	핍박받는 교회와 순교자 동향	잭 쉐퍼	화 3:30/5:00	Breyer 103
①-06	그리스도인의 수난과 순교의 선교적 의미	이영기	목 3:30	Breyer 103
①-07	세계선교와 부흥운동사	장석진	화 5:00	BGC 272
①-08	한국기독교 경건패러다임과 선교	윤사무엘	화 5:00	Armerding 20
①-09	자아발견과 세계선교	이영섭	수 3:30/5:00	Barrows
①-10	열방을 제자로	로렌 커닝햄	수 3:30	Barrows
①-11	문명과 격돌하는 말씀의 능력	로렌 커닝햄	화 5:00	Barrows
①-12	국제대학생운동의 현황과 전망	이종형	화 3:30	BGC 138
①-13	성령과 선교	문만식	목 3:30/5:00	BGC B10
①-14	어바나2000 선교대회	바니 포드	화 3:30/5:00	BGC 432C
①-15	세계선교역사의 이해와 2000년대의 세계선교	조동진	화 3:30	Armerding 18
①-16	제3세계 선교지도력과 미리: 일본 교토대회의 의미	조동진	수 3:30	Armerding 18
①-17	한국교회부흥사	사무엘 마팻	화 5:00	Armerding 18
①-18	하나님의 주권과 선교	브라이언 리	화 5:00	Blanchard 455
①-19	선교의 기초와 적용원리	서만수	화 3:30	Blanchard 455
①-20	하나님의 선교와 그의 동역자들	박창환	화 5:00	BGC 254
①-21	한국경제와 한국교회의 세계선교	유종근	화 5:00	Barrows

## 2. 세계복음화 미완성과제

②-01	21세기 지구촌의 도전들	토마스 왕	목 3:30/5:00	Barrows
②-02	서기 2000년 - 대서명 달성, 우리는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루이스 부시	화 3:30/5:00	Blanchard 339
②-03	현대선교전략의 새경향	김희창	화 3:30	Armerding 20
②-04	10/40창 타문화권, 근접문화권, 상호문화사역권	K.P. 요하난	화 3:30 수 5:00	McAlister HBR
②-05	미전도종족복음화 과업과 도전	존 럽	수 3:30	Armerding LH
②-06	미전도종족을 향한 총체적 선교	존 럽	수 5:00	Armerding LH
②-07	여호수아작전: 미전도종족 분양전략	한정국	목 3:30	Blanchard 222
②-08	WEC의 미전도종족선교전략	유병국	수 3:30	Armerding 20
②-09	타문화권 관점에서의 죄 개념	로버트 프리스트	화 3:30/5:00	BGC 136
②-10	21세기 세계선교의 방향	유근만	수 3:30	Armerding 223
②-11	동아프리카 디고족족 입양선교 사례보고	이훈경	수 3:30/5:00	Blanchard 273

## 3. 한인세계선교

③-01	제3세계 선교현황과 한국교회선교전략	노봉린	수 5:00	Blanchard 339
③-02	21세기 한인선교의 공동방향설정	김유식	화 3:30	BGC 276
③-03	타문화권선교의 구조적 개선방안	신홍식	목 5:00	Pierce Chapel 108
③-04	전방위선교 - 권리포기와 섬김의 길	박용	화 5:00	Breyer 103
③-05	한국대학생/청년선교운동 현황과 전망	김요한	화 5:00	BGC 140
③-06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선교동력화	강성철	수 5:00	Breyer 207
③-07	현지선교지도력 개발	조용중	화 3:30	BGC 253
③-08	사물놀이와 오케스트라의 대화: 아시아 선교발전을 위한 제안	황태연	화 3:30	BGC 140
③-09	한국선교의 컴퓨터자료화 이용	이영제	목 3:30	Pierce Chapel 104
③-10	아시아 현지선교사들을 깨움: 새롭게 부상하는 선교세력	백운영/박영은	목 3:30	BGC B12
③-11	선교현장과 팀사역: 그 원리와 실제	이은무	목 5:00	BGC 432C
③-12	한인교회선교의 당면과제와 비전	장순현	화 3:30	Breyer 103
③-13	한국교회의 세계선교 평가와 방법론 재고찰	박영환	목 3:30	BGC 250
③-14	대규모선교동원운동	허세은	목 5:00	Breyer 9
③-15	21세기 통일조국의 세계선교 주역	김영철	목 5:00	BGC 140
③-16	복음과 통일 그 사명과 스며들	장정애	수 5:00	BGC 140

## 4. 교회와 선교

④-01	선교를 위한 교회의 포괄적 전략	폴 시더	목 3:30/5:00	McAlister HBR
④-02	선교목회의 지도력	이동휘	화 3:30	Barrows
④-03	혁신적 교회성장과 선교를 위한 이론과 전략	정병관	화 5:00	BGC 276
④-04	파송교회와 파송선교사의 관계성	윌리 브랜들	목 5:00	Breyer 8
④-05	선교사 파송교회의 역할	이원상	수 5:00	BGC 136
④-06	선교헌신자와 부모간의 갈등해소	팻 케이트	수 5:00	Blanchard 139
④-07	영광스러운 교회 - 선교적 측면에서 본 교회론	송성엽	화 3:30	Armerding 123
④-08	효과적인 선교행정	이기홍	목 5:00	Armerding 20
④-09	어린이선교의 성경적 원리	질 해리스	화 3:30	Fischer Crusader
④-10	어린이의 영적성장	질 해리스	수 3:30	Breyer 9
④-11	이민교회의 내일과 팀사역의 적용	이승중	수 3:30	BGC B10
④-12	이야기 설교와 성경공부	이연길	화/수 3:30	Pierce Chapel 104
④-13	노령화 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과 준비	권태진	수/목 3:30	BGC 140
④-14	어린이사역 및 부흥을 통한 지역복음화전략	송용걸	목 5:00	BGC 136
④-15	효력있는 설교사역	이영희	수 3:30	BGC 136
④-16	기도선교와 선지자적 중보기도, 1부	딕 이스트맨	화 5:00	Pierce Chapel 108
④-17	기도선교와 선지자적 중보기도, 2부	딕 이스트맨	수 3:30	Pierce Chapel 108
④-18	성경적 금식기도의 능력	진성인	수 3:30	Blanchard 455
④-19	동업자이신 하나님	스탠리 탬	목 3:30/5:00	Armerding LH
④-20	성경적 경제윤리	명돈의	화 5:00	Armerding 123
④-21	후방사역이 평신도들을 부른다	최순자/김브라이언	목 5:00	BGC 276
④-22	현장성경공부를 통한 전도운동	김용완	목 5:00	Armerding 223
④-23	개인전도	최명자	수 5:00	Pierce Chapel 104
④-24	지역교회에서 세계선교로	전준식	화 3:30	BGC 252

## 5. 선교사

5-01	하나님의 선교소명	윌리 브랜들	수 3:30	Breyer 8
5-02	선교사의 영적전쟁	강승삼	목 5:00	BGC B10
5-03	선교사의 영성관리	호성기	화 5:00	BGC 432C
5-04	선교사윤리	손봉호	목 3:30/5:00	BGC 432C
5-05	선교사역의 팀다이나믹	장순호	화 5:00	BGC B12
5-06	선교와 은사개발	우수명	목 5:00	Breyer 207
5-07	선교사의 파송과 관리	한도수	수 5:00	BGC 276
5-08	선교지의 자녀양육	캐롤 리차드슨	수 5:00	Armerding 18
5-09	선교사역의 내적갈등과 해소방안	전희근	수 3:30	Armerding 126
5-10	선교사의 건강관리	백형권	전체 6회	BGC 432D
5-11	선교사 연장교육	데이빗 브로우섹	화 5:00	Blanchard 222
5-12	선교에 있어 여성의 역할	로스 레오노빅	수 5:00	BGC B12
5-13	비전, 사명, 믿음의 행동 - 선교사비전의 발전단계	조나단 차오	수 3:30	McAlister HBR
5-14	독신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김자선	화 5:00	BGC B10
5-15	사람을 따르게 하는 선교사의 영성	소강석	수 3:30	Blanchard 339
5-16	불타는 소명을 회복하자	소강석	수 5:00	Blanchard 339
5-17	선교지에 적합한 교회형태 : 가정교회	최영기	화 3:30	BGC B10
5-18	선교사 자녀들의 정체성 혼란	백요한	목 3:30	Armerding 223
5-19	선교사역과 영적치유	이윤호	목 5:00	BGC 250
5-20	선교지 의존성 문제 - 마이크로 크레딧으로	조셉 E. 리치터	수 5:00	Breyer 8
5-21	선교사에 대한 선교지교회의 의존성 문제	주진국	화 5:00	BGC 250
5-22	선교현지에서의 동반자선교	김병윤	목 5:00	Blanchard 222
5-23	선교현지신학교 교수/지도자 육성을 위한 네트워킹	김종국	수 3:30	BGC 253
5-24	현장선교사가 체험한 선교이념	김상목	수 3:30	Breyer 207
5-25	사진세미나 - 어떻게 최고의 사진을 찍을 수 있나?	이이규	화 5:00	Pierce Chapel 104
5-26	사진을 통한 선교 - "하나님의 손"	함철훈	목 5:00	BGC 254
5-27	선교와 사진	김형주	수 3:30	Armerding 223
5-28	선교지에서의 제자훈련	박순중	수 3:30	BGC B12
5-29	선교지망자의 준비	데이빗 브로우섹	화 3:30	Blanchard 222
5-30	2세를 위한 소명과 헌신	박광자	수 5:00	Armerding 123
5-31	요셉운동을 통한 선교헌신자 양성	나광삼	목 3:30	Breyer 9
5-32	주일학교를 통한 원주민교회 성장전략	양창근	수 5:00	Blanchard 455

## 6. 지도력개발

6-01	지상명령 라이프스타일	로버트 콜만	화 3:30/5:00	Armerding LH
6-02	선교지에서의 지도력	이영희	목 3:30	BGC 136
6-03	사역자의 시간관리	이정근	수 5:00	Breyer 9
6-04	한인교회 차세대 지도자 양성방안	양춘길	목 5:00	Armerding 123
6-05	한 교회에서 1세와 2세가 협력하는 이루는 선교사역	김승욱	수 3:30	BGC 432C
6-06	한국기독교인의 공공성개념 극복의 문제	임창호	목 5:00	Armerding 126
6-07	세계선교를 위한 목회자의 국가관	김현중	목 5:00	BGC 272
6-08	연장신학교육을 통한 지도자 육성	김길	수 5:00	Breyer 103
6-09	사역의 비전과 도전과 승리	김영준	수 3:30	Armerding 123
6-10	차세대선교포럼	심수영 정민용 노진산 김정환	수 5:00	Edman Chapel
6-11	선교소명자포럼	조용중 김중현 김현인 박광자	목 3:30	Edman Chapel
6-12	여성선교포럼	박광자 김자선 박병석 김순애	목 3:30	Pierce Chapel 10

## 7. 타종교/타문화선교

7-01	불교권선교	옹망	목 3:30	BGC 252
7-02	북미주 인디언선교	강부웅	목 3:30	Breyer 207
7-03	불어권지역 전망과 도전	이몽식	목 3:30	BGC 254
7-04	이슬람권선교의 새로운 한국적 패러다임 모색을 위하여: 종교(이슬람)인가, 사람(무슬림)인가?	김철수	목 3:30	Blanchard 139
7-05	중동선교의 성서적 근거	김만우	화 3:30	BGC 250
7-06	지역개발을 통한 모슬렘권 교회개척	서원석	화 5:00	BGC 254
7-07	무슬림을 향한 우리의 책임	미치 토산	화 3:30	BGC 254
7-08	유럽 내 모슬렘망명자 선교현황과 그 전략	나승필	수 5:00	BGC 253
7-09	유대인선교의 성서적 근거	웨슬리 테이버	목 3:30	Blanchard 273
7-10	유대인 선교전략	웨슬리 테이버	목 5:00	Blanchard 273
7-11	포스트모던 아시안-아메리칸 선교	차피터	목 5:00	BGC B12
7-12	로마카톨릭지역선교	강두호	수 3:30	BGC 250
7-13	독일교회와 한국교회의 통일역할	신현파	수 3:30	BGC 254
7-14	아마존인디오 미전도종족선교	김철기	목 3:30	BGC B11
7-15	구소련선교와 교회개척	닉 레오노비치	수 3:30	Blanchard 222
7-16	코소보선교 300교회개척운동	이상진	목 3:30	BGC 432C

7-17	국제유학생선교	안영철	목 5:00	Blanchard 139
7-18	이단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박성규	화 3:30	Blanchard 273

## 8. 단기/평신도자비량선교

8-01	단기선교의 전략적 모델: 선교정탐	유태중	목 5:00	BGC 253
8-02	단기선교 실제훈련방안	정강현	화 3:30	Breyer 9
8-03	단기선교와 선교헌신자 양성	김정한	화 5:00	Breyer 9
8-04	단기의료사역	장현식	수 3:30	BGC 276
8-05	단기의료선교의 새로운 전망	김영훈 최순자	목 3:30	BGC 276
8-06	전문인 자비량 선교사역	김순애	수 3:30	Breyer 103
8-07	자비량선교 - 패러다임의 대전환	이사무엘	화 3:30	Pierce Chapel 108
8-08	전문인선교인력의 효과적 수급전략	조용백	화 3:30	BGC B11
8-09	평신도선교자원 집중개발전략	유효명	목 3:30	Armerding 126
8-10	전문인직업을 통한 아라비안겔프지역에서의 선교전략	이춘우	화 5:00	BGC B11
8-11	평신도선교자원개발 전략회의	유효명 박문규 전희근 신종현	목 5:00	Edman Chapel
8-12	단기선교포럼	정강현 김영훈 장현식 김정한 유태중	수 3:30	Pierce Chapel 108

## 9. 특수선교

9-01	성경번역선교	이은섭 홍은선	수 3:30	BGC 252
9-02	복음폐쇄지역 방송선교의 효과	닉 레오노비치	수 5:00	Blanchard 222
9-03	21세기 한인선교전략과 항공선교	김영욱	목 3:30	BGC 253
9-04	선교와 디지털 시청각기구의 선택	나윤태	수 5:00	BGC 140
9-05	북미주 외향선교	박계로	목 3:30	BGC B11
9-06	새천년의 한국외향선교 비전과 전략	최기만 임재성	목 5:00	Breyer 8
9-07	21세기 최대의 선교블럭: 도시빈민	고광석	수 5:00	Armerding 20
9-08	구제선교 - 월드비전사역을 중심으로	심정환	화 5:00	Armerding 223
9-09	혼혈아선교	강영철	목 5:00	BGC B11
9-10	은퇴목사와 선교적 사명	김득렬	화 3:30	Breyer 207
9-11	은퇴목사의 선교비전	김재광	화 5:00	Breyer 207
9-12	선교지 지역사회 보건전도	김영훈	수 5:00	Armerding 126
9-13	교도소선교	이상숙	화 5:00	BGC 253

9-14	농아선교	임금희	수 5:00	BGC 250
9-15	장애자선교	조상희	목 5:00	BGC 252
9-16	국제이중문화가정 선교과제	강준원	목 3:30	Armerding 123
9-17	인종화합을 위한 기독교 사회윤리 선교과제	배현찬	화 5:00	Blanchard 273
9-18	군경선교	목사균	수 5:00	BGC 252

## 10. 아시아선교

10-01	북한을 향한 그리스도의 대사	스티븐 린튼	목 3:30/5:00	Armerding 20/18
10-02	평화선교로서의 대북활동	조동진	목 3:30	Armerding 18
10-03	북한교회재건 개척운동	김중석	목 5:00	Blanchard 455
10-04	북한선교 평가와 제안	이이삭	목 3:30	Blanchard 455
10-05	북한선교의 장기전략	김진환	수 5:00	BGC B11
10-06	북한을 바로 알자	이정남	화 3:30	BGC B12
10-07	탈북자문제와 북한선교	장석규	화 5:00	BGC 252
10-08	21세기 중국선교의 도전	조나단 차오	수 5:00	McAliser HBR
10-09	중국선교전략회의	황의춘 이관숙 이베헤 고동주 브리스길라 리	목 5:00	Blanchard 339
10-10	파키스탄선교	이평자	화 3:30	Blanchard 324
10-11	일본선교	이수구	화 3:30	Blanchard 272
10-12	몽골선교	최병효	화 5:00	Blanchard 125
10-13	네팔선교	이춘심 김명호	화 5:00	Blanchard 125
10-14	베트남선교	김영관	화 5:00	Blanchard 324
10-15	홍콩선교	문대규	화 3:30	BGC 272
10-16	대만선교	최명희	화 3:30	BGC 272
10-17	라오스선교	김정인	화 3:30	Armerding 122
10-18	말레이시아선교	노종해	화 3:30	Blanchard 125
10-19	방글라데시선교	장영인 이향엽	화 3:30	Blanchard 324
10-20	미얀마선교	김균배 강대현	화 3:30	Blanchard 324
10-21	싱가폴선교	손중철	화 3:30	Blanchard 125
10-22	인도선교	김광선	화 5:00	Armerding 122
10-23	인도네시아선교	안성원 송광옥	화 3:30	Blanchard 272
10-24	태국선교	김성곤	화 5:00	Blanchard 272
10-25	필리핀선교	이원식 남후수	화 5:00	Blanchard 272

⑩-26	캄보디아선교	서병도	화 3:30	Armerding 122
⑩-27	스리랑카선교	최도식 이성상	화 3:30	Armerding 122

## 11. 중앙아시아/유럽선교

⑪-01	우즈베키스탄선교	김경일 권영봉	수 5:00	Blanchard 272
⑪-02	카작스탄선교	박기곤 최진규	수 3:30	Blanchard 272
⑪-03	키르기스탄선교	유동수	수 5:00	Blanchard 272
⑪-04	몰도바선교	한호진	수 3:30	Blanchard 125
⑪-05	우크라이나선교	정희술	수 3:30	Blanchard 125
⑪-06	러시아선교	이희재 남일우	수 3:30	Blanchard 272
⑪-07	루마니아선교	박천규 박창수	수 3:30	Armerding 122
⑪-08	불가리아선교	김호동	수 5:00	Armerding 122
⑪-09	알바니아선교	이향모	수 5:00	Armerding 122
⑪-10	체코공화국선교	남상이	수 5:00	Blanchard 125
⑪-11	헝가리선교	하용달	수 3:30	Armerding 122
⑪-12	폴란드선교	김현중	수 5:00	Blanchard 125
⑪-13	스웨덴선교	조충일	수 3:30	BGC 272
⑪-14	포르투갈선교	강병호	수 3:30	Blanchard 324
⑪-15	독일선교	박인갑	화 5:00	BGC 272
⑪-16	프랑스선교	이극범	화 5:00	BGC 272
⑪-17	그리스선교	손영삼	수 3:30	Blanchard 324

## 12. 중남미/오세아니아선교

⑫-01	도미니카공화국선교	김영구	목 3:30	Blanchard 125
⑫-02	코스타리카선교	민영진 박성도	목 3:30	Blanchard 125
⑫-03	유카탄선교	김종혁	수 5:00	BGC 272
⑫-04	멕시코선교	이주태	수 5:00	BGC 272
⑫-05	볼리비아선교	문익배	목 3:30	Armerding 122
⑫-06	브라질선교	노시영	목 3:30	Armerding 122
⑫-07	아르헨티나선교	임훈철 정현식	목 5:00	Armerding 122
⑫-08	파라과이선교	정금태 임성익	목 5:00	Armerding 122

⑫-09	에쿠아도르선교	이영민	목 3:30	Blanchard 272
⑫-10	칠레선교	김종길 이재삼	목 5:00	Blanchard 272
⑫-11	콜롬비아선교	서신길	목 3:30	Blanchard 272
⑫-12	페루선교	이춘현 박맹춘	목 5:00	Blanchard 272
⑫-13	과테말라선교	조득성	수 5:00	Blanchard 324
⑫-14	온두라스선교	박명하	수 5:00	Blanchard 324
⑫-15	뉴질랜드선교	신종혁 김종수	목 5:00	Blanchard 125
⑫-16	파푸아뉴기니선교	정재순	목 5:00	Blanchard 125

## 13. 아프리카/중동선교

⑬-01	가봉선교	김상옥	수 5:00	BGC B432B
⑬-02	남아공선교	전준수	목 3:30	BGC B432B
⑬-03	우간다선교	배상호	목 5:00	Blanchard 324
⑬-04	에티오피아선교	조창현	화 5:00	BGC B432B
⑬-05	이집트선교	이준교	화 5:00	BGC B432B
⑬-06	보츠와나선교	김혜영	목 3:30	BGC 272
⑬-07	탄자니아선교	이영권 안명찬	수 3:30	BGC B432B
⑬-08	케냐선교	이장식 강인중	수 3:30	BGC B432B
⑬-09	소말리아선교	조성덕	목 5:00	Blanchard 324
⑬-10	콩고선교	곽군용	수 5:00	BGC B432B
⑬-11	이스라엘선교	정연호 김진해	목 5:00	Breyer 103
⑬-12	터키선교	윤태권	화 3:30	BGC B432B
⑬-13	이란선교	이만석	화 3:30	BGC B432B
⑬-14	감비아선교	허경문	목 5:00	BGC B432B
⑬-15	모잠비크선교	이창규	목 3:30	BGC B432B
⑬-16	짐바브웨선교	박란순	목 3:30	BGC 272
⑬-17	코트디부아르선교	황익진	수 5:00	Armerding 223
⑬-18	모리타니아선교	권경숙	목 3:30	Blanchard 324
⑬-19	세네갈선교	유춘안	목 3:30	Blanchard 324
⑬-20	모로코선교	허영희	목 5:00	BGC B432B
⑬-21	튀니지선교	백남일	수 5:00	Armerding 223
⑬-22	가나선교	이용학	수 3:30	BGC 272

## 1. 선교일반

## ①-1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선교

최인순 /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 담임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를 담임하는 최인순 목사는 디트로이트 노회장도 겸임하고 있으며 미국 장로회 총회 총대로 일하고 있다. 서울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피츠버그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를 받았다.

이 세미나의 목적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보려는데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신앙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면, 상품을 모르면서 팔려는 세일즈맨과 같이 integrity 없고, 또 효과 없는 그리스도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미나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성서적 신앙이라는 것,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이라는 것, 기독교 신앙은 어느 한 민족의 종교가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을 위한 종교라는 것, 타세계적인(other worldly) 종교가 아니라 오늘 (오늘의 우리의 사명)을 심각하게 다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전도와 선교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선택과목이 아니라, 필수과목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 제목을 성서적 입장과 개혁교 신학적인 입장에서 (reformed theological perspective) 고려해 보려고 한다.

## ①-2 세계선교에 대한 구속사적 전망

김영진 / 나성한인교회 담임



한남대와 총신대, 리폼드신학교와 콘코디아신학교(Th.M., Th.D.)를 졸업한 김영진 목사는 국제신학교(ITS)의 이사장이며 나성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성경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 창세기는 구속역사의 시작을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은 그 완성을 보여준다. 세계선교사역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완성되기 위하여 중요한 방편으로 쓰이게 된다. 구속사는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의 예언, 예수님의 사역, 초대교회의 사역, 계시록의 증언으로 흐르게 된다. 이러한 구속사적 전망을 통해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 고난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 성경의 흐름에 대한 역사

적인 조명, 성령사역에 대한 새로운 관심, 개인주의와 영웅주의의 극복, 회복에 대한 새로운 이해, 사역자들의 역사의식 고취 등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①-3 교회사의 비평적 평가

돈 리차드슨 / &lt;화해의 이야기&gt; 작가



Don Richardson: 돈 리차드슨은 1962년 남태평양 이리안 자야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였고 그 당시 종족분쟁의 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바친 사건을 기록한 책, 「화해의 이야기」로 문화충돌 해결의 효율적 방안을 제시한 현대선교의 전설적 인물이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 초기 250년간 이러한 성경의 요구들을 충실히 수행해온 믿음의 산 증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 뒤를 이은 교부들은 참 신앙을 버리고 신실치 못한 선교사역을 펼쳐 왔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몇 세기 전의 불신앙의 잔재가 현재에도 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잔재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정리해야 하는가를 토론하고자 한다. 아마 이와 같은 교회사는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을 것이다.

### ①-4 그리스도인의 대사명

홍원기 / 맥클린한인장로교회 담임



하와이주립대학을 졸업하고 탈봇신학교(M.Div.)와 달라스신학대학(S.T.M.)에서 학위를 수여한 홍원기 목사는 현재 맥클린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이며 중앙위원으로 KWMC선교사역에 동참해 오고 있다.

사람은 창조되었을 때부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이다. 하지만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인간은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 이후 인간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고 방황하게 되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금 사명을 가지게 되었다. 그 사명은 마태복음 28:19에 나오는 "지상대명령"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명 또한 원래 인간이 가졌던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땅을 정복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명을 늘 기억해야 한다. "세계복음화"를 꿈꾸라.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라. 여기에 생명을 걸라.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실 것이다.

### ①-5 핍박받는 교회와 순교자 동향

잭 쉼퍼 / 오픈도어선교회 중부지역 책임자



Jack Shaffer: 박해와 제한지역 선교를 43년간 해온 오픈도어선교회 중부지역 책임자로 있는 잭 쉼퍼는 중국, 몽골,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남미지역 등에서 선교를 위한 돌파구를 찾는 사역 및 박해교회를 위한 성경공급을 해오고 있다.

지난 46년간 성경, 신앙서적, 훈련교재 등을 공급함으로써 핍박당하는 교회들의 필요를 도와온 본 선교회는 홀랜드의 안드레 형제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선교회의 지역책임자인 잭 쉼퍼는 세계 각지와 미주지역 교회와 단체 등을 방문하고 간증하며 이 핍박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특히 개인적으로 중국, 몽골, 필리핀, 베트남, 쿠바, 이란 이스라엘 등지를 다니며 영의 양식을 공급해 오고 있다.

### ①-6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순교의 선교적 의미

이영기 / 월드미션신학교 학감



서울신대(M.Div.)를 나와 태국에서 6년간 원주민사역을 한 이영기 목사는 그 후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으로 Th.M.과 Ph.D.를 수여했다. LA의 월드미션신학교에서 학감으로 일했으며 현재 서울신대에서 선교학 강의를 맡고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순교의 선교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이유는 고난과 순교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그에 대한 올바른 응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적인 증거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핍박의 불가피성(inevitability)과 그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순교의 정상성(normality)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한다.

### ①-7 세계선교와 부흥운동사

장석진 / 뉴욕성결교회 담임



서울신대와 웨이스신학교를 졸업한 장석진 목사는 현재 10여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뉴욕성결교회를 개척, 24년간 목회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각처에서 전반적인 각성운동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19세기에 있었던 선교의 위대한 확산을 가능케 한 원동력은 바로 당대에 미국과 영국에서 일어난 세계적인 각성 부흥운동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1세기에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해 힘쓰는 한인세계선교협의회는 소위 각성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을 1500년대의 종교개혁에서부터 현재까지 고찰하면서 이 각성운동이 세계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아울러 부흥에 대한 일정한 유형들을 배우고 부흥신학의 역사적인 면과 경험적인 면, 또 각성운동가들의 특징과 사회적 영향이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알아본다. 이제 우리는 이 세계적인 대각성운동을 주도할 한국교회가 파송한 5천여 선교사들이 그 주역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는다.

### ①-8 한국기독교 경건패러다임과 선교

윤사무엘 / 프린스턴한인장로교회 담임



연세대 및 동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미국 Dubuque신학교 하버드신학부, 보스턴신학부에서 석사학위를 전공한 윤사무엘 목사는 현재 프린스턴한인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경에 나타난 경건성(=영성) 패러다임을 이해하고 한국 기독교역사에서 비교적 소개되지 않은 인물의 경건생활을 소개함으로써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좋은 선교모형을 제시하는데 있다. 지금까지 선교를 돈이나 정책에 의존했다면 앞으로는 더욱 예수님을 닮은 삶을 실천함으로써 예수의 향기를 더 날려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살아간 이들의 특징은 청빈, 순결, 검소, 금욕적인 삶이었다. 본 발표에서 이세종, 이현필, 최홍중, 강순명, 현동완, 정인세, 오복환, 김준호, 김현봉 등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또한 한국 도착경건신학을 수립한 류영모, 배철수의 삶과 가르침을 살펴봄으로써 마지막으로 세계선교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이동휘 목사의 경건성을 살펴봄으로써 21세기 선교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무척 중요한 틀을 제공해 줄 것이다.

### ①-9 자아발견과 세계선교

이영섭 / 볼티모어교회 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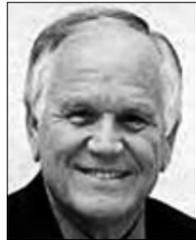


종교교육학 박사이며 철학박사인 이영섭 목사는 현재 볼티모어교회를 담임하여 KWMC2000 공동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영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나라가 보이고 내 자신의 정체기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바로 보입니다. 내 주장, 내 교만, 내 생각들이 얼마나 두텁게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영안을 떠서 나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며 다른 영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을 보고 울 수 없는 사람은 남의 모습을 보고도 울지 못합니다. 내 가련한 모습을 보고도 울 수 없는 사람은 남의 가련한 모습을 보고 울지 못합니다. 내 불쌍한 영혼을 보고 울 수 없는 사람은 남의 불쌍한 영혼을 보고 울지 못합니다. 영안을 떠서 나의 모습을 바로 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영혼구원을 위하여 기쁘게 쓰십니다.

### ①-10 열방을 제자로

로렌 커닝햄/YWAM 총재



Loren Cunningham: 로렌 커닝햄은 YWAM 선교회를 1960년 창설, 현재 130개국 650여 지역에서 11,000여명의 자원 선교사들이 활약하는 세계최대의 초교파선교단체로 성장시켰다. YWAM의 현 총재이며 열방대학의 총장이다.

로렌은 40년 이상 열방을 대상으로 한 제자화사역을 통해 얻은 개인적인 경험들을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성경적인 예와 가르침을 보여줄 것이다. 마태복음 28:19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실질적인 적용을 통해 도전할 것이다. 대사명을 달성할 수 있는 간단한 공식을 예수님의 모델을 사용하여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제시할 것이다.

### ①-11 문명과 격돌하는 말씀의 능력

로렌 커닝햄/YWAM 총재

전세계를 두루 사역하며 얻은 경험을 토대로 로렌 커닝햄은 하나님의 말씀이 9개의 주요 문명과 그 국가들에게 어떤 충격적인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 간증한다. 특별히 21세기에 있어서 중국과 한국의 세계선교에서의 역할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나누게 된다.

### ①-12 세계대학생선교운동의 역사적 고찰

이종형 / 시카고한미장로교회 담임



장로회신학대학(M.Div.)과 예일대 신학대학원(STM), 버지니아의유니온신학교(Ph.D.)를 나온 이종형 목사는 현재 시카고한미장로교회를 담임하며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선교협력위원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 예수의 지상명령을 따라 오늘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데는 "우리 시대에 세계를 복음화하자"고 19세기 선교에 헌신한 대학생들의 기여가 크다. 1886년 여름 무디가 인도한 혈문산 대학생 수련회는 학생선교운동을 태동시키고 저 북방 얼음산에서 저 남방 산호섬에 이르기 까지 선교운동을 활성화시켰다. 빌 브라이티 1951년 조직한 대학생선교회는 오늘 세계 150여개국에서 16,000 이상의 스템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InterVarsity 선교회는 1948년부터 매 3년마다 어마나에서 개최되는 학생선교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2만명이 모여 온 세계로 선교의 횃불을 들고 나가고 있다. 이런 학생운동이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하였으며 일반선교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피고 오늘 대학생과 일반인이 다 함께 이런 학생운동에 힘입어 어떻게 연합하여 주의 지상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 ①-13 성령과 선교

민만식 / 운화감리교회 담임

성결대, 협성대, 감리교신학대학 선교대학원(신학석사), 미국 리전트대학(M.Div., D.Min.)을 졸업한 민만식 목사는 국내외 부흥강사로 운화감리교회를 개척하여 현재까지 시무하고 있다.

1. 창조 속에 나타난 성령과 선교 - 아담을 중심으로 (창세기 1:1-2, 1:26-28)
2. 구약의 흐름 속에 나타난 성령과 선교 - 요셉을 중심으로 (창세기 37:5-11, 39:1-6, 19-23, 41:37-43)
3. 예수님의 사역 속에 나타난 성령과 선교 - 예수님 중심으로 (누가복음 3:21-22, 4:1-20)
4. 오늘의 사역자들에게 나타날 성령과 선교 - 초대교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2:37-47, 3:1-10, 8:4-8, 13:1-3)
5. 오늘 사역자들이 가정 먼저 추구해야 할 요소 -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1:4-8, 12-14, 2:1-4, 4:28-31)

### ①-14 어마나2000 선교대회

바니 포드 / 어마나2000 디렉터



Barney Ford: 50년간 세계최대의대학생선교대회의 전통을 이어온 어마나선교대회. 바니 포드는 금번 2000년 12월에 열리며 2만5천의 참석자들 중 한인대학생도 2,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어마나2000의 디렉터다.

선교대회주제는 "나아감, 자람, 기다림"이란 세 가지 동사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며 (요한복음 17:18), 예수님의 인격으로 자라가며 (에베소서 4:13), 예수님의 다시오심을 기다린다 (히브리서 9:28)는 것을 뜻한다.

### ①-15 세계선교역사의 이해와 2000년대의 세계선교

조동진 / KIM 총재



장로회신학교(B.D.)와 미국 애즈베리신학교(Th.M.), 윌리엄케리대학교(Ph.D.)를 졸업한 조동진 목사는 국제선교협력기구(KIM) 창립 및 창립총재이며 제3세계선교협의회(TWMA) 창립회장으로 74년 로잔세계복음화회의의 강사로도 활약하였고 68년도에 창설한 동서선교연구개발원장, 사단법인 민족통일에스라운동협의회 이사장으로 약 20여회 북한을 방문하며 선교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세계역사와 기독교 2000년 선교역사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사도시대와 속사도시대의 선교 300년 역사는 선교 곧 순교로 이어지는 시대였다. 그것은 피지배자들로부터 정복자와 지배자들을 향한 설교였다. 또한 민족과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뚫고 누벼나가는 선교였다. AD 325년 콘스탄틴 황제 이후 AD 1000년까지의 500여년의 선교는 황제의 선교시대였다. AD 1000년부터 AD 1500년까지 정복자의 선교시대였다. 16세기 1500년 비스코 다가마와 콜롬부스 이후 선교는 서구식민지 선교시대였다. 2000년 이후의 새 세계질서 아래서는 또다시 피지배 민족으로부터 모든 민족과 문화의 벽을 뚫는 새로운 선교세력이 선교의 주체가 되는 시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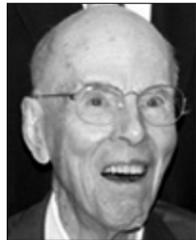
### ①-16 제3세계 선교지도력과 미래: 일본교토선교대회의

조동진 / KIM 총재

제2차대전의 종식과 함께 서구식민지시대가 막을 내렸다. 1948년 암스텔담에서는 Missionary Moratorium을 선언하였다. 1958년 가나에서 서구선교의 국제구조인 IMC가 해산을 결의하였고 1961년 뉴델리에서 IMC가 WCC에 합병되어 서구세계 선교구조가 해체되었다. 1969년대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제3세계 국가들에서 선교의 새 세력이 싹트기 시작하였고 1973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선교지도자회의가 서울에서 소집되었다. 1975년 아시아 14개국이 함께하는 AMA(아시아선교협의회)가, 1989년에는 제3세계 국가들이 연합한 TWMA(제3세계선교협의회)가 창립되었다. 1999년 G.M.I와 Operation World의 보고에 의하면 제3세계 선교사의 수는 16만명을 넘어섰으며 2000년대 세계선교의 주체는 비서구 세계이며 이들 중에서 선교의 새 지도력이 세계선교를 이끌게 된다. 지난 1999년 10월 교토에서 개최된 TWMA 창립 10주년 기념 선교대회는 새로운 세계선교의 주체세력들의 2000년대의 새 지도력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회의였다.

## ①-17 한국교회 부흥사

마포삼열 / 프린스턴신학교 명예교수



Samuel Moffatt: 1916년 한국의 선구적 선교사인 마포삼열의 아들로 평양에서 출생하여 휘튼대학, 프린스턴대학교, 예일대학에서 수학하였다. 약 30년간 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였다. 현재 프린스턴신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한국교회는 얼마나 성장해 왔는가. 무엇이 한국교회를 성장케 했는가. 지표와 통계수치로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살펴보고 한국교회의 성장요인을 신학적으로, 선교적으로, 역사적으로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기독교의 특성을 전도, 부흥열정, 기도, 십일조, 구제, 교육열, 세계선교의 헌신으로 나누어 30년간의 한국선교사 생활의 경험, 그리고 외국인의 관점에서 본 한국교회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①-18 하나님의 주권과 선교

이승한 / 커버넌트장로교회 담임



14세대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뉴욕시 도시계획가로 일하기도 했던 이승한 목사는 보스턴에 있는 뉴커버넌트장로교회에서 특별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권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다.

하나님의 전능성과 교회의 전도사명.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우리는 전도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세미나에서 우리는 "자유의지"와 선교에 대한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님의 전능성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모순되는 진리인가?

## ①-19 선교의 기초와 적용원리

서만수 / 인도네시아 선교사



총회신학교를 졸업하고 1970년 인도네시아로 파송되어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설립 및 대표자이며 저서로 「남방에 심는 노래」 등이 있다.

선교의 내용과 기초는 무엇인가. 선교의 당위성은 무엇이며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선교의 목표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원의 근거는 무엇이며 어떻게 전개되어 지는가. 은혜와 화해를 통해 십리를 성취함으로 그리스도의 왕국건설을 이루는 선교와 교회의 관계를 심도있게 다루며 마지막막으로 선교에서의 봉사의 면을 살펴보고 개인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하는가를 다루기로 한다.

## ①-20 하나님의 선교와 그의 동역자들

박창환 / 모스크바장로회신학교 총장



장로회신학교, 프린스턴신학교(Th.M.), 헛워쓰대학교(Litt.D.)를 졸업한 박창환 선교사는 1971년 인도네시아로 파송되었다가 현재 모스크바장로회신학교 총장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컬럼비아신학교, 맥코믹신학교 등에서 객원교수로도 사역하였다.

하나님은 방대한 선교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의 선교에 우리들을 동역자로 부르셨다. 그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특별히 창조하셨다. 우리들 소위 성직자들만 하나님 서교의 동역자가 아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 서교에 일꾼들이다. 성직자들은 하나님 선교에 효과적인 일꾼이 되도록 가르치며 지도할 책임이 있다.

## ①-21 한국경제와 한국교회의 세계선교

유종근 / 전라북도 지사



뉴욕주립대 경제학 박사학위를 수여한 후 뉴저지 럿거스대 교수, 뉴저지 주지사 수석 경제자문관, 김대중 대통령 경제고문을 역임한 유종근 박사는 현재 전라북도 지사이며 세계선교에 관심이 큰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금번 대회에 특히 세계경제현황과 선교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제시하는 중요한 세미나를 하게 된다.

## 2. 세계복음화 미완성과 과제

### 2-1 21세기 지구촌의 도전들

토마스 왕 / 기독교21세기운동 국제총재



중국기독교교회 창설 및 사무총장, 중국세계교회협의회 창설 및 사무총장, 로잔세계교회운동 국제총무 등을 역임하였고 기독교21세기운동을 창안하여 국제총재로 현재까지 미전도종족 복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2-2 AD2000 - 대사명 달성, 우리는 어디까지 왔고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루이스 부시 / 기독교21세기운동 국제총무



루이스 부시 Luis Bush: "10/40창" 개념을 주창한 루이스 부시는 기독교21세기운동 국제총무로 사역하면서 「창을 통한 기도」, 「여호수아작전2000」 운동을 통한 미전도종족선교에 선봉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현재 메시아2000예루살렘선교대회를 준비중이다.

전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족속을 위한 우주적 교회로의 부르심,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섰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해 있다. 예수님께서 2천년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다. 우리는

현재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는 이와 같은 질문들을 본 강의에서 언급하려 한다.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교회사 학자들이나 또는 지상명령에 대한 총체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견지에서, 또 모든 족속을 위한 우주적 교회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을 강조하는 이들의 관점에서 살펴볼려 한다. '대사명 달성을 위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 누가 미래에 대해 알고 그것을 손에 쥐고 있는가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변화하는 선교상황을 이해하는 것, 세계적이고 폭넓은 주인의식을 고양시키는 것, 지상명령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 가치관들을 배양하는 것, 우리가 처하고 있는 여러가지 도전들에 대해 우리의 견해를 분명히 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 21세기 적합한 새로운 리더십 스타일을 아는 것, 차세대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것, 선교지에 앞서 나간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나 구조를 고려하는 것, 부딪히는 도전들에 대처하도록 도울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등.

### 2-3 현대선교전략의 새 경향

김희창 / 길갈교회 개척

서울신대와 동 대학원과 목회학박사과정 등을 거쳐 캘리포니아신대원과 캐나다 프라비던스신학교에서 선교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희창 목사는 도원교회와 영등포성결교회의 목회를 거쳐 해군과 해병대 군목으로 사역하였고 길갈교회를 개척하고 모스크바신대와 서울신대 겸임교수로 사역하며 「21세기 선교전략방향」,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분석」 등을 저술하였다.

선교신학은 4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나 바울에게서나 선교전략이 강조된다. 현대선교전략의 새 경향은 복음화, 인간화에서 동반자선교, 통전적선교, 협력선교로 나타난다. 지금은 일방적 '서구 의존적 선교시대'에서 '상호의존적 시대' - 파트너십에 근거한 자세 - 를 지나 교회, 선교부, 선교사, 목회자, 전문인평신도, 피선교지, 선교지, 교단 등과의 '세계적 통전적 협력시대 (World Holistic Cooperative Mission)'로 전환되고 있다.

### 2-4 10/40창 타문화권, 근접문화권, 상호문화권 사역

K.P. 요한나 / Gospel for Asia 총재



아시아권 미전도종족 및 토착교회개척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Gospel for Asia의 설립자이자 총재인 요한나는 남인도 태생으로 현재까지 7천명의 현지인 교회개척자를 배출하였다. 저서로 「다가오는 세계선교의 혁명」 등이 있다

타문화권, 근접문화권, 상호문화권을 정의하고 실제 선교사들이 이러한 접근방식을 가지고 10/40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영혼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무엇을, 어디를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인가를, 어떻게 하여야 가장 효과적으로 잃어버린 영혼에게 선교할 수 있는가를 나눌 이 강좌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 2-5 미전도종족복음화 과업과 도전

존 럽 / 비전2020 지도자



John Robb: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사역하다 현재 월드비전의 미전도종족기도운동 본부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존 럽은 기독교21세기운동이 21세기를 기해 시작하는 미전도종족운동인 「비전2020」의 지도자로 지목받고 있는 세계적인 전략가다.

새 천년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선교의 과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앞으로 수년간 전세계와 미전도종족선교에 큰 영향을 미칠 몇 가지의 핵심적인 세계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과연 어떤 동향들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도전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 2-6 미전도종족을 향한 총체적 선교

존 럽 / 비전2020 지도자

미전도종족선교에 진정 헌신하고자 하면 곧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역에 발을 들여놓게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들의 영적생활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 전역에 걸쳐 모든 요소의 변화를 원하시고 계신다. 이 세미나에서 우리는 가장 큰 계명과 지상명령이 결합된 총체적 선교의 깊이를 탐구해 볼 것이다.

### 2-7 여호수아 작전: 미전도종족분양전략

한정국 / 한국미전도종족입양운동 본부장



서울대 경영대학원(M.A.)과 함동신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총신대 선교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한정국 선교사는 OMF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서 13년간 사역 후 OMF 한국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한국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장, 총신대 선교대학원 강사, 비거주 선교사역으로 인도네시아 순다족속 리서치 등 선교사역에 힘쓰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은 선교학적으로 보아 현대의 미전도종족선교에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여호수아의 정복작전은 매우 전략적이며 가나안 땅을 분담해서 정복하도록 한 것에서 종족입양운동에 많은 지혜를 안겨주고 있다. 성경은 여호수아 작전은 무엇이었으며 우리는 그 원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본 강의는 현대적인 여호수아 작전을 '미전도종족 분양전략'이라고 명명하며 그 원리를 탐구할 것이다.

## ②-8 WEC의 미전도종족선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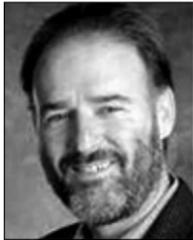
유병국/WEC 국제선교외 한국본부 대표



총신대와 합신대를 나온 유병국 선교사는 영국선교훈련대학원(MOC)을 졸업하고 서부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1985년부터 사역하다 현재는 WEC 국제선교외의 한국본부 대표로 있다.

## ②-9 타문화권 관점에서의 죄 개념

로버트 프리스트/선교사 자녀



Robert Priest: 트리니티신학교의 로버트 프리스트 교수는 선교사의 자녀로 볼리비아에서 태어난 후 페루에서 사역하였다. 전문인류학자로 UC버클리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타문화에서 선교사들이 효율적으로 사역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돕는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

기독교 메시지는 죄의 문제를 빼놓고는 언급될 수 없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죄의 개념이라든가 죄라는 단어조차도 없는 사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성경적 죄의 문제를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아주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 ②-10 21세기 세계선교의 방향

유근만/나눔의 교회 담임



성결대학과 한남대학원을 졸업한 유근만 목사는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공동회장이며 기독교2001선교대회 준비위원장이자. 현재 한국의 나눔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1천년 단위의 역사의 분기점인 AD 2000년,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선교전략과 방법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현재 전세계 140여개국에 약 7천5백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세계 3위의 선교국가인 한국교회가 이제는 새천년을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선교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본다. 이에 따라 본인은 1992년부터 8년동안 42개국의 선교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선교현장에서 보고 느낀 문제점들과 21세기에 필요한 새로운 선교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②-11 동아프리카 디고종족 입양선교 사례보고

이훈경/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



감리교신학대학과 대학원, 드류신학대학원(M.Div.), 뉴욕신학대학원(D.Min.)을 졸업한 이훈경 목사는 현재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디고종족은 케냐와 탄자니아 동부 국경지대에 흩어져 사는 부족들로 대부분이 모슬렘교도들이다. 본교회에서 단기의료단을 파송하려 했으나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폭우로 인해 계획이 부득이 6개월 연기되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재해를 이용하시어 의료선교단을 맞는 디고 주님의 가슴을 열게 하셨다. 진료사역을 마치고 떠나는 팀을 향해 부족 지도자가 다가와 힐난했다. "더 많은 환자들이 있소. 왜 더 깊이 들어오지 않는거요?" 6개월만에 긴급히 단기선교팀을 더 깊은 지역인 문디니 마을로 파송했고 교회가 서면 선교팀이 또 올 것이라고 판단한 한 부족 유지가 높은 언덕에 위치한 땅을 교회부지로 헌납하지 않았겠는가? 물론 교회건축팀이 곧 결성되었고 마침내 교회가 세워지고 우물이 파이고 유치원이 세워졌다.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는 디고종족을 복음화하는 사명감을 갖고 그들을 입양, 가족화하여 끊임없는 기도와 노력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길을 열고자 한다.

### 3. 한인세계선교

#### ㉓-1 제3세계 선교현황과 한국교회선교전략

노봉린 / 기독교21세기운동 국제총재



서울대, 컬럼비아바이블칼리지(B.A.), 윗튼칼리지(B.A.), 커버넌트신학교(M.Div.), 콘코디아신학교(S.T.M., Th.D.)에서 수학한 노봉린 교수는 싱가포르와 태국에서 신학교 교수사역을 하였고 윗튼대학과 트리니티신학교에서 방문교수 사역을 하였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수와 대학원 학장을,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에서 사역하다 현재 국제대학/대학원에서 선교와 교회사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제3세계 선교현황을 아시아교회의 7가지 문제점을 들어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한국교회 선교전략의 10개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 아시아교회의 7가지 문제점

1. 평신도 전도운동 필요
2. 교역자 부족
3. 평신도 제자훈련 필요
4. 효과적 복음전파를 위한 교회의 상황과 필요성
5. 신학적 문제
6. 교회의 사회적 책임
7. 교회내의 신앙갱신 문제

##### 한국교회의 선교전략의 10계명

1. 한국교회가 소유한 신앙의 요소를 통한 전세계적 신앙갱신운동
2. 대학생, 평신도, 교역자, 선교사들의 계속적 파송
3. 외국교회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신앙갱신운동을 성서적으로 가르침
4. 한국교회의 선교를 중심으로 한 국제화
5. 원주민 교역자들과 평신도지도자 양성
6. 원주민 교회, 해외선교단체들과의 동반자관계 형성
7. 국내외 선교단체들과 선교지 선교사간의 연합운동
8. 자녀교육과 선교사 연장교육문제 해결
9. 선교연구원 활성화
10. 선교단체들간의 협조운동을 위한 선교연합기관의 역할 확대

#### ㉓-2 21세기 한인선교의 공동방향설정

김유식 / 필리핀 선교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총신신학연구원(M.Div.),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Th.M.)을 수료한 김유식 선교사는 1979년 필리핀으로 파송받아 현재 필리핀개혁신학교 학장, 세계한인선교사회 회장, 그리고 필리핀 주재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새로운 밀레니엄의 선교환경은 "총력선교시대"로 정의할 수 있다. 선교의 다국적화 현상, 전통적인 선교 개념의 획기적인 변화, 사도행전적인 선교예로의 전이, 사이버 공간을 통한 엄청난 선교의 사각지대에의 접근가능, 각종 종교권 공략선교 시대의 도래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선교시대를 주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선교환경 변화요인은 사탄이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파상공세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일례로 각종 종교 내지는 우상종교의 부흥을 통하여 기독교 선교

에 대한 통로를 봉쇄하고 있으며 마약과 정신병과 에이즈로 상징되는 현대의 타락문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활환경 자체를 오염시켜서 인간의 종교성을 말살시키고 있으며 심지어는 기독교의 무력화를 통하여 교회환경 자체를 우상(교권주의, 율법주의, 물질주의 등)과 형식주의(Nominalism)의 늪에 빠지게 해서 결국 "기독교의 종교화를 고착화" 시키고 있다. 이런 새로운 밀레니엄에 우리 한인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참으로 중요한 이슈다. 이런 시대를 위한 몇 가지 선교의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 ㉓-3 타문화권선교의 구조적 개선방안

신홍식 / 태국 선교사



1971년부터 현재까지 태국선교사로 최장기 사역을 하며 태국기독교총회, 방콕신학교, 부원장겸 신학대학원장으로 신학교육을 통한 현지인교역자 양성, 신학서적 출판, 도시교회 개척지도 및 지원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인체에 있어서 그 구조적 기능이 신체활동에 상호불가분의 관계가 있듯이 세계선교 수행에 있어서도 그 구조(structure)와 기능(function)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종종 기능과 실재를 희생하면서 구조와 권위만을 내세우는 구조주의적(structuralism) 장애에 걸리는가 하면 반대로 구조와 조직을 무시하고 기능과 활동에만 몰두하는 기능주의적(functionalism) 수렁에 빠질 때가 있다. 한국 타문화권 선교의 구조적 문제도 이러한 극단적 현상을 배제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세계선교의 성경적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구조를 정착하게 할 것이냐가 과제일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먼저 선교구조의 역사적 고찰에 이어 한국 타문화권선교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점을 살피고 끝으로 그 개선방향과 실제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 ㉓-4 전방위 선교 - 권리포기와 섬김의 선교

박용 / 서울순직교회 담임



서울순직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용 목사는 총회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예장개혁 선교국 간사와 세계선교관학교 지도위원으로 사역하고 있다.

사탄을 가정을 증오하며 가정을 깨뜨리려고 한다. 이 결과 선교지의 가정들까지 상처입고 소진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가정 안으로 들어오며 그것들은 우리의 권리라는 타이틀과 위치를 확보한다. 그 위장된 권리는 교묘하고 은밀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비뚤어진 성격과 자세와 고집스럽고 유치한 처세를 갖게 되어 그것은 다시 우리의 삶과 선교지에 반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권리가 포기되고 은혜로 회복된 성품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신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이 자유함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 회복된 가정들은 선교지의 이웃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그들 안에 실제적인 동경이 되며 필요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이며 그분의 선교사가 되어야 할 이유다. 선교란 예수님을 설명하고 강요하는 대신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델을 자신의 삶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 ㉓-5 한국대학생/청년운동의 현황과 전망

김요한 / 대학생선교문화연구소 소장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에 한국지부장인 김요한 목사는 현재 UBF(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 홍보국제총무이며 대학생선교문화연구소 소장이자이다.

기독교 역사상 21세기 한국의 선교시대를 이루는 그 희망과 가능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세 가지다. 그 첫째는 청년대학생 선교운동이요, 둘째는 신학생 선교운동이요, 셋째는 평신도 전문인 자비량 선교운동이다. 이 가운데 가장 활발한 것이 한국의 대학생청년 선교운동이다. 현재 한국의 대학생청년 선교운동은 전세계 청년대학생 선교운동 중 가장 적극적이고 규모가 큰 나라 중 하나다. 현재 한국에서 매 2년마다 열리는 '선교한국'의 청년대학생들의 선교동원운동, '학원복음화협의회' 안에 14개의 대학생선교단체와 75개 교회의 청년대학생실행위원들이 연합하여 학원복음화를 이루고 있다. 현재 UBF(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는 전세계 87개국에 1,550명의 대학 이상 출신 전문인 자비량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5천명의 선교사 지망생들을 확보하고 있다. CCC와 YM 등 선교단체들과 온누리교회 등 여러 교회들이 매년 3천명 이상의 단기선교사를 동원, 파송하고 있다. 현재 한국 350개 대학의 대학생 250만 가운데 약 33%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거나 기독교 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이다. 이러한 현황은 바로 21세기에 한국이 선교대국으로 영국, 미국 등에 이어서 제3세계 선두주자로 세계의 제사장나라의 역할을 할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 역사학자요 경제학자인 르네 세디오의 역사적인 관점과 접근방법에 입각해 볼 때 21세기는 세계역사상 "한국의 선교시대"가 될 것을 확신있게 전망할 수 있다.

### ㉓-6 디아스포라한인교회의 선교동력화

강성철 / TV디아스포라 방송국 사장



브라질한인교회를 18년간 담임하고 있는 강성철 목사는 현재 디아스포라 문화원 원장, 한인세계선교정보 대표, 총신선교사연장원 브라질분교 교장, TV디아스포라 방송국 사장 등으로 사역하고 있다.

570만명 교포들이 각처에 세운 디아스포라한인교회를 동력화함으로 세계선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포들 속에 세워진 디아스포라한인교회에 새로운 선교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교포교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많은 선교 시행착오를 범하는 한국교회 선교지도자와 선교사, 선교후원교회 패러다임이 바뀌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세미나를 인도하고자 한다.

### ㉓-7 현지선교지도력 개발

조용중 / GP(Global Partners)선교회 북미주 상임총무



북미주 출신 제1호 선교사로 필리핀에 파송되어 7년간 필리핀과 동남아 미전도종족선교에 주력한 조용중 선교사는 현재 GP(Global Partners)선교회 북미주 상임총무로 있으며 제3세계 선교협의회의 사무총장으로도 사역하고 있다.

선교는 현지지도력개발의 성과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된다. 복음을 받은 현지인 교회를 세우고 나가는 것으로 선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선교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나가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는 것은 선교현지의 지도력을 개발함으로 나타난다. 자체교회의 지도력이 개발되도록 돕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선교와 사역의 열매를 평가할 것인가. 선교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현지의 지도력을 개발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교전략의 주제로 다가서고 있다. 현지에서 지도력의 개발을 성공적으로 도와온 강사라 현지 지도력개발의 이론과 실재를 심도있게 다룬다.

### ㉓-8 사물놀이의 오케스트라와 대화 : 아시아 선교발전을 위한 제언

황태연 / 필리핀 선교사



총신대학교 신대원, 아시아신학대학, 필리핀대학(아시안학 석사, 필리핀학 박사)을 졸업한 황태연 선교사는 현재 필리핀 선교 17년째이며 AGST 필리핀 이사이며 저서로 「아시아선교론」, 「필리핀 문화와 선교」가 있다.

21세기는 그동안 서구문화 가운데 만들어지고 발전된 선교구조와 행정에 아시아적 시각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강사는 아시아 선교의 발전과 세계선교협력을 위한 시도로서 동서 선교사들이 서로의 전통의식의 차이점을 먼저 살피고 그 위에 아시아 선교기관이 토착적인 선교행정을 능동적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하여 사물놀이의 오케스트라 같은 아시아와 서구의 상반된 삶의 양태를 대비시킨다. 이곳에서 아시아인의 생명의식, 삶의 통시성 및 창업적 정신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기본의식형태가 다뤄질 것이다. 끝으로 강사는 아시아 선교사는 밖의 것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답습의 상태를 벗어나 주 안에서 자신 생명과 끊임 없는 대화만이 아시아 선교발전과 세계선교의 가장 밑바탕의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 ㉓-9 한국선교의 컴퓨터자료화와 이용

이영제 / 한국컴퓨터선교회 회장



한국에서 컴퓨터를 통한 선교에의 선구자적인 한국컴퓨터선교회(<http://kcm.co.kr>) 회장인 이영제 목사는 한국기독교목회자포럼의 정보분과위원장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의 정보실장으로도 사역하고 있다.

컴퓨터의 발전속도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으며 이런 사회 각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분석을 통해서 미래사회를 좀 더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에 대응하는 선교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바울 시대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과 함께 그곳을 통해서 전세계에 정보가 공급되었고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유럽 일대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했다. 이제 정보는 보이지 않는 사이버의 세상을 통해, 즉 인터넷이라는 땅을 통해 전세계에 전달되고 있다. 선교에 있어서도 다양한 정보를 바르게 제공하고 구할 수 있는 곳도 인터넷이 되었다. 세계는 정보시대에 돌입해 있다. "선교정보를 정보선교"로 만들어가야 한다. 선교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제공하는 것이 선교정보라 하면 정보선교란 바로 선교정보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선교를 할 때 이루어진다.

### ㉓-10 아시아 현지선교사들을 깨움 : 새롭게 부상하는 선교세력

백운영, 박영은 / 선교사



북미주 출신 선교사로 5년간 필리핀에서 사역한 백운영 선교사는 현재 인도네시아바투에서 선교사훈련사역을 담당하며 아시아 선교사들이 물결처럼 일어나는 비전을 불태우고 있다. 풀러신학교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많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선교에 새롭게 도전받고 있으며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선교사 및 선교단체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 세미나에서는 오늘날 선교에 동참하는 아시아의 교회들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필리핀의 현지 교회들의 선교운동을 들여다 보면서 새로운 선교세력으로 부상하는 이들의 장점과 단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사역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인적, 물적, 구조적 및 전략적 자원들을 점검하고 평가해 봄으로 미래의 사역가능성을 측정해 본다. 더 나아가 현재 강사 자신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현지선교사훈련원 사역을 나누고자 한다.

### ㉓-11 선교현장의 팀사역: 원리와 실제

이은무 / GP(Global Partners)선교회 국제대표



종전의 PWM선교회와 지구촌선교회가 연합하여 120명이 넘는 대규모의 선교단체로 거듭난 GP(Global Partners) 선교회의 국제대표인 그는 1976년부터 선교사로 파송되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등지에서 사역해오고 있다.

"팀(Team)"이란 용어는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란 뜻이다. 예수님의 사역도 제자들의 사역도 팀사역으로 일관되었으며 '개 교회'의 개념도 팀사역의 개념으로 보아야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사명의식으로 팀사역을 구현하여야 한다. 팀사역이란 방법과 사람의 만남이다. 팀사역은 힘의 규합을 이루며 개인의 잠재력 개발을 돕고 섬김을 배우며 영적성장을 돕는 효과적인 사역방법이다. 팀멤버는 신뢰성, 헌신, 기술의 세 가지 자격이 필요하며 특별히 선교지에서는 인종을 초월하고자 하는 마음자세,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개념확립, 긍정적 사고방식, 겸손한 모습, 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음,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인내 등이 필요하다.

### ㉓-12 한인교회선교의 당면과제와 비전

장순현 / 전주사랑교회 담임목사

장로회신학대학(Th.B.)과 신학대학원(M.Div.), 전주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Th.M.)을 졸업한 장순현 목사는 장신선교 대표, 한국기독교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 「교회와 선교」의 편집발행인으로 사역하면서 전주사랑교회의 담임목사로 봉사하고 있다.

선교는 한인교회의 당면과제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긴박하면서도 중요하고 꼭 성취해야 할 마땅한 사명이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선교적인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선교사로 오신 분이다. 기독교는 당연히 선교적이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 분은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을 파송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시다. 21세기 세계선교는 미전도종족입양선교시대로 전환되면서 이는 급변하는 현대선교전략의 방법 중 하나로서 세계복음화에 가장 효율적인 선교전략이라 할 수 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한인교회는 그의 사역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선교사명자이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미전도종족선교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숨겨진 종족들에 대하여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실 뿐 아니라 모든 종족의 복음화를 소원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 ㉓-13 한국교회의 세계선교 평가의 방법론 재고찰

박영환 / 서울신학대학 선교학 교수



서울신학대학(B.A.)과 독일의 Wiedeneast 성경대학(B.A.), Freie Hochschule 대학(M.A.), Erianger 대학(Th.D.)에서 수학한 박영환 교수는 현재 서울신학대학에서 선교학 교수로 시무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세계선교에 대한 평가들은 대부분 외적인 선교현장의 결과와 선교사들의 업적에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선교사 업적과 선교현장의 결과는 전적으로 선교사 파송기관과 그 책임자들에게 달려있다. 순종하며 수행한 선교사들의 결과를 가지고 선교전반에 대하여 평가한다는 것이 모순이고 이것이 현재 우리의 평가방법인 현실이다. 선교현장 평가는 비판적 시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교사역이 널리 전해져 가야하는가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이제는 선교현장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선교정책 입안자들의 실책과 개선안, 그리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까지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가주체들에 대한 선교평가도 선행되어야 한다. 성장과 업적위주의 선교사역의 평가나 결과 보다는 사역의 다양한 유형으로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과연 한국선교의 올바른 평가방법일까? 평가의 접근을 선교정책자들의 정책부터 평가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세계선교평가를 할 수 있는 우선적인 근거자료이다. 이러한 선교평가가 선행될 때 한국교회의 세계선교가 올바르게 평가될 것이다.

### ㉓-14 대규모 선교동원운동

허세은 / 성은장로교회 담임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리버티신학교(Th.M., D.Min.), 풀러신학교(D.Min.)에서 수학한 허세은 목사는 1996년 선교한국 준비위원장으로 사역한 바 있으며 현재 노스 캐롤리나의 성은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규모 선교동원운동은 항상 청년 학생들에 의해 주도되거나 뒷받침되어 왔습니다. 캠프브리지 7인, SVM, 한국의 선교한국대회 등은 좋은 예일 것입니다. 이제 21세기의 효과적인 선교동원을 위해 KWMC는 정보뱅크, 인력뱅크 등 구체적이고 장단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교동원의 모관역할도 잘 감당해야 할 줄 압니다. 동기부여, 양육, 사역연결 등 실제적 각 과정을 생각해 봅니다. "더 이상 미루어 둘 수 없는 일들을 위하여!"

### ㉓-15 21세기 통일조국의 세계선교 주역

김영철 / 가디나한인교회 원로목사



26년간 일본 조총련 선교와 북한선교에 힘써온 김영철 목사는 해외한민족복음화대회 본부장으로, 통일기원 평양복음화대회 총추진위원장, 21C 세계복음화대행진 진행본부장으로 사역하면서 가디나한인교회의 원로목사로 있다.

### ㉓-16 복음과 통일 그 사명과 스며들

장정애 / 서울대 불문과 교수



장정애 교수는 서울대학교 불문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불문과 교수, 서울대학교 불어문화권연구소 상임연구원이며 한국 캐나다학회 사무총장으로도 사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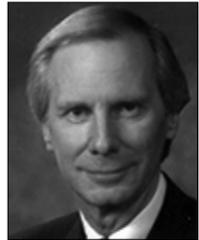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제 통일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다. 장미빛 통일을 꿈꾸는 자는 이제 없다. 통일 정말 올 것인가.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 아니 남북 정상회담이 현실화 되기 이전부터 우리는 통일을 믿어왔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에베소서 1:9-10).

통일의 인격체인 그리스도께서 남북의 찢어진 가슴을 통일시키실 것을, 오직 그 분이 하실 것을 우리는 "뜨거운 가슴"으로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차가운 머리는 우리에게 묻는다. 어떻게? 그 전에 자못 성급한 우리의 호기심이 우리에게 귀엽게 묻는다: 도대체 언제 통일이 되는거야? 대통령은 삼사년을 뽑았다. 과연 그럴까? 때를 아시는 분은 오직 그 분, 하나님 한 분이시다. 때는 그분의 일이다. 통일은 준비 없이 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 앞에 놓인 헤브론과 같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통일의 실체를 보자. 통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선교이다. 영적 이방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 그것이 바로 통일이다. 그 준비를 그리스도께서 하신 선교의 전략으로 하자. 사명과 스며들음으로.

## 4. 교회와 선교

### 4-1 선교를 위한 교회의 포괄적 전략

폴 시더 / 미션아메리카 총재



Paul Cedar: 1974년 빌리그래함 주도로 복음주의 선교운동을 탄생시킨 로잔세계복음화운동의 현 총재인 폴 시더 박사는 현재 전 미국을 휩쓸고 있는 기도의 대대 선교운동단체인 미션아메리카의 총재직을 맡고 있다.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인 우리 모두는 오랫동안 지역교회에서 효과적인 전도사역을 위해 적절한 전략을 개발해 왔습니다. 우리는 기도가운데 단발적인 임시조치의 접근방식을 벗어난 광범위한 방식을 기 확하고 고안해야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에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번의 접근 방식은 임시적이거나 일회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대신 각 지역교회에서 나름대로의 특이한 상황에 모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권 능으로 이뤄지는 선교사역의 방식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 4-2 선교목회의 지도력

이동휘 / 전주안디옥교회 담임



2,700명의 교인이 160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매월 10만불 이상의 선교비를 지급하는 양철콘센트로 만든 전주안디옥 교회의 담임인 이동휘 목사는 바울선교회를 창설, 회장으로도 사역하고 있다.

#### 1. 목사의 선교의식 개발

1) 선교의 자양분 2) 생활비만을 3) 평등주의 원칙으로 4) 자녀들의 교회봉사

#### 2. 교회선교출발은 이렇게

- 1) 실천강령을 교회설립의 기초로 삼고 2) 선교의 방해요소를 제거 3) 절약을 미덕으로 4) 초교파 정신으로
- 5) 교회문은 24시간 열려있게 6) 모든 기관은 자립하도록 7) 봉사직에는 일체의 보수가 없고 8) 온 교인의 동원화
- 9) 교회 경상비는 10% 10) 선교위원회를 통한 선교집행의 단순화

### 4-3 혁신적 교회성장과 선교를 위한 이론과 전략

정병관 / 세계로교회 담임



연세대(B.A.), 홍신대(M.Div.), 풀러선교대학원(Th.M., D.Miss.)을 졸업한 정병관 교수는 현재 홍신대학교 선교학 교수이며 세계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저서로 「도전받는 현대목회와 선교」, 「혁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국의 14대 교회」 등이 있다.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선교와 그를 통한 교회성장의 보편적 원리들을 살펴보고 현대에 매우 다양하면서도 혁신적인 교회성장 원리와 전략들을 실제적 사례들과 다양한 모델들을 통해서 제시한다. 교회성장의 시각을 통해서 본 선교적 과제들, 교회성장이론들 그 보편성과 다양성들, 선교를 통한 교회성장의 실제적인 과제들, 혁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모델들. 혁신적인 교회성장을 위한 다면적 전략과 실제들을 다루어 본다.

### 4-4 파송교회와 파송선교사의 관계성

윌리 브래들 / SIM 중서부책임자



Willy Bradle: 스위스 태생인 윌리 브래들은 1957년 아프리카복음주의협의회(AEF) 선교사로 앙골라에 파송되어 성경번역, 병원, 교회개혁, 신학교설립 등의 사역을 하다 그 이후 남아프리카, 모리타니아, 프랑스, 가봉 등지에서 무슬림/힌두권 사역, 청년사역, 교사/강사 등으로 활약하였다. 1996년부터 미국에서 AEF가 합병된 SIM에서 중서부책임자로 일하면서 여러 선교대회에 강사로 활약중이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지역교회의 역할을 무엇인가. 선교사가 비행기를 타고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파송교회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열매있는 선교사역을 위해 교회의 지속적이고 생명력있는 업무수행의 각 양상을 요약하여 설명할 것이다.

### 4-5 선교사 파송교회의 역할

이원상 /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



달라스신학교를 졸업한 이원상 목사는 현재 와싱턴중앙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SEED선교회 국제대표로도 사역하고 있다.

세계선교의 사명은 어떤 개인이나 선교기관과 같은 단체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선교사 개인이나 선교기관이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지만 주체적인 사명은 교회에 있다. 그러므로 지역교회가 선교의 주체적인 역할을 할 때 세계선교운동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다 (사도행전 13:1-3). 세계선교사명의 주체를 지역교회라고 한다면 선교사 개인과 선교기관의 역할과 함께 파송교회가 그 역할을 다 할 때 현재 빛어지고 있는 선교사나 선교지의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선교사역이 크게 확장될 것이다. 선교사 파송교회의 역할을 무엇인가? 선교사의 모든 삶의 영역을 고려해야 한다. 선교사의 세 가지 영역 - 영적생활, 가정생활, 사역 - 에 있어서의 파송교회의 역할을 살펴본다.

### 4-6 선교지망자와 부모간의 갈등해소

팻 케이트 / 크리스타 회장



팻 케이트는 유타대학, 달라스신학교, 하트포드신학을 졸업하고 이란에서 교회개혁사역을 하였고 현재 아시아권 미전도종족을 위한 사역을 펼치고 있는 크리스타의 회장으로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가서 열방으로 제자를 삼아라."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집 가까운데 살면서 좋은 교육을 받아 좋은 직장을 잡고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늙으면 좀 도와주고 손자들도 우리가 볼 수 있게 가까운 곳에 있어라. 우리는 네가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을 얻도록 우리의 삶을 희생하지 않았느냐. 너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떻게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견해를 해소시킬 것인가?

#### 4-7 영광스러운 교회 - 선교적 측면에서 본 교회론

송성엽 / 데이튼한인연합교회 담임

오하이오감리교신학교와 연합신학교(목회학 박사)를 졸업한 송성엽 목사는 현재 데이튼한인연합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교회는 충만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영광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될 수 있을까? 에베소서 3:19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회복함으로 가능하다. 넓이는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말하며 높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성을 의미한다. 깊이는 십자가의 역설을 의미한다. 이것이 회복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교회는 충만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다.

#### 4-8 효과적인 선교행정

이기홍 / 사우스베이동양선교교회 원로목사



서울신학대학과 연세대 경영대학원, 미국 풀러신학교(목회학 박사)를 수료하고 육군 군목으로 사역한 바 있는 이기홍 목사는 LA에 사우스베이동양선교교회를 개척, 시무하였고 남가주기독교협의회 회장, 세계복음선교연합회 총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웰드미션대학 이사장으로 사우스베이동양선교교회 원로목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저서로 「누가 행복자인가」, 「카이로스의 시간」 등이 있다.

선교사는 모든 면에 실력을 갖추고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선교행정"에도 남다른 지식과 은사를 개발하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 행정면에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여 오해도 받고 문제가 되어 선교에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선교행정의 성서적 근거를 찾아보고 천주교, 감리교, 개혁신교, 회중교회 등의 행정조직의 다양성을 살펴봄으로 교회 목회의 행정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Casman Robert Willett 교수의 목회특징인 설교(Communication), 목양(Shepherding), 조직(Organization), 그리고 조동진 목사가 제시한 교회의 세 가지 실체(신적, 인간적, 정치적)를 통해 실제적인 목회행정을 배우며 선교행정에 있어 기둥이 되는 조직행정, 인사행정, 재정행정, 관리행정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한다.

#### 4-9 어린이선교의 성경적 원리

질 해리스 / 어린이선교교육 강사



Jill Harris: 미국지역교회의 선교활성화를 위한 동원훈련 및 정보제공 선교기관인 ACMC에서 23년간 어린이선교사역의 책임자로 미전역을 통해 유명한 "Be a M&M Kid! (Missions Minded Kid)" 세미나를 전개해 온 대표적인 어린이선교교육 강사다.

성경을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한 하나의 이야기로 가르치는 법을 배워본다. 아이들로 하여금 전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속에 자신들이 어떻게 참여되어지는가를 깨닫도록 도와준다. 오늘날 아이들의 삶 속에 적용시키면서 성경이 살아 움직이도록 한다.

#### 4-10 어린이의 영적성장

질 해리스 / 어린이선교교육 강사



Jill Harris: 미국지역교회의 선교활성화를 위한 동원훈련 및 정보제공 선교기관인 ACMC에서 23년간 어린이선교사역의 책임자로 미전역을 통해 유명한 "Be a M&M Kid! (Missions Minded Kid)" 세미나를 전개해 온 대표적인 어린이선교교육 강사다

아이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중보하도록,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과 성경공부를 할 수 있도록, 복음을 다른 이들과 나누도록, 섬기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어떻게 그들을 복돋아 줄 것인가를 탐구해 본다.

#### 4-11 이민교회의 내일과 팀사역의 적용

이승중 / 어깨동무 팀사역



서울장신과 리버티대학, 센추럴침례신학(M.Div.), 샌프란시스코신학교(D.Min.)를 나온 이승중 목사는 아틀란타새교회를 시무하며 어깨동무 팀사역의 공동체를 통해 이민교회 1세, 1.5세, 2세의 진정한 팀사역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침례교 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이며 저서로 「팀사역의 원리와 실제」, 「내 삶에 열매있게 하소서」, 「한국교회와 청년신학」 등이 있다.

팀사역은 기능적이거나 보다는 오히려 의식의 문제이다. 한국교회는 지도력 개발과 차세대지도자 양성에 관심을 쏟아야 하며 멘토링의 사역개발이 필요하다. 본인이 시무하고 있는 아틀란타새교회의 어깨동무 팀사역의 공동체를 소개함으로 실제적 적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경적 교회는 한마디로 팀사역의 일꾼들로 시작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격적 동반자의 관계였다. 현대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각기 헌신과 사역의 동참자들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단분열의 문제, 교역자와 평신도, 원로와 후임자간에 발생 되는 개체교회내의 문제, 시기와 다름, 불평과 파당 등 성도간의 갈등문제 등 한국교회와 관계성회복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

#### 4-12 이야기설교와 성경공부

이연길 / 달라스 빛내리교회 담임



장로회신학대학(Th.B.)과 신학대학원(M.Div.), 전주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Th.M.)을 졸업한 장순현 목사는 장신선교 대표, 한국기독교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 「교회와 선교」의 편집발행인으로 사역하면서 전주사랑교회의 담임목사로 봉사하고 있다.

선교지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달할까를 세 번에 걸쳐 다루고자 한다. 첫째 시간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까 라는 주제로 재미없는 전통적인 방법과 자유주의적인 해석방법이 아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현재에 만나도록 하는 해석방법인 이야기식 해석방식을 소개하려고 한다. 둘째 시간은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재미있고 빠르게 그러면서도 영혼들이 그 말씀으로 강건하고 성장하도록 전하는 방법으로 현대 설교학의 흐름인 이야기식 설교를 다루고자 한다. 셋째 시간은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까 라는 주제로 선교사들의 갈등인 사람을 가르칠수록 교만해지는 폐단을 피하고 성경을 가슴을 통하여 전인적으로 공부하도록 가르침으로서 오래 기억하고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도록 하는 방법을 다루도록 한다.

#### 4-13 노령화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과 준비

권태진/수원지검 청소년 선도위원



합동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권태진 목사는 군포제일교회에서 21년간 시무하면서 수원지검 청소년 선도위원과 군포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등으로 사역하고 있다. 저서로 수필집 「그 나라가 좋아요」, 설교집 「마태복음 강해」 등이 있다.

이 세미나에서는 노인복지를 중심으로 특별히 노령화 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의 구체적 복지 정책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 영혼과 육체의 소중함을 알아서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줌으로 새로운 세상을 맞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짧은 시간의 만남이 너무 아쉬워 선착순 100분에게 저의 수필집 「그 나라가 좋아요」 를 드립니다.

#### 4-14 어린이사역 및 부흥을 통한 지역복음화전략

송용결/사카고 헤브론교회 담임



총신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풀러신학교에서 수학한 송용결 목사는 현재 사카고 헤브론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중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한 가정, 한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어린이 사역 및 부흥을 통하는 것보다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없다. 어린이는 옥토다. 100배의 결실은 옥토에서만 얻는다. 어떻게 어린이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어린이를 통해 어른들에게 영적부흥을 일으키는가를 이론과 실제경험을 소개하며 강의한다

#### 4-15 효력있는 설교사역

이영희/뉴욕장로교회 당회장



경북대 영문과, 총신대학원, 웨이스신학교를 졸업한 이영희 목사는 현재 SEED International 선교기구 이사장이며 뉴욕장로교회 당회장이자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현저하게 준비하시는 두 가지는 그를 대신하여 이 일을 수행할 그의 사역자를 세우시는 것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말씀을 그 입술에 주시는 것이다. 출애굽의 위대한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세워지는 것과 그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으로 성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원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동일하다. 목회자나 선교사나 그의 사역이 유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 그러나 현실은 소원과는 달리 너무나

빈곤하고 척박하며 무력한 결과로 낙심과 탈진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본 강의는 하나님의 사역자(목회자나 선교사)가 말씀사역에 대하여 어떤 철학에 근거하여 어떻게 강력하고 효력있는 설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 4-16 기도선교와 선지자적 중보기도 [I]

딕 이스트맨 / Every Home for Christ 국제총재



Dick Eastman: 세계선교기도학교운동을 통해 120개국 2백만 이상의 기독교인에게 강력한 기도선교운동을 전개한 딕 이스트맨은 현재 Every Home for Christ의 국제총재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한 시간」 등 베스트셀러가 있다.

선지자적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이 세계를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가에 대해 독특하고도 실제적인 설명과 나눔이 있을 것이다.

#### 4-17 기도선교와 선지자적 중보기도 [II]

딕 이스트맨 / Every Home for Christ 국제총재

위의 1부의 계속으로 성경적인 조망을 통해 이 주제를 살펴보고 선지자적 중보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기적과 이사들을 케이스별로 살펴봄과 공부해본다.

#### 4-18 성경적 금식기도의 능력

진성인 / 하트포드한인교회 시무



총신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풀러신학교에서 수학한 송용결 목사는 현재 사카고 헤브론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중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금식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는 "금식기도는 크리스찬의 필수과목이다"라고 했습니다. 금식기도는 가장 강력한 영적무기이며 가장 중요한 은혜의 통로(means of grace)입니다. 특히 선교사역에 있어서는 금식기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금식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위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은 중들은 한결같이 금식기도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은 금식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의대 황성주 박사는 금식기도는 하나님의 히든(숨겨둔) 카드라고 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왜 금식기도가 꼭 필요한가, 금식기도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성경적인 금식기도는 무엇인가, 금식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건강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주의를 해야 하는가, 등등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 4-19 동업자이신 하나님

스탠리 탬 / 미국플라스틱주식회사 사장



Stanley Tam: 「하나님이 내 기업의 주인이다」의 저자인 스탠리 탬은 연간 일천오백만불의 매출액을 내는 오하이오 미국플라스틱주식회사 사장으로 사업이윤의 100%를 선교단체에 헌금해 오고 있다.

사업에 실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사업을 내게 맡기라. 내가 성공하게 해주겠다'는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그의 사업 51%의 동역자로 삼고 시작했을 때 스탠리 탬의 사업은 놀랍게 성공하였다.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사업에 임하며 어떤 원리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가를 간증할 것이다.

## ④-20 성경적 경제윤리

명돈의 / 예루살렘장로교회 담임



연세대 상과대학과 연세대 신학교, 고신대학원을 나온 명돈의 목사는 현재 매릴랜드주의 예루살렘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성경은 물질적 재산이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를 완성시키는데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가르칩니다. 돈은 믿음을 통하여 모든 그의 소유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왔음을 인정하는 자에게 내린 은총의 표시인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이 선물임을 분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들에겐 저주의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를 진실로 믿는가를 시험하시기 위해 그들을 일부러 돈이 부족한 상황속에 빠뜨리기도 하시며 풍요, 번영, 단순한 위로를 통해서도 또 자기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용도로 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읽어 내십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그리고 수리적으로 해석해 드리며 이것은 청산유수와 같은 우리의 말과 경건한 감정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해 줍니다.

## ④-21 후방선교사역에 평신도를 부른다

최순자 / 소아과 전문의 김브라이언 / 미션링크선교회 회장



최순자 박사는 이화대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시카고에서 소아과전문의를 하면서 수많은 나라에 단기의료사역을 해오고 있으며 특별히 선교현지로 선교용품을 보내는 사랑의 창고사역을 벌여오고 있다.

김브라이언은 주로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미션링크선교회의 회장으로 선교지에 선교물품, 특별히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인력을 공급하는 사역을 벌이고 있다.

선교지에 물품을 보내어 선교사들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일은 평신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컴퓨터는 큰 회사에서, 재봉틀들은 봉제공장에서 기증받고 각종 연장과 장난감등은 각 가정에서 또는 Garage Sale 등에서 구하고 의료품은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얻고, 영문도서들은 도서관에서 얻을 수 있으므로 이런 물품들을 수집하여 선교지로 보내는 일은 재정적 부담이 없고 어떤 평신도라도 쉽게 할 수 있으며 물품을 받는 선교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누구든지 선교사를 돕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자기집의 Garage만 이용해도 가능하다. 지난 몇 년간 MOM에서는 이와 같은 선교지로 물품을 보내는 사역을 해 왔고 2세들로 구성된 Mission Link에서는 컴퓨터를 선교현지로 보내면서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선교지의 컴퓨터학교 사역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 ④-22 현장성경공부를 통한 전도운동

김용완 / 서울 순복음교회 담임



한세대 신학과와 목회대학원을 졸업하고 미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용완 목사는 세계한민족복음화협의회 대표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21C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사역하면서 서울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전도전략의 저하요인 중 전도전략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전략은 무엇인가를 사도행전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현장성경공부(Field Bible Study: FBS)를 통한 전도운동은 사도행전적인 전도원리를 현대교회에 접목한 성서적인 전도전략이다. 성서적 기반을 둔 초대교회의 선교전략을 통해 현장성경공부는 다음의 5단계로 구성되어진다. ① 현장과약단계 (사람, 지역과약, 중보기도) ② 현장의 필요를 채우는 단계 (관계형성) ③ 전도의 문을 찾는 단계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 찾기) ④ 말씀을 뿌리는 단계 (FBS 기본핵심 5주 가르침과 현장성경공부 52주) ⑤ 일꾼을 양성하는 단계 (제자훈련)

## ④-23 개인전도

최명자 / 기독교방송선교사업부 강사



한국기독교100주년 개인전도상을 수상한 최명자 전도사는 1년에 400명을 전도하고 있는 전도왕으로 국내외 전도 부흥회 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안드레전도선교회 회장, 재미재단법인 세계복음화 여성상임 단장, 세계성신클럽 선교위원장, 기독교방송선교사업부 강사로 사역하고 있다.

전도는 모든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전도는 아주 쉬운 것입니다. 전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성도의 사명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꼭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전도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란 사실도 모르고 첫 설교를 듣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한 교회에서 1년에 400명씩 17년간 개인전도자로 하나님이 써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님 자랑이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넘쳐 잃은 자 찾아 다녔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채우게 하셨습니다. 한사람 붙잡고 전도한 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세계를 내 교구로 맡겨 주셨습니다. 이제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응답의 문이 열렸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 ④-24 지역교회에서 세계교회로

전준식 / 한국 신림교회 담임목사



연세대학교 신학과(Th.B.), 장로회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풀러신학교에서 박사학위 과정 중인 전준식 목사는 한국 신림교회의 담임목사이며 JEM(일본복음선교회) 대표, WEC 선교회 이사, CBMC 성경강사로 사역하고 있으며 저서로 「업그레이드 로마서 강해」가 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성경은 선교를 지향하고 있다. 교회는 왜 선교해야 하는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하기를 원하신다. 신구약 전체의 대사명,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다. 58억의 인구가 복음을 알고 있지 못한 현재 세계의 긴박한 상황이 선교를 요구하고 있다. 누가 선교하는가? 우리는 다 선교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한다. 교회에는 세 가지 유형 - 후원하는 교회, 파송하는 교회, 그리고 부르스 캠프의 시너지형 창출교회가 있다.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교회의 갈등, 선교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 교회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종족입양, 비전트립, 단기선교사 파송 등)을 살펴보고 신림교회의 베트남 참족 입양사례를 단계별로 나누고자 한다.

## 5. 선교사

### 5-1 하나님의 선교소명

윌리 브랜들 / SIM 중서부책임자

Willie Brandle: 스위스 태생인 윌리 브랜들은 1957년 아프리카복음주의협의회(AEF) 선교사로 앙골라에 파송되어 성경번역, 병원, 교회개척, 신학교설립 등의 사역을 하다 그 이후 남아프리카, 모르타니아, 프랑스, 가봉 등지에서 무슬림/힌두권 사역, 청년사역, 교사/강사 등으로 활약하였다. 1996년부터 미국에서 AEF가 합병된 SIM에서 중서부책임자로 일하면서 여러 선교대회에 강사로 활약중이다.

성경상에 나타난 소명들을 살펴봄으로 "선교사 소명이란 무엇인가"하는 것을 성경적 관점을 통해 답해보려고 한다. 하나님의 선교소명의 실제적인 예, 소명을 분별하는 지침, 그리고 받은 은사를 어떻게 유익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5-2 선교사의 영적전쟁

강승삼 /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선교위원장인



현재 총신선교대학원장 및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회장,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선교위원장인 강승삼 목사는 나이지리아에서 12년간 교회개척과 신학교 설립, 현지지도자 양성사역을 했다. 트리니티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적 전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베소서 1:21, 6:12) 선교사들이 영적 전투에서 실패한 예들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3:8, 4:4, 히브리서 2:14, 골로새서 2:15)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영적전투의 성경적 근거, 교회와 사탄과의 영적전투, 영적전투와 세계관 문제, 영적전투의 관계들, 그리스도인이 악령들릴 수 있는가, 선교사/사역자가 마귀를 어떻게 공격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으로 선교사와 성도가 어떻게 영성개발을 할 것인가를 다루도록 한다

### 5-3 선교사의 영성관리

호성기 / 필리핀디옥교회 담임



조지아임마누엘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턴신학대학원(M.Div., Th.M.), 런던국제선교신학원을 졸업한 호성기 목사는 현재 필리핀디옥교회 담임 및 PGM(세계전문인선교회) 대표이며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의 중앙위원으로 사역하고 있다.

선교의 실패는 선교사 자신의 영성관리의 실패입니다. 선교지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인 선교사가 자신의 영성관리에서 실패하면 다른 모든 사역도 성공한 듯 하나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성관리에 성공함으로 선교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를 쓰러뜨리는 타락한 영성은 우월감입니다. 가족, 친척, 명예 다 버리고 선교지에 가도 끝까지 선교사를 쓰러뜨리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입니다. 선교사는 죄책감 때문에 쓰러집니다. 조그만 죄책감을 통해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와 선교사로 하여금 오지를 찾아 피해들어가게 하고 사람들을 피해 죄값을 치르는 기분으로, 철저히 정신적으로 속죄하는 기분으로 선교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에 넘어갑니다. 선교사는 열등감 때문에 마귀에게 이용당하다가 실패합니다. 선교사의 영성관리의 열쇠는 오직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계속적인 만남을 통하여 우월감에서 죄책감에서 열등감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 선교사의 영성은 강하고 능력있게 선교지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 5-4 선교사윤리

손봉호 / 서울영동교회 장로



수많은 저서와 강연을 통해 현대인의 도덕성과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온 손봉호 장로는 한국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대표이며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로 봉직하며 서울영동교회 장로로 시무하고 있다.

선복음전파에 대한 열정은 윤리성을 동반해야 순수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 윤리는 성경을 순종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사랑의 기본이다. 선교사는 자신의 욕망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를 위한 정의감이 있어야 한다.

### 5-5 선교사역의 팀 다이나믹

장순호 / 방글라데시 선교사



목원대학, 감리교 서울신학을 졸업하고 웨스턴신학대학원 선교학박사과정 중인 장순호 선교사는 1984년 방글라데시로 파송되어 현재 국제개발선교회의 설립 및 대표로 사역하고 있다.

앞서간 서구의 선배 선교사들은 대개가 대가족의 일원으로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란 사람들이었다. 그런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가능한 함께 일하기를 즐겨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핵가족주의와 개인주의는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헌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동역의 원리를 너무도 무시하고 있다. 8,000여 명에 이르는 선교사들을 파송한 한국교회의 현실도 불과 몇 개의 지역에서 소수의 선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는 의로운 이방인으로 오늘도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다행히 오늘날 우리들은 세계 도처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가 협력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이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되찾아야 할 것을 찾게 하시려는 성령님의 축복이다. 우리는 남아있는 세상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주님의 사역을 외롭고, 고독하며, 긴장과 반목으로서가 아니라 협력과 동역으로 힘있게 이루어 가는 팀사역을 재건하며 확산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 5-6 선교와 은사개발

우수명 / 팔리장로교회 담임



한국신학대학, 장로회신학대학, 에스베리신학교, 컬럼비아신학교를 졸업한 우수명 목사는 현재 노스 캐롤리나에 소재한 팔리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주님의 세계선교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하려면 세계선교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 세계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정 그리고 헌금은 강조되고 있지만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방법제시는 찾아보기 어렵지 않은가? 세계선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과제이지만 누구나 선교일선에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교사로 나갈 사람과 선교사로 나가서는 안될 사람이 있다. 선교전방에 나갈 사람이 있고 선교의 후방에서 후원할 사람이 있다. 세계선교에 올바르게 참여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영적은사를 바로 알고 사용하고 적용해야 한다. 세계선교와 영적은사활용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본 세미나를 통해 선교사들이나 선교후원자들 모두가 자신의 영적은사를 바로 알아 효과적 선교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도록 주신 우리에게 영적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것은 하나님의 자원을 낭비하는 죄인 것이다. 그래서 본 세미나는 3단계로 강의가 진행될 것이다. 제1단계에서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영적은사의 정의, 중요성, 종류에 대해서 강의하고 제2단계에서는 영적은사 점검 설문지를 통해 나의 은사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실습하며 제3단계에서는 선교를 위한 영적은사활용에 대해 토론과 질의 응답을 하게 될 것이다. 본 세미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세계선교를 위해 자신의 영적은사를 바로 알고 활용하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과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 ⑤-7 선교사의 파송과 관리

한도수 / 브라질 선교사



한신대, 아세아신학대학원, 풀러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한도수 선교사는 필리핀에서 10년 사역하였고 바울선교회의 총무를 역임하였다. 현재 브라질 선교사로 신학교사역을 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1980년대만 해도 선교사 파송순위가 세계에서 꼴찌를 맴돌고 있었다. 그러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선교사 파송이 급격히 상승하여 세계 5위권까지 돌입했다. 21세기를 맞이한 오늘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국을 능가했으리라고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선교는 아직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교현장에서 과거 선구선교사들이 초창기 때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교현장에서의 문제는 우선 선교사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지 만 상대적인 원인도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누구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그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속히 시정하여 바른 선교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선교단체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나 기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선교를 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선교열기가 식기 전에 이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

## ⑤-8 선교지의 자녀양육

캐롤 리처드슨 / 돈 리처드슨 아내



「평화의아기」 저자로 유명한 돈 리처드슨의 아내인 캐롤 리처드슨은 남편과 함께 1960년 식인 사위족 부락에서 13년간 사역하면서 3자녀를 낳고 길러내었다. 미국에 돌아온 이래 돈 리처드슨의 내조자요 동역자로 사역하면서 많은 대화와 세미나에서 특별히 선교사 자녀(MK)들을 위한 강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 ⑤-9 선교사역의 갈등과 해소방안

전희근 /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장로



전희근 장로는 서울의대와 펜실베이니아 의대를 나와 1984년부터 세계 각지에서 단기선교사로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바이블칼리지, 달라스신학교를 졸업하고 AIM 미주이사, 풀러신학교 의료선교학 객원교수 등으로 일하고 있으며 현재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

한인선교사들이 4년 이내에 선교를 중도탈락하는 일이 18%나 된다고 한다. 선교를 중단하는 이유 중 사역에서 오는 갈등이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선교사역 갈등의 원인으로는 과잉목표, 인간관계의 갈등, 외로움, 헌신부족, 영성부족 등이 중요한 이유다. 갈등은 선교사 자신 뿐만 아니라 후원교회가 선교에 어떤 목표를 두며 어떤 기대를 하느냐가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갈등의 해소방안으로 첫째, 선교의 목표를 교회설립에만 좁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역들을 많이 포함시켜 총체적인 선교에 중점을 두는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복음전도와 교회설립은 제일이고 기타사역은 보조사역 정도라고 선교가치관이 변화되어 어떤 사역도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셋째, 선교사역에 앞서 선교사와 후원교회간에 신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선교사의 참된 헌신과 후원교회의 장기후원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들의 영성이 한국에 있을 때 보다 선교지에 간 후에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그 이유를 점검하고 영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 ⑤-10 선교사의 건강관리

백형권 / 어린이선교교육 강사



살라유니버시티 침구학대학원에서 한의학 박사학위를, 아시아아메리카대학 침구학대학원에서 침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한 백형권 장로는 현재 나성기독연합한의원 원장이며 기독교인의 건강관리 연구를 20년간 해오고 있다. 동양선교교회에서 장로로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선교에 대한 특별한 사명감으로 KWMC 지정 의료기관을 운영하므로 금번에 단순한 세미나가 아니라 직접 치료를 실시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복음선교 일선에서 꼭 필요하고 소중하게 쓰여지는 것이 건강입니다. 힘든 선교사역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또 주위 사람과 피선교자의 건강까지 돌봐줄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은 필요하며 소중합니다. 시간이 허락한대로 이론보다는 실기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강철 같은 건강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과 원리를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한평생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왜정 때 감옥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었던 방법, 로마군의 핍박을 피해 타코마 토굴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온 방법들을 쉽게 실천하여 직접 치료와 건강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하여 복음사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⑤-11 선교사 연장교육

데이빗 부로우섹 / 횃튼소재 TEAM선교회 훈련 및 정탐 책임자



David Broucek: 무디신학교와 북일리노이대학을 나와 트리니티신학교에서 타문화권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데이빗 부로우섹은 트리니다드, 산타로사, 아리마, 트린시티 등에서 교회개척과 성경공부의 사역을 하다 현재 횃튼 소재의 팀(Team) 선교회에서 훈련 및 정탐 책임자로 사역하고 있다.

이 세미나에서는 선교사의 사역전반에 걸쳐 일생동안 계속되는 연장교육의 이점과 이러한 연장교육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어떠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가, 연장교육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그 절차들에 대해 토론할 것이다.

## ⑤-12 선교에 있어 여성의 역할

로스 레오노빅 / 동부유럽 여성들을 위한 사역자



로스 레오노빅은 캐나다에서 출생하여 토론토의 러시아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2차대전 중 유럽으로 뛰어들어 독일의 슬라브족 난민들 사이에서 사역하였다. 닉 레오노빅과 결혼한 후 소련에 트랜스월드라디오를 통해 방송선교를 하였고 공산정권이 무너진 후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에서 여성들을 위한 사역을 벌여오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성을 독특하게 창조하셨으며 그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여성들 안에 간직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으로 하여금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게 만드셨다. 여성이 비록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그 섬세함이 약점은 아니다. 여성은 자연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하며 직관력도 뛰어나다. 여성이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였으며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 ⑤-13 비전, 사명, 믿음의 행동 - 선교사 비전의 발전단계

조나단 차오 / 중국국제선교회 총재



대만에 위치한 중국국제선교회의 창설자 및 현 총재이며 지난 21년간 중국선교에 헌신하며 매년 100여명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훈련, 파송해 왔다. 세계적인 중국선교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저서로 「중국회사핸드북」 등이 있다.

### ⑤-14 독신선교사의 생활과 사역

김자선 / 필리핀 선교사



김자선 선교사는 예장고신선교부에서 1986년 필리핀으로 파송되어 독신선교사로 사역해 오고 있다.

### ⑤-15 사람이 따르게 하는 선교사의 영성

소강석 / 새에덴교회 담임



총회개혁신학원 및 대학원(M.Div., Th.M.), 미국 낙스신학교(D.Min.), 연세대연합대학원 등을 졸업한 소강석 목사는 "맨땅, 맨손, 맨몸"의 "3맨목회"라는 특이한 철학으로 특히 교회개혁을 준비하는 젊은 신학생들과 도심 미자립교회 목회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있다. 40대 초반의 목회자로 이미 5,000명 이상의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새에덴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21세기는 결핍의 시대이다. 결핍은 정신고갈, 영성고갈을 불러온다. 영성고갈은 반드시 허무(공허)와 불안(초조)을 따르게 한다. 영성이란 무엇이며 외 영성훈련이 필요한가. 선교사의 영성생활을 통한 유익은 영혼과 육체가 풍성해지며 영혼을 끝없이 사랑하게 되며 사람을 감동시키며 사람을 따르게 하며 사역의 현장에 철저한 은혜, 축복이 도입되게 된다. 본 세미나에서는 영성의 단계와 선교사 영성훈련의 실제, 선교사의 영적침체와 회복을 성경상의 모세, 엘리야, 세례요한의 예를 살펴봄과 그 원인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나누게 된다. 풍성한 영성을 소유한 자는 어디서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친다. 정녕 사역의 현장에 풍성한 축복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21세기 선교사역의 승부수는 풍성한 영성소유에 달려있다.

### ⑤-16 불타는 소명감, 이렇게 회복하라

소강석 / 새에덴교회 담임



총회개혁신학원 및 대학원(M.Div., Th.M.), 미국 낙스신학교(D.Min.), 연세대연합대학원 등을 졸업한 소강석 목사는 "맨땅, 맨손, 맨몸"의 "3맨목회"라는 특이한 철학으로 특히 교회개혁을 준비하는 젊은 신학생들과 도심 미자립교회 목회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있다. 40대 초반의 목회자로 이미 5,000명 이상의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새에덴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목회든 선교든 그 사역의 결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복음사역자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소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그릇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불타는 사명이다. 하나님은 사역자를 보내실 때 먼저 뜨거운 소명감이 있나 없나를 보신다. 그것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똥을 바를 것이요(말라기 2:3), 그것이 충만한 자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실 것이다. 주의! 오늘도 저희에게 소명감이 충만케 하소서.

### ⑤-17 선교지에 적합한 교회형태 : 가정교회

최영기 / 휴스턴서울침례교회 담임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 최영기 목사는 현재 휴스턴서울침례교회를 담임하며 신약적인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가정교회를 시도, 60여개의 가정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결과를 거두고 있다.

선교지의 상황은 1세기 초대교회의 상황과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므로 선교지에 가장 적합한 교회형태는 초대교회와 같은 가정교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가정교회는 6-12명의 성도들이 평신도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 개인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이다. 본인이 섬기는 휴스턴서울침례교회는 60여개의 가정교회로 구성되어 있다. 각 가정교회가 지역교회의 역할을 다하며 '서울침례교회'는 각 가정교회의 사역을 돕고 가정교회간의 연결을 맺어주는 교단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구조는 1949년 중국에 공산정권이 들어서서 극심한 교회탄압을 하였을 때에 교회가 존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교회형태이다.

### ⑤-18 선교사 자녀들의 정체성 혼란

백요한 / 엘림한인장로교회 영어목회자

선교사 자녀로 일본, 필리핀, 영국에서 성장한 백요한 강도사는 그후 도미하여 세인트미조리커버넌트신학교를 졸업하고(M.Div., M.Th.) 현재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엘림한인장로교회에서 영어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다.

한국 선교역사를 살펴볼 때 선교사 자녀들이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세미나는 선교사 자녀들의 양육을 다룰 것이며 특히 선교지에서 영적, 문화적 균형과 함께 그들을 키우는데 초점을 둘 것이다. 많은 선교사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님 신앙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겪어왔다. 그리고 그들은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왔다.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아직도 많은 한국 선교사들은 자녀의 복지 때문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 나 또한 그런 힘든 일들을 겪으며 자라온 선교사 자녀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나는 나의 개인적 경험을 함께 나누며 한국 선교운동의 미래는 어떻게 되야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한국선교사 자녀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토론하기를 원한다.

### ㉔-19 선교사역과 영적치유

이윤호 / 교회개발원 국제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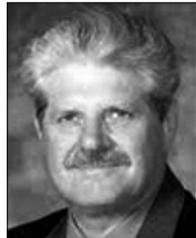


서강대 및 대학원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교(M.Div., Ph.D.)를 졸업한 이윤호 목사는 1988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되어 사역하다 현재 교회개발원 국제대표로 있으며 치유폭발클리닉 주강사이기도 하다.

선교사는 예수님과 같이 치유사역을 감당하여야 한다.(마태복음 4:23-24, 9:35) 또한 치유는 몸, 혼 및 영을 치유하는 전인 치유사역이 되어야하고 능력전도에 접목되어야 한다.

### ㉔-20 선교지 의존성 문제 - 마이크로크레딧으로

조셉 E. 리치터 / FARMS 선교회 실행국장



환경공학과 동생물학을 전공한 조셉 리치터 목사는 필리핀에서 평화의 사절단으로 사역하던 중 부인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후에 다시 필리핀 루손북부의 이고롯 족속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아 사역하였고 특히 기도교인들에게 농경자금을 용자를 해주는 사역을 하는 FARMS 선교회에서 실행국장으로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을 돌고 있다.

In Christian micro-credit a useful tool for missions without the downside of dependency? I believe when used correctly and with a strong biblical emphasis, micro-credit is an effective tool in building up a God-reliant church. Because of this, I would strongly recommend a micro-credit program be instituted early on in any church planting effort to get Christian family established economically.

The emphasis from the start should be on indigenous support of the church, its pastors, evangelists, outreach, benevolence and building programs. If we are coming alongside an established work, great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teaching the proper biblical view of stewardship. We have found that there are like-minded nationals that are eager to "run with the vision" in every place we have programs.

### ㉔-21 선교사에 대한 선교지교회의 의존성 문제

주진국 / 케냐 선교사



중앙대, 서울신대,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영국 WEC선교대학, 미국 풀러신학교를 졸업한 주진국 선교사는 1983년부터 현재까지 케냐 선교사로 사역하며 아프리카인랜드교회 총회선교부의 부총무로도 사역하고 있다.

선교지교회가 외국선교부에 대하여 의존하는 성향은 현지교회의 정상적 성장을 방해하며 후원교회의 선교의욕을 저하시키며 선교사역의 진행을 가로막습니다. 20세의 유아는 기형이며 큰 걱정거리입니다. 의존의 유형을 보면: ① 독립적 활동(자립전도)이 되지 않고 선교사가 아이디어를 주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또는 명령을 해야 비로서 활동이 이루어짐. ② 자체적 행정(자립행정)이 되지 않고 선교사가 계속 참견하고 후견인이 되거나 직접 행정담당이 되어야 함. ③ 재정적으로 선교사에게 의존함(자립재정). 의존

의 소재와 요인은 선교사 쪽의 문제, 현지인 쪽의 문제, 불가항력적 상황 등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 ㉔-22 선교현지에서의 동반자선교

김병윤 / 아세아침례신학대학원 선교학 교수



타문화권선교훈련원(GCMC)을 설립하고 필리핀 북부산악지역에서 이고롯 부족 내 교회개척사역을 해온 김병윤 선교사는 현재 한국해외선교회 개척선교부(GMP) 공동대표이며 선교한국2000 실행위원 그리고 필리핀침례신학대학원과 아세아침례신학대학원 선교학 교수이다.

선교현장에 나가있는 선교사들이 현지교회, 교단 및 단체 그리고 국제기관 등과 협력하여 사역하게 되면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어 인적, 물적 비용을 절감하거나 중복투자를 피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회비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유익한 면이 있다. 그러나 길지 않은 선교역사의 한인선교사들이 현장에서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뜻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동안 우리의 선교가 고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저효율의 형태로 진행되어 온 데에는 협력을 소홀히 한 원인도 있을 것이다. 한인선교사들은 자민족/문화중심주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속에서 일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갖춘 국제적인 선교사로서의 저비용 고효율의 선교사역을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교단체간에 정보와 인력을 공유하려는 노력을 통해 시너지를 제고하고 적절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㉔-23 선교현지 신학교 교수/지도자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김종국 / 인도네시아 선교사



미국 바이올라대학 초문화대학원 선교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종국 선교사는 1983년부터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신학교를 중심으로 지도자 양성 신학대학, 신학대학원을 설립하여 석사과정 프로그램 디렉터로 섬기고 있다.

최근 들어 선교지에서의 사역양상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 특히 신학교에서 교수요원으로 사역하고 있는 한인선교사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선교지에서 성경적인 토착교회가 잘 설립되기 위해서는 지적, 영적으로 잘 훈련된 현지인 목회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인을 포함한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는 한인선교사들은 내일의 신학교를 이끌어 갈 현지교수 양성이라는 과제 앞에 고심하고 있다. 특별히 선교지교회의 자립과 건강한 복음전파를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한국교회의 동역이 요청되고 있다. 이 일의 중요성을 개교회에 함께 인식시키고 이 프로그램을 위한 선교사, 현지신학교, 한국교회, 한국신학교, 선교단체 등 각 방면의 다각적인 협력과 모색이 있어야 할 것이다.

### ㉔-24 현장선교사가 체험한 선교이념

김상옥 / 가봉 선교사



서울대, 장신대를 졸업한 김상옥 선교사는 1985년 가봉으로 파송되어 현재까지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선교전문 이론적인 것에 두지 않고 그동안 선교현장에서 체험하며 사역으로 느껴왔던 바, 그것도 선교사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 한다. 그러므로 부족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을 동역자들과 나누고 또 여러 동역자분들이 알고 계시거나 느끼고 계신 상호 경험, 생각들을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다. 나누고자 하는 본인의 체험은 분명한 선교 이념(사상, 정책), 선교사와 동역자의 자질, 선교사역의 실제와 보고, 선교비전과 자녀교육이다.

## ⑤-25 선교와 사진

김형주 / 미국사진작가협회 일원

전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이었던 김형주 장로는 현재 시카고 헬로침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미국사진작가협회 일원으로 국내외 사진컨테스트에서 다수 입상, 입선하였다.

사진이 인류역사에 지대한 공헌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오늘날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영상매체는 확실하고 생동감 넘치는 의사전달의 도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 번 설명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인정받을 수 없는 사실을 잘 찍은 사진 한장으로서 감동과 현장감있는 보고나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동안에 말한다는 것은 황당하고 무리가 될 줄 사료되나 꼭 필요한 다음의 몇 가지만 간추려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 구도(앵글), 셔터찬스의 중요성, 사진을 돋보이게 하는 필터사용, 필름 선택 등.

## ⑤-26 사진을 통한 선교, 「하나님의 손」

함철훈 / 한국민족사진가협회 기획위원



고려대를 졸업한 함철훈은 한국민족사진가협회 기획위원과 한세대 강사 등을 역임하였고 공보처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월드비전 주관으로 캄보디아 선교촬영을 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개인사진전 및 그룹전을 가졌다. 현재 기독교TV 「땅끝이야기」에서 사진전이 방영되고 있으며 저서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속에 가득한 그분의 사랑을(일반계시)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고 촬영할 때의 느낌을 작가가 직접 설명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특별계시)을 증거할 것이다. 오늘날 역사의 기록은 글 뿐 아니라 영상으로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역사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사진기는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사진전문가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기에 본 강사는 사진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기능적 방법에서부터 일반적인 사진예술에 대해 강의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사진으로 찍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분의 손이 지나가신 흔적은 어디에나 있었다. 들판과 하늘과 구름에도 있었고 거대한 산과 바다에도 계셨지만 이름모를 한 포기의 들풀과 그 꽃에 맺혀있는 한 방울이 이슬에도 계셨다.

## ⑤-27 사진세미나

이이규 / 사진작가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이이규 사진작가는 한국사진작가협회원으로 활동하였고 이이규사진연구소를 운영하다 아르헨티나로 이주, 사진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 대만국제사진살롱 최우수상 등 각종 공모전에서 다수 입상한 바 있다.

이 사진세미나에서는 사진기의 종류, 구조, 각종 사진기의 장단점, 렌즈별 성능과 장단점 등 사진기에 대한 일반적 관찰을 통해 사진기 선택방법을 알아보고 필름의 종류와 특성, 후렛쉬의 기능과 선택방법, 사진촬영기법, 그리고 예술사진과 기록사진 촬영법, 빛의 이용 방법, 각종 부품과 그 사용방법 등 실제적인 촬영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다. 또한 사진기와 필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알아보고 참석자의 질의응답을 통한 의문사항을 답하고자 한다.

## ⑤-28 선교현지 전도와 제자훈련

박순중 / 서울신철성교회 담임

서울신학교, 장로회신학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안양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박순중 목사는 청와대 중앙인사위원회, 감사원, 정부종합 제1,2,3청사, 국세청에서 근무하였으며 서울신철성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청와대 기독교우회의 담임 사역자이다.

## ⑤-29 선교지망자의 준비

데이빗 부로우섹 / 핏튼소재 TEAM선교회 훈련 및 정탐 책임자



David Broucek: 무디신학교와 북일리노이대학을 나와 트리니티신학교에서 타문화권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데이빗 부로우섹은 트리니다드, 산타로사, 아리마, 트린시티 등에서 교회개혁과 성경공부의 사역을 하다 현재 핏튼 소재의 팀(Team) 선교회에서 훈련 및 정탐 책임자로 사역하고 있다

이 세미나에서는 타문화권 선교사역을 위해 자신이 얼마나 적합하며 준비되었는가를 비취볼 수 있는 여러 기준들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평가와 개인적, 직업적인 개발 분야의 필요성,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에 대해 덧붙여 설명할 것이다.

## ⑤-30 2세를 위한 소명과 헌신

박광자 / OC선교회 소속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였던 박광자 박사는 현재 국제 OC선교회에서 소속되어 국제사역팀에서 선교사동원을 위한 책임자로 사역하고 있다. 세계 각 지역을 돌며 선교헌신자들을 발굴하며 훈련시켜 타문화권선교로 동원하고 있다.

미국 한인 2세들에게 주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할 것을 도전하고자 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고 명확히 말해준다. 그것은 우리 삶 전체의 주되심을 뜻한다. 그분이 모든 것의 주님이시던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믿을 만 하며 완전하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역, 언어, 인종, 사회, 종교의 경계를 뛰어넘게 한다. 그리스도인의 최소한의 임무는 종 되시어 인류역사상 가장 커다란 간격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에로의 부름인 것이다.

## ⑤-31 21세기 요셉운동을 통한 선교헌신자 개발

나광삼 / 워싱턴 큰무리교회 담임



총회신학대학원, 웨이스신학교를 졸업한 나광삼 목사는 워싱턴 큰무리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21세기 요셉운동을 통해 2세 헌신자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 ⑥-32 주일학교를 통한 원주민교회 성장전략

양창근 / 파라과이 선교사



1991년 예정합동선교사로 파라과이에 파송된 양창근 선교사는 Centro de Vida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San Pablo 학교 사역과 파라과이 개혁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으며 현지인교회 개척사역, 특별히 주일학생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 6. 지도력개발

### ⑥-1 지상명령 라이프스타일

로버트 콜만 / 트리니티신학교 교수



Robert Coleman: 현 트리니티신학교 교수와 세계선교대학 학장인 콜만 박사는 전도학과 제자훈련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전도에 관한 교과서와도 같은 베스트셀러인 「전도의 마스터플랜」 등 다수의 책과 글을 출간하였다

지상명령은 특별한 소명이나 성령의 은사라기 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선교의 삶을 사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따르도록 하는 우리의 삶 자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취할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는 여건이나 원칙들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를 위한 9가지의 방법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하자. ① 성욕하심: 종된 모습. ② 선택: 제자들을 찾으심. ③ 연계: 함께 머무름. ④ 성별함: 순종을 터득함. ⑤ 모본을 보임: 어떻게 사역에 임하나 보여줌. ⑥ 위임: 함께 참여하도록 함. ⑦ 감독: 책임감을 심어줌. ⑧ 재생산: 증대를 기대함. ⑨ 떠나보냄: 선교과송을 위해 그들을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맡김.

### ⑥-2 선교지에서의 지도력

이영희 / 뉴욕장로교회 당회장



경북대 영문과, 총신대학원 웨이스신학교를 졸업한 이영희 목사는 현재 SEED International 선교기구 이사장이며 뉴욕장로교회 당회장이다.

선교의 당위성도 중요하고 선교지 결정과 선교사 선정도 중요하다. 선교의 열정도 풍성한 자원도 실로 중요하다. 그러나 정작 선교의 사역현장에 서면 이러한 중요한 것들이 폭풍에 시달리는 나뭇가지처럼 사정없이 시련대 위에 세워지고 심하면 뿌리째 뽑혀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일반 목회도 그러하지만 특히 선교지에서는 선교사역의 주역인 선교사의 지도력이 절대적 중요성을 가진다. 선교사의 영적 지도력은 선교지에서의 모든 사역의 성공과 실패, 일어서고 넘어짐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 여기 이 강의는 모세의 지도력과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사도 바울의 지도력을 비교 검토하면서 선교사가 천차만별의 선교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성경적 영적 지도력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 ⑥-3 사역자의 시간관리

이정근 / 북가주영락교회 담임



장로회신학교를 거쳐 웨이스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를 받은 이정근 목사는 미주장로회신학교 산호세캠퍼스 학장을 역임하였고 북가주영락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시간에 대해 사역자는 어떤 관념을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시간관리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가. 시간관리는 목표설정, 일의 우선순위, 자신을 운영, 프로젝트와 시간의 설계를 통해 성취지향적으로 되어야 한다. 목회자와 선교사는 창조적 시간관리를 통해 영원속에 사는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 ㉞-4 한인교회 차세대지도자 양성방안

양춘길 / 필그림교회 담임



일리노이주립대(B.S.), 프린스턴신학대학원(M.Div.), 칼빈신학대학원(Th.M.)을 수료하고 프린스턴에서 목회학박사 과정 중인 양춘길 목사는 나성영락교회 영어목회 부목사로 사역하였으며 현재 필그림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이민역사의 흐름과 함께 지도력의 변화가 요구되고 또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많은 미주한인교회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고 차세대 지도자 발굴과 양성이 큰 과제로 놓여져 있다. 특별히 미주한인교회가 세계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지도자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역교회들이 든든히 서서 성장해 나갈 때에 선교에도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교회는 세계선교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이 주어지고 있다. 몸에 밴 타문화 사고와 적응력, 쉽게 접하게 되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인종, 선교기관 및 연구자료, 이민교회의 선교열정, 미국적 배경, 언어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차세대 지도자 역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그 양성을 위한 제안들을 하려고 한다.

## ㉞-5 한 교회에서 1세와 2세가 협력하여 이루는 선교사역

김승욱 /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담임



김승욱 목사는 성경신학대학에서 M.Div.와 S.T.M.을 받았고 현재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주님의 지상명령은 주님의 교회가 담당해야 한다. 미국에 세워진 한인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 1세와 2세가 협력하여 이 일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 미국 한인교회의 현실이 이 두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각 세대에게 허락하신 장점을 살려 선교를 할 때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학총교회(데이비스한인교회)와 이민역사가 깊은 "기존"교회(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에서 담임목사를 하며 이 두 세대를 함께 양육하는 특권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지금까지 허락하신 경험을 비롯하여 1세와 2세가 협력하여 선교를 이루는 교회형을 함께 그리기를 원한다.

## ㉞-6 한국기독교인의 공공성개념 극복의 문제

임창호 / 휴스턴한인장로교회 담임



고신대와 동신대학원을 마치고 일본 히로시마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임창호 목사는 고신대 교수와 교목으로, 총신대학원 강사로 사역하였다. 현재 휴스턴한인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공공성을 회복하라」 등 6권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큰 50대 교회 중 거의 절반이 한국에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교회 안팎으로부터 어느 시대, 어느 나라보다 거세게 들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인은 이 문제의 근원지를 우리 민족의 근대화 과정에서 힘들게 꽃피우다 외세에 의해 중단된 공공성개념의 결핍에서 찾으려고 하며 공공성개념 형성 계몽에 대한 소홀함과 게으름이 오늘 의 현실을 낳았다고 진단한다. 뒤늦지만 다시금 공공성개념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만이 그 해결책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본 강좌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가운데서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관점에서 기독교인의 공공성 회복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룰 것이다.

## ㉞-7 세계선교를 위한 목회자의 국가관

김현종 / 21세기 부흥선교협의회 선교본부장



전북대 법대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호남신학대학과 총신을 졸업하고 Peace Lake Christian University에서 명예목회학박사를 수여한 김현종 목사는 전북도 교육위원, 우석대 총무처장을 역임하고 21세기 부흥선교협의회 선교본부장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2000년 대통령 목련상을 수상하였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실천자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선교를 위한 목회자로 세웠다는 소명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소명의식은 목회자의 확신, 열정, 선교를 위한 국가관 확립을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목회자인 "나"라는 개체가 세계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교량이 필요한데 그것이 곧 국가요 민족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국가(이사야 34:12)나 민족(창세기 12:2), 그리고 국보(민수기 32:33)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5천년의 역사속에 931번의 외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고 세계선교 역사의 등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국권(다니엘 2:44)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국가관을 확고히 간직할 때 하나님께서 세계선교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 ㉞-8 연장신학교육을 통한 지도자육성

김길 / C&MA교단 한인총회 감독



성균관대학(B.S.)과 동대학원(M.S.)을 졸업하고 얼라이언스신학교(M.Div.)와 남부침례신학교(D.Min.)에서 학위를 수여한 김길 목사는 UN 한국대사관 참사관을 역임하고 동산교회 목사로 시무하면서 C&MA교단 한인총회 감독을 맡고 있다.

건강한 지교회 지도자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사구시를 대전제로 하여 사고의 혁신으로 고정관념을 깨고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운 것을 보며 창조의 회복으로 피조의 의미를 찾게 하는 TEE(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는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지도자를 훈련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사용하여 교육하는 방법이다.

## ㉞-9 사역의 비전과 도전과 승리

김영준 / 고흥제일교회 담임

총회신학대학부, 총회신학 개혁신학연구원, 광주대학 대학원(신학석사)을 졸업하고 동아인제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재학중인 김영준 목사는 현재 한국의 고흥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나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은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성령이 주신 꿈을 가슴에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천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이며 그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꿈을 갖기를 바란다.

⑥-10 차세대선교포럼

심수영 / 정민용 / 노진산 / 김정한



심수영 이틀란타새교회  
정민용 커버넌트헬로우쉽교회  
노진산 리빙웨이스커뮤니티교회  
김정한 선미나스트리

⑥-11 선교소명자포럼

조용중 / 김종현 / 김현인 / 박광자



조용중 GP선교회  
김종현 한미세계선교센터  
김현인  
박광자 OC선교회

⑥-12 여성선교포럼

박광자 / 김자선 / 박병석 / 김순애



박광자 OC선교회  
김자선 필리핀선교사  
박병석  
김순애

7. 타종교/타문화선교

7-1 불교권선교

옹망 / 미안마크리스찬신학교 교장



미안마 현지인으로 필리핀에서 M.Div.와 Ph.D.를 마치고 현재 미안마에서 미안마크리스찬신학교의 교장으로 사역중이다.

7-2 북미주인디언선교

강부웅 / 미주대한신학대학 학장



현재 가주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부웅 목사는 북미주 인디언 선교를 위해 설립한 바울세계선교회의 회장이며 미주대 한신학대학 학장으로도 사역하고 있다.

현재 아메리칸 인디언은 남미, 북미 합해서 1,300 종족에 5,100만명쯤 되며 미국에는 1850년대에 인디언 학살 후 200만명쯤 되었는데 현재는 853 종족에 300만명쯤 되며 미 50개 주에 고루 분포되어 살고 있다. 백인들이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좋은 땅을 빼앗고 그들을 보호구역 안으로 몰아넣고 그들에게 선교한다고 하였으나 별 성과가 없었으며 현재 그들을 선교할 교역자들이 절대 부족하여 인디언 선교는 벽에 부딪힌 상태이다. 이러한 때에 같은 몽골리언으로 동양사람, 특히 한국사람들이 인디언 선교를 담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가 온 것이다. 그리하여 약 5년전부터 한인교역자들 가운데 몇 분이 인디언 선교를 하기 시작하였고 본인은 1997년부터 캘리포니아 씨에라 동부에 거주하는 파이아웃 종족과 쇼슨 종족에 선교해오고 있다. 본 세미나에서는 아메리칸 인디언 선교의 과거 역사와 현재 현황과 미래 선교전략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5,100만이나 되며 미전도종족이 가장 많은 아메리카 인디언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 기도와 연구와 협력을 할 때가 되었음을 느끼기 바란다.

7-3 불어권지역 전망과 도전

이몽식 / 주향교회 담임



충신대신학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몽식 목사는 주향교회를 담임하며 한국불어권선교회 대표로 사역하고 있다.

세계 불어권 인구는 약 6%인 3억3천만 정도이고 불어권 국가는 전세계 국가의 약 1/3인 45-54개국 정도이다. 이들 국가들 중 50%에 해당하는 24개국 이 아프리카 대륙에 집중되어 있으며 열린 황금어장이라 할 수 있는 이 아프리카에는 불어권 국가 48%, 영어권 36%, 기타 16%이다. 10/40창의 중요성 강조에 따른 역효과로 복음화율이 그 어떤 지역보다도 낮은 반면 복음에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불어권 지역이 심각할 정도로 선교대상지에서 제외되어져 왔다. 현재 이 지역에는 무슬림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불어권 아프리카에만 525여 미전도종족이 살고 있으며 인구비율은 약 60%가 넘고 있으며 미전도종족의 수에 있어서도 50%가 넘고 있다. 짧은 선교역사 속에서도 급속도로 선교사를 배출하고 있는 한국의 현재 선교사 대비 불어권 선교사의 비율은 1.9% 정도이다. 불어권 지역에 대한 홍보와 증보기도 운동, 선교동원이 이루어지고 긴급히 이 지역으로 선교사를 내보내야 한다.

### 7-4 이슬람권 선교의 새로운 한국적 패러다임 모색을 위하여

김철수 / 케냐 선교사



건국대, 총신(M.Div.), 풀러신학교(Th.M.)를 졸업한 김철수 선교사는 1989년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그 후 탄자니아 스와힐리 이슬람 해안으로 사역지를 변경하였고 현재 미국 풀러에서 이슬람학으로 박사학위 중이다.

[종교(이슬람)인가, 사람(무슬림)인가?] 이슬람과 서방의 교회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깊은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 채로 오늘날 서로가 선교라는 이름으로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서방과 이슬람권의 대립구조를 염두에 두고 볼 때 한인교회는 비서구교회로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믿는 바이다. 최근까지 서방교회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의 이데올로기를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그 교리의 모순과 전통을 공격하는 전략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서구 선교의 패러다임과 전략이 오히려 무슬림들을 더욱 결속시키고 있음을 서구의 선교진영은 보기 시작하였다. 또한 무슬림 엘리트들의 관심이 신학적인 데에 있기보다는 정치적인 데로 점점 기울고 있으며 평범한 보통 무슬림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종교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결핍된 부분들과 씨름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서구의 선교학자들과 단체들은 선교의 전략을 이미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슬람권 선교의 새로운 흐름을 좇아서 한국/한인교회들도 서구의 선교 패러다임의 약점을 다시 반복하지 말고 "사람"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의 안으로 찾아가는 "안으로의 선교(inward mission)"를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주장이다. 본인의 선교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료 인간인 무슬림 친구들과 "너와 나(thou-I)"의 의미있는 관계를 갖게 될 때에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화의 창이 효과적으로 열리기 시작함을 보았다. 한국/한인교회는 이슬람권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계교회에 제시하여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이다.

### 7-5 중동선교의 현황과 과제

타이트 티누 / 이슬람 분야 권위자



Tite Tinou: 타이트 티누는 트리니티신학교의 흑인 신학자로 아프리카, 유럽, 미국 등지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특별히 이슬람 분야에 권위자다.

### 7-6 중동선교의 성서적 근거

김만우 / 필라델피아제일장로교회 담임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고신신학대학원과 웨스트민스터신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김만우 목사는 세계 38개국을 순방하며 50여회의 집회를 인도하였다. 현재 필라델피아제일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중동선교협의회 고문,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선교부장이며 한인세계선교협의회 발기위원이기도 하다.

한국을 위시해서 서방 기독교 국가에 대한 이슬람 국가들의 도전은 심각하다. 루터란교회가 국교였던 노르웨이 경우만 하더라도 금년 들어 루터란교회의 국교를 해체하고 이슬람교의 기도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한 일이라든지, 영국의 유서깊은 교회당 건물이 팔려 이슬람 사원화되고 있으며 미국엔 이슬람센터 건립을 추진중이며 한국만 하더라도 5만 이상의 무슬림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동지역의 이슬람 국가들과 이스라엘 기독교 선교를 불법화하고 있다. 중동선교에 대한 재인식이 요청되고 있다. 본 강좌를 통해 중동선교의 성서적 근거를 재확인함으로써 중동선교의 정당성과 화급성을 인식할 수 있다면 본 강좌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 7-7 지역개발을 통한 모슬렘권 교회개척

서원석 / MAI 동아시아 필드디렉터



연세의대와 서울의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해부학 강사로 있다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서원석 선교사는 몽골 울란바타르시 연세친선병원에 행정원장 등으로 사역하였고 그 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와 Food For the Hungry 등 여러 선교단체들과 협력하였다. 현재 국제의료대사선교회(MAI)에서 동아시아 필드디렉터로 현역에서 활발히 사역하고 있다.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선교는 먼저 현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관계를 통하여 전파가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 알려져있다. 국제의료대사선교회(MAI, Medical Ambassadors International)의 핵심전력인 지역사회 보건선교전략의 기본 원리인 영과 육의 통합,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현지인을 통한 재생산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전략이 어떻게 무슬림 지역의 교회 확장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 7-8 무슬림을 향한 우리의 책임

미치 토산 / PWO 총무

Mich Tosan: 무슬림에서 개종한 미치 토산 목사는 페리시안월드선교회(PWO) 총무로 사역하며 페르시아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 버지니아의 침례교신학대학을 졸업하였고 현재 캘리포니아의 이란인들 가운데 있는 성경학교에서 모슬렘 기독교인들을 성경말씀으로 훈련시켜 페르시아인들을 향한 선교의 씨앗으로 삼고자 하는 비전으로 사역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교도인들을 향해 다리를 놓는 특권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그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문화권에 대해 배우는 사람들로서 겸손해야 하며 용납과 이해의 순수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단계별로는 관계를 정립하여 친구가 되며 교제를 나누어 함께 예배드리고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 7-9 유럽 내 모슬렘 망명자 선교현황과 그 전략

나승필 / 독일 선교사



현재 거주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부웅 목사는 북미주 인디언 선교를 위해 설립한 바울세계선교회의 회장이며 미주대 한신학대학 학장으로도 사역하고 있다.

현재 아메리칸 인디언은 남미, 북미 합해서 1,300 종족에 5,100만명쯤 되며 미국에는 1850년대에 인디언 학살 후 200만명쯤 되었는데 현재는 853 종족에 300만명쯤 되며 미 50개 주에 고루 분포되어 살고 있다. 백인들이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좋은 땅을 빼앗고 그들을 보호구역 안으로 몰아넣고 그들에게 선교한다고 하였으나 별 성과가 없었으며 현재 그들을 선교할 교역자들이 절대 부족하여 인디언 선교는 벽에 부딪힌 상태이다. 이러한 때에 같은 몽골리언으로 동양사람, 특히 한국사람들이 인디언 선교를 담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가 온 것이다. 그리하여 약 5년전부터 한인교역자들 가운데 몇 분이 인디언 선교를 하기 시작하였고 본인은 1997년부터 캘리포니아 씨에라 동부에 거주하는 파이아웃 종족과 쇼손 종족에 선교해오고 있다. 본 세미나에서는 아메리칸 인디언 선교의 과거 역사와 현재 현황과 미래 선교전략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5,100만이나 되며 미전도종족이 가장 많은 아메리카 인디언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 기도와 연구와 협력을 할 때가 되었음을 느끼기 바란다.

**7-10 유대민족을 향한 우리의 의무 : 성경적인 전도의 책** 웨슬리 테이버 / AMF International 실무책임자



Wesley Taber: 무디성서대학하에서 유대학을 전공한 웨슬리 테이버는 졸업 후 플로리다에서 유대인지역사회 전도활동을 포함한 제자훈련 등으로 사역하다가 전 가족이 이스라엘로 이주, 예루살렘에서 그 지역 현지교회와 함께 유대인 선교에 동역하면서 히브리대학에서 성서와 유대학을 공부하였다. 그 후 미국으로 돌아와 유대인선교단체인 AMF International에서 14년간 봉사하면서 현재 실무책임자로 사역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도 사랑하는 것이다. 구약에서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민족이었던 유대백성들... 그들은 오늘날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종료되었는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만인가?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포들에 대한 마음을 확인한다.

**7-11 유대인선교전략** 웨슬리 테이버 / AMF International 실무책임자

유대인 친구들과 복음을 나누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힘든 경우가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대교와 기독교의 여러 가지 차이점과 효과적인 복음전도의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유대인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가장 좋은 자료들을 제시하며 질문에도 답합니다.

**7-12 포스트모던 미국 내 아시아인 선교** 차피터/어바나 '93 강사



InterVarsity에서 7년간 캠퍼스사역으로 헌신하였고 현재 트리니티신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차세대 지도자를 길러내는데 온 열정을 쏟고 있으며 어바나 '93 등 여러 대회에서 강사로 활약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근대에서 포스트모던으로 전향하는 진통을 겪고 있다. 요즘 많이 듣고 있는 포스트모던이란 정확히 무슨 뜻인가. 포스트모던 젊은 세대를 향한 교회의 방책은 어떠한가? 이들을 향한 전도와 제자화 훈련에 대한 여러가지의 문제점과 자료들을 분석 재고 해보는 기회를 갖는다.

**7-13 로마캐톨릭선교** 강두호/ 파라과이 선교사



총회신학대학교 목회대학원에서 선교학 학위와 명예신학박사(D.D.)를 수여한 강두호 선교사는 1982년부터 파라과이에서 선교사로 사역해 오고 있다.

**7-14 독일교회와 한국교회의 통일역할** 신현파/ 전주대학교 강사



성경대 신학과, 현대 교육대학원(중고교육), 전주대선교신학대학원(선교학)을 졸업한 신현파 목사는 신안 압해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현 전주대학교 강사이다.

21세기를 맞이한 한반도의 가장 큰 변화가 통일임을 전제하고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북한선교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그것은 미움과 정죄만의 방법이 아닌 접촉과 사랑의 방법이 되어야 하고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복음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독일의 통일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 특히 독일 통일에 있어서 독일교회의 역할은 지대하였다. 동서독 교회는 40년 동안 다른 어느 단체나 조직보다도 동질성을 다양한 영역에서 유지해왔다. 복음선포와 신앙의 실천, 교회생활이라는 분명한 기독교적인 여러 문화양식은 분단의 상황에서도 시종일관 똑 같은 형태를 유지해 왔다. 이 같은 독일교회의 통일 역할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통일역할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7-15 아마존 인디오 미전도종족사역** 김철기/ 브라질 선교사



장로회신학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한 김철기 선교사는 1991년 브라질로 파송받아 아마존강 유역에서 현재까지 교회개척과 신학교 사역에 주력하고 있다.

아마존 정글에서 인디오 부족으로 태어난 까닭에 한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부족단위로 깊은 정글에 거주하는 인디오 부족들은 누군가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다. 전체 면적이 미국 본토만한 아마존강 유역은 적도를 중심에 두고 브라질, 콜롬비아, 페네주엘라, 페루, 볼리비아, 수리남, 기니아에 걸쳐 펼쳐져 있다. 아마존강 유역의 인디오 부족들은 브라질 영내에만 약 240여 종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약 100여 부족이 복음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주로 서구인 중심의 여러 선교단체 선교사들이 한평생을 바친 헌신으로 신약성서를 번역하여 소수의 부족들만이 부족언어로 신약성경을 소유하고 있다.

**7-16 구소련교회와 교회개척** 닉 레오노비치/ 방송선교



닉 레오노비치는 1929년 소련공산 치하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후에 이주하였다. 1958년부터 구소련지역에 러시아기독교 방송을 시작하였고 그 이후 약 35년간 방송사역에 종사하면서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의 목회자들이 방송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진실"과 "안정"에 목말라하고 있다. 현지인들을 훈련시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는 것이 물론 가장 좋은 전도의 방편이다. 외국의 종교라는 딱지가 붙거나 논쟁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을 뿐더러 더 효과적임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도에 이어 교회개척이 바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현지교회 개척자들을 위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7-17 코소보선교 300교회 개척운동

이상진 / 평신도선교활동



지구촌교회개척선교회와 코소보선교회를 설립하여 왕성한 평신도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상진 장로는 인도에 200여개의 원주민교회를 개척, 지원하고 있으며 코소보에 300개의 교회개척을 목표로 새 운동을 펼치고 있다.

7-18 국제유학생선교

박재영 / 뉴저지제일한인교회 담임목사



연세대(B.A.)를 졸업하고 미국 골든콘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M.Div.)를 받은 박재영 목사는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초대 총회장을 역임하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네팔선교연구원 원장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현재 뉴저지제일한인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국제화시대를 맞아 유학생들은 증가일로에 있으며 그 가운데 전체 유학생의 2/3 가량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곳 미주의 유학생선교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현재 지역교회를 위시하여 여러 기관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는데 가장 괄목할 만한 운동은 매년 개최되는 "KOSTA"이며 이를 통해 많은 유학생들이 동질감속에 새로운 사명감과 신앙의 증진을 가지게 된다. 이외에도 CCC, IVF, SM, SFC 등 많은 대학생선교단체가 이들 단체들 간의 보다 유기적인 협력사역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유학생선교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은 이들이 받고 있는 언어와 문화적인 이질감, 그리고 목표달성에 대한 중압감 등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해하며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주는 선교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8. 단기/평신도자비량선교

8-1 단기선교의 전략적 모델: 선교정탐

유태종 / AAP 총무

은행원으로 22년간 근무하다 선교에 헌신한 유태종 총무는 현재 한국미종도종족입양운동본부(AAP) 총무로 사역하고 있다.

현대선교의 가장 큰 물결인 미전도종족선교의 효과적인 성취를 위해 정탐은 매우 중요하다. 미전도종족을 이해하고 전략적인 중보기도와 사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다. 본 강의를 통해서 정탐의 중요성과 과정, 그리고 간단한 정탐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울 것이다.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미전도종족에게 접근하고 관심자들을 동원하는 것을 익힐 수 있다.

8-2 단기선교 실제훈련방안

정강현 / 워싱턴중앙장로교회 선교목사

워싱턴성서대학과 달라스신학교를 졸업한 정강현 목사는 워싱턴중앙장로교회의 선교목사로 중앙선교회의 총무이사로 사역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2000년을 시작하면서 이전보다도 더 큰 관심과 헌신 속에 단기선교가 지역교회를 통해 더욱 더 확산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단기선교가 계속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지역교회의 효과적인 단기선교를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상고해 보자.

8-3 단기선교와 선교헌신자 양성

김정한 / SON Ministry



퍼시픽크리스천대학에서 타문화선교로,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서 이슬람연구로 학위를 받은 김정한 목사는 케냐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다 현재는 1.5세와 2세를 위한 단기선교 전문단체인 SON Ministry를 창설, 세계 각지에 교회팀이나 그의 단기선교팀들을 훈련, 파송해 오고 있다.

21세기의 한인이민교회는 성령의 위대한 선교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민교회들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세계선교를 위한 위대한 선교적 잠재력과 가능성을 주셨다. 2세들과 평신도들이 바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교자원들인데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들을 개발시킬 것인가 하는 숙제가 있다. 또한 선교 전략적 면에서 하나님께서 세계에 흩어 놓으신 550만의 한인들과 한인이민교회들이 세계선교의 사명을 어떻게 완수하며 선교사들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단기선교는 이 위대한 부르심과 비전을 위해 차세대 선교사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선교전략적인 가치가 있는가? 21세기 선교에서 단기선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역교회에서 단기선교의 목적, 훈련과 현장사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단기선교를 통해서 차세대 선교사를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본 강의는 이러한 주제로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에 방향제시와 도전을 줄 것이며 단기선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 선교사 헌신의 동기부여와 훈련에 대한 단기선교의 핵심을 밝혀줄 것이다.

### ㉔-4 단기의료선교

장현식 /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 장로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를 섬기는 장현식 장로는 북미주한인교회의 평신도운동과 북한의료선교운동과 더불어 1.5세 내지 2세 선교 헌신자들의 훈련, 양육, 파송에 특별한 관심과 사명이 있다.

의사로서의 단기의료사역의 실제 경험과 참고가 될 실제적인 면을 서로 나눈다

### ㉔-5 단기의료선교의 새로운 전망

김영훈 /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장로 최순자 / 소아과 전문의



김영훈 :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훈 장로는 매년 아프리카 단기의료선교를 수행하며 평신도선교에 헌신하고 있다.

최순자 : 최순자 박사는 이화대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시카고에서 소아과전문의를 하면서 수많은 나라에 단기의료사역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선교현지로 선교용품 보내는 사랑의 창고사역을 벌여오고 있다.

재미 한국의료인이 약 4천명 가량 있다고 하며 그 중 많은 수가 곧 은퇴를 한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많은 한인선교사들이 세계곳곳에 나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단기의료선교 사역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우리 재미 기독교인 자원과 현지선교사들의 필요를 파악하여 앞으로 mathing, training and sending의 순서로 단기의료사역팀 내지 단기의료 사역자들을 선교지에 보내서 사역하고자 한다. 그동안 있었던 몇몇 사례보고와 더불어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큰 도전을 받고 힘을 얻기를 바란다. 최초로 한국에 왔던 미국의료선교사 Dr. John Heron이 죽음으로 한국땅에 의료선교의 씨를 뿌렸는데 우리는 이제 조금이라도 이 빛을 갠아야 할 줄 안다. 우리는 그가 뿌린 씨의 열매요 편지이다. 나가서 외치고, 고치고, 가르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㉔-6 전문인 자비량 선교사역

김순애 / 필리핀 선교사

칼빈신학교, 총신대학 신학원을 졸업한 김순애 선교사는 1985년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 필리핀 그루터기해외선교회 대표로 사역중에 있다.

현대선교의 현상을 살펴보면 21세기의 새로운 선교전략은 전문인 자비량 선교임을 볼 수 있다. 전문인 자비량 선교란 무엇이며 얼마나 효율적인가. 평신도 전문인선교의 현황은 어떠한가. 시대적 요청인 전문인 자비량선교의 내용과 방법, 준비와 훈련, 어려움과 가능성을 실제적으로 살펴본다. 땅의 영화를 포기하고 대상의 모양이 되어 섬기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빌립보서 2:5-11)가 바로 선교사의 최상의 모델이다. 각자의 직업을 통한 선교소명 - 그것은 만인제사장론이며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확장이다.

### ㉔-7 자비량선교 - 패러다임의 대전환

이사무엘 / UBF 전임사역자



서울대, 개혁신학교 신학대학원,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사무엘 목사는 1972년부터 현재까지 대학생성경원 기선교회(UBF)에서 전임사역자로 28년째 대학생선교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 「땅끝까지」와 「평신도를 부른다」가 있다.

크리스티 윌슨은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자비량하며 선교한 인물들이었다고 전제하면서 아담(에덴동산을 가꾸는 자)으로부터 그 예를 들고 있다.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주변인물들이 아니요 중심줄기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인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평신도 자비량 선교를 신학화하고 과감하게 도입하여 이를 실천함으로써 21세기의 세계선교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1,000만 성도 중 10%의 평신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다면 한국교회는 100만명의 선교사를 전세계에 보낼 수 있을 것이며 평신도들을 선교화 할 때 이 역사는 능히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 ㉔-8 전문인선교인력의 효과적 수급전략

조용백 / KAT 상임총무



서울대학교와 동대학원(석사, 박사), 총신대 신학대학원(M.Div.)를 졸업한 조용백 목사는 현재 선교한국 협동실행위원, 성경대학원 선교대학원 강사, 리바이블신학교 전임강사, 한국전문인선교협의회(KAT) 상임총무로 사역하고 있다.

한국의 모든 직업이나 기능 혹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의 알맞은 단기선교 프로그램이 나올 경우 전문인 선교사역자로의 즉시 전환이 가능하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이럴 수 있는 가용 인원이 줄잡아 2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을 효과적으로 움직여 주기 시작한다면 한국선교는 메탈라 가는 갈급한 선교지에 거대한 봇물을 터트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오는 물론이고 21세기에는 선교의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강력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 ㉔-9 평신도선교자원 집중개발전략

유효명 /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 장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정신과 의사이며 현재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 장로로 시무하고 있는 유효명 장로는 KWMC에서 평신도선교운동 본부장직을 맡고 있으며 기독교21세기운동 평신도선교위원장이다.

많은 선교학자들은 21세기를 평신도의 시대라고 부른다. 교회의 99%를 차지하는 평신도 중에서 10%만이 선교에 동원된 것으로 90% 이상이 선교에 대해 잠자고 있다. 이 잠자고 있는 90%의 교인을 동원하여 선교대열에 참여시켜야만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다. 오늘날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수동적인 상태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평신도"가 아니라 "병신도"란 불명예스러운 말도 들린다. 예수님의 전도방법(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에 따른 전략에 따라 선교

동원되는 방안을 서로 토의함으로써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바로 순종하고 '남은 과제'를 완수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한다.

### ㉓-10 전문직을 통한 아라비아 걸프지역에서의 선교전략

이춘우 / 아랍 선교사



총신신대원(M.Div.)과 국제신학원 선교학 석사과정을 마친 이춘우 선교사는 이랜드 바레인 지사장 비자로 바레인,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등지에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동 아랍권은 전체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인 지역들이며 그들의 언어인 아랍어도 어려운데다가 선교사들이 복음전도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리고 나라마다 자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선교사들에게 입국의 문을 꼭 닫고 있고 그나마 들어온 선교사들이 그들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개종시킨 것이 발각되면 추방당하는 어려운 지역이다. 이러한 선교지에 선교사가 입국할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까? 이 강의를 통해서 현지인교회가 없는 이곳 아라비안 걸프지역에 전문인 직업인으로 입국하며 어떻게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제시한다.

### ㉓-11 평신도선교자원개발전략회의

유효명 전희근 박문규 신종현

패널리더 / 유효명  
패널리스트 / 박문규 (LA지역) - 선교단체를 통한 선교사 충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패널리스트 / 전희근 (Philadelphia 지역) - 단기선교를 통한 평신도활성화방안  
패널리스트 / 신종현 (Houston 지역) - 지역활동을 통한 선교자원개발방안

### ㉓-12 단기선교포럼

정강현 김영훈 장현식 김정한 유태종

## 9. 특수선교

### ㉓-1 성경번역선교

이은섭 / 홍은선



**이은섭** : 매릴랜드대, SIL, 달라스신학교를 졸업한 이은섭 선교사는 1997년 아프리카 차드로 파송되어 성경번역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홍은선** : 홍은선 선교사는 대학교 때 선교에 헌신한 후 도미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1994년에 위클리프에 들어가 현재 한국담당책임자로 사역하고 있다.

글자화되지 않은 언어를 어떻게 글자화할 것인가. 성경번역 절치는 언어와 문화를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하게, 그러면서도 그 의미는 변하지 않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언어학 - 발성구조(음성학과 음운론)와 의미(구문론과 문법) - 과 인류학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㉓-2 복음폐쇄지역 방송선교의 효과

닉 레오노비치 / 방송선교



닉 레오노비치는 1929년 소련공산 치하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후에 이주하였다. 1958년부터 구소련 지역에 러시아기독교 방송을 시작하였고 그 이후 약 35년간 방송사역에서 종사하면서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목회자들이 방송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매스 미디어는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없는 국가들을 향한 선교에 효과적이다. 제한국가라고 하지만 하늘 위에까지 지붕을 만들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런 닫혀진 국가는 놀라운 선교의 토양을 갖추고 있으며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고 있다.

### ㉓-3 21세기 한인선교전략과 항공선교

김영욱 /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수



건국대(B.A.), 총신대(M.Div.), Biblical Brethren Seminary(M.A.), 풀러신학교(Th.M., D.Min.)을 졸업한 김영욱 목사는 현재 미주한인항공선교회와 한인항공선교회 대표이며 ACTS 항공선교사훈련원 원장이며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몇몇 신실한 크리스천 조종사들이 비행기가 복음전파에 유용한 도구임을 발견하고 비행기를 통해 복음을 전파한 결과 큰 효과를 보았다. 깊은 오지나 먼 섬에 전파하려면 통나무 배나 노새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과 많은 장애가 있었는데 경비행기를 이용할 결과 시간단축과 현지의 병자들이 신선한 음식과 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선교사들이 자주 고립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항공선교는 약 반세기의 역사를 가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다. 아프리카 난민들의 식량문제를 가장 먼저 세상에 알렸고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선교사들을 잡아먹던 식인종들에게 날아가서 복음을 전한 결과 그들이 성경교사가 되는 놀라운 결과를 비롯해서 복음전도, 의료선교, 구조 등의 사역을 하였다. 1945년 창립된 항공선교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래드랜드에 본부를 두고 37개국의 정글과 섬에 138대의 경비행기와 헬기를 이용하여 560여 조종사 가족과 3천여 보조선교사들이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 ㉠-4 선교를 위한 디지털 시청각기구의 선택

나운태 / 시카고성결교회 담임



서울신학대학, 국제대학, 국제신학대학을 거쳐 맥코믹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나운태 목사는 C&MA 교단 한인총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시카고성결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Photo와 Digital의 개념을 설명하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점을 통해 어떤 시청각 기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아무리 좋은 기재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사용용도나 적합성, 실용성과 간편성, 경제성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음의 기재들을 다루고자 한다. ① 사진기(Photo Camera) ② 디지털 사진기 ③ 디지털 비디오 촬영기 ④ DVD 컴퓨터 시스템 ⑤ 영상멀티미디어 프로젝트 ⑥ 스크린 프로젝트. 특별히 선교사들에게 있어 선포도를 높일 수 있으면서도 간편하고 실용적인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 ㉠-5 북미주 외향선교

박계로 / 캐나다 밴쿠버 항만선교사



총신대, 국민대, 연세대, LA 칼빈성서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박계로 목사는 1986년부터 신우선교회가 파송한 캐나다 밴쿠버 항만선교사로서 밴쿠버항을 출입하는 세계각국의 외향선원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다각적으로 전파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본인이 선교의 동기를 부여받아 지역교회가 손대지 못하는 특수선교, 즉 항만에서 선원선교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 사역을 착수한지 어언 14년이 되었다.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밴쿠버항은 캐나다 서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자연 항구로서 태평양 시대를 맞이하여 연간 3,600척의 상선과 함께 8만 여명의 선원들이 세계 90여개국으로부터 출입항하고 있다. 그 많은 선원들은 다국적, 다민족, 다언어, 다

종교, 다문화권의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다. 또한 관광선이 계절적으로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약 300회가 운행되며 그 연인원 70만명이 혼잡을 이루는 보기드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의 외향선교는 한마디로 세계선교라고 할 수 있다. 본 강의에서는 세계 선원선교의 과거와 현재, 밴쿠버항 선원선교를 하는 기관들과 방법들을 살펴보고 항만선교의 유리한 점이 무엇인가를 통해 외향선교를 소개하고자 한다.

### ㉠-6 새천년의 한국 외향선교 비전과 전략

최기만 / 임재성



**최기만** : 고려신학교와 웨이스신학교를 나온 최기만 목사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사역하였고 한국외향선교회를 창립, 회장으로 있으며 한국 월드컨선교회 상임회장, 타문화권선교사훈련원 원장으로 있다.

**임재성** : 서울신학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임재성 목사는 OM선교회 소속으로 영국 내 힌두교도 사역을 벌이다 현재 한국외향선교회 사무총장으로 있다.

최첨단 교통수단으로 말미암아 이동되는 막대한 물동량 중 아직도 해운을 통한 것은 가히 천문학적 수량이다. 해운업에 종사하는 이들과 외향선원들은 본국의 사회생활

과 가정생활로부터 격리된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들이며 각종 위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21세기 죽음의 병인 에이즈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매개체가 우리가 방치한 외향선원들의 성적문란한 생활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주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전세계의 기독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보살핌이 절실하다. 외향선교사역이 타문화권종족을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화하고 제자화하는데 지름길이 되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선원선교의 역사와 영혼구원사역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한국외향선교회의 독특한 사역과 함께 새시대의 선교비전과 세계선교전략을 나누고자 한다.

### ㉠-7 21세기 최대의 선교블럭: 도시빈민

고광석 / 필리핀 선교사



미국 플러신학교에서 Th.M. 및 Ph.D. (도시선교학) 학위를 받은 고광석 선교사는 1988년 필리핀에 파송되어 마닐라 도시 빈민지역 교회개척 및 종합사역, 안드레 목회자 재훈련원, 아시안신학교 겸임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21세기 최대의 선교블럭인 도시빈민, 그들의 선교학적 중요성을 성경의 가난한 자에 대한 선교추구와 여러 국제 선교단체의 보고들을 통해 재인식하고 도시빈민의 현재 상황을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마닐라 도시빈민의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그리고 교회개척, 교회당 건축, 기독교 교육기관 설립, 의료선교 실시, 자생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도시빈민을 위한 선교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8 구제선교 - 월드비전 사역을 중심으로

심정환 / 월드비전 간사

워싱턴대학을 나온 심정환 간사는 월드비전에서 미주 아시안교회 책임자로 사역하며 특별히 북한, 중국 등 아시아지역 나라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세계최대의 기독교구호기관인 월드비전의 미주 아시안교회 책임자로 북한,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위한 홍보, 모금활동 등을 펼쳐 월드비전에서 북한을 향한 구호금을 5백만불 정도 인상시키기도 한 조나단 심은 이번 세미나에서 현재 북한의 상황과 함께 월드비전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보건, 식량구호 사업들을 소개하고 지난해 북한을 방문했던 비디오 등도 상영할 것이다.

### ㉠-9 혼혈아선교

강영철 / 혼혈아 선교사

시카고예술대학에서 학사, 석사과정을 마치고 아세아연합신학교(M.Div.)를 수료한 강영철 목사는 아메리시안기독교아카데미를 설립하여 한국 혼혈아선교에 헌신하고 있다.

한국 내 혼혈인은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로부터 있어왔으나 외모의 차이에 따른 심각한 구분은 없었고 한국문화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었지만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혼혈인(Amerasian)이 생기게 되었고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혼혈아선교회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는 혼혈 아동들에게 온전한 복음(Whole Gospel)을 제시하며 보육, 상담, 입양, 친부 찾아주기, 특별교육프로그램으로 사역하고 있다. "온전한 복음"으로 "온전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 ㉠-10 은퇴목사와 선교적 사명

김득렬 /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 은퇴목사



KWMC 1차대회 준비위원장, 2차대회 공동대회장으로 KWMC의 선교운동에 동참해 온 김득렬 목사는 연세대 교육, 신과대학 종교교육학 교수 등을 거쳐 디트로이트한인연합장로교회를 담임하다 현재 동 교회에서 은퇴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목사와 은퇴의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은퇴목사에게 당면되는 문제들은 무엇인가, 은퇴목사들에게 당면되는 인생주기적 과제들은 무엇인가, 은퇴목사가 선택해야 할 결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은퇴목사와 후임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등의 실제적인 주제들을 은퇴목사로서 하나하나 짚어가며 은퇴목사의 계속적 사명인 하나님의 지속적인 소명을 강조하고자 한다.

### ㉠-11 은퇴목사의 선교비전

김재광 / 러시아 선교사



1923년 평양에서 출생한 김재광 선교사는 고대 경영대학원, 평양신학교 및 장신대, 미국 공군군목학교 등을 수료하고 군목으로 사역하였고 북미주 한인목회에 힘쓰다 러시아 선교사로 나아가 약 10년간 사역하면서 러시아 가나안신학대학 학장, 구소련한인선교사협의회 고문 등을 역임하였다. 전도영화 「한국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오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를 제작하였으며 저서로 「은혜의 생수」, 「은혜의 만나」가 있다.

은퇴란 교회의 제도상 고령이 되면 각기 소속되어 있는 교회법에 따라 은퇴를 해야 하겠지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 은퇴한다고 복음의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믿는다. 종종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나 은퇴 후에 교회가 분열되거나 어렵게 되는 현실을 볼 때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소명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일은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위해서나 은퇴한 교회를 위해서나 모두 계속할 수 있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본인과 다른 선배들의 경험들을 나누고자 한다.

### ㉠-12 선교지 지역사회 보건선교

김영훈 /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장로



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영훈 장로는 매년 아프리카 단기의료선교를 수행하며 평신도선교에 헌신하고 있다.

지난 여러 세기 동안 의료선교사역이나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선교사역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자원을 퍼부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결과는 기대했던 만큼의 열매를 못 거두고 또 선교사가 현지를 떠날 때 사역은 끊어지고 그만 흔적마저 없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지역사회 보건전도(Community Health Evangelism-CHE)라는 새로운 전략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육과 영을 함께 건지는 사역을 소개하고자 한다. CHE는 마태복음 28:19-20에 있는 주님의 "지상명령"과 마태복음 22:36-40에 있는 주님의 "큰 계명"을 함께 합쳐서 준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한 개발사역을 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사역을 위해서 먼저 현지인들 가운데서 Community Health Evangelists를 훈련시키고 이들이 다시 자기네 부탁으로 들어가 현지인들에게 질병의 예방과 교육, 예방접종, 생활개선 등을 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양육을 하도록 하는 사역방법이다. 이 CHE 훈련에는 깨끗한 물, 정수방법, 위생, 농사, 기술, 영양, 산모 및 초생아관리, 가정요법, 예방의학 등등의 육신적인 것과 또한 주님을 영접한 것을 확인하는 방법,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소그룹성경공부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등 영적인 부분의 훈련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해서 현지인들로 하여금 저들이 배운 육과 영의 진리들을 자원봉사자들로서 자기 부탁에 돌아가서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하고 또 자신들이 본을 보임으로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결국은 훈련팀이 떠나더라도 이 사역은 계속해서 면면히 이어져 나가며 계속 번창하고 확장되어 나아가게 된다.

### ㉠-13 교도소선교

이상숙 / 전도사



이상숙 전도사는 뉴욕근교 할렘 빈민가 선교와 교도소선교를 위해 15년간 사역해 오고 있다.

### ㉠-14 농아선교

임금희 / 케냐 선교사



서울 영락교회 파송선교사로 년전에 선교지에서 작고한 남편의 사역을 계속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농아학교를 케냐에서 운영하고 있다.

### ㉠-15 장애인선교

조상희 / 방글라데시 선교사



조상희 선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에서 방글라데시로 파송되어 국제개발선교회에 소속되어 장애인들을 향한 선교를 펼치고 있다.

### ㉠-16 국제이중문화가정 선교과제

강준원 / 컬럼비아선교장로교회 담임



단국대 법대, 장로회신학교를 거쳐 총신대학원을 졸업한 강준원 목사는 현재 사우스캐롤리나주에 소재한 컬럼비아선교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국제화시대 다변화되어가는 지구촌은 생활권 단축으로 다민족 접촉을 통해 이중문화권 가정이 증가되고 있다. 이 가정들을 선교현장에 끌어내는 일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지구촌 도처에서 외국인을 거부하는 현실을 볼 때 동질성의 문화, 언어, 풍습을 통한 선교사역은 효과적인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이중문화권 가정을 선교전력에 효과적으로 극대화한다면 선교사훈련기간단축(언어), 선교사훈련비용절감, 평신도선교사발굴 등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

### ㉓-17 인종화합을 위한 기독교사회윤리 선교과제

배현찬 / 주예수교회 담임



연세대와 연세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배현찬 목사는 Duburque신학교와 보스턴대학원을 나와 현재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에 있는 주예수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미주 한인이민교회의 선교사명은 '미국이 곧 선교현장'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있다. 인종화합과 관련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서 교회로서의 선교사명을 잘 감당해 갈 때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면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교회의 사회윤리적 사명을 재인식하여 균형잡힌 성숙한 교회상을 세워갈 때 지역사회의 선교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 ㉓-18 군경선교

목사균 / 리치몬드한인장로교회 장로

콜로라도주립대학, 켄터키주립대학, 노스캐롤리나주립대학을 나온 목사균 박사는 리치몬드대학과 버지니아주립대 등지에서 교수로 시무하고 현재 리치몬드한인장로교회에서 장로로 봉사하고 있다. 그외 미국장로교단 이사, 국제기독교군인연합회 이사, 유니온신학교 이사 등으로 사역하고 있다.

매주 성경공부에 6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몽고 기독교장교선교운동,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중국 기독교장교선교운동, 그리고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지역 기독교대회, 군인선교훈련, 신병훈련소에서 대규모 세례식 등 여러 군경형사역들을 보고하며 그 외 소련, 유럽, 아프리카, 미국, 남미 등지에서 펼쳐지고 있는 AMCF 활동들을 보고하고 살펴봄으로 군경형선교의 현재 활동상황과 전망을 알아보도록 한다.

## 10. 아시아선교

### ㉓-1 북한을 향한 그리스도의 대사

스테판 린튼 / 유진벨재단 대표



Stephen Linton : 한국에서 선교사역에 일생을 바친 린튼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한민족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사명감을 소유한 린튼 박사는 북녘땅의 잃어버린 영혼들과 특별히 식량지원운동을 위해 창설된 유진벨재단의 대표로 사역하고 있다.

This seminar is a detailed presentation on how best to represent Christ in North Korea as a Korean. It will deal with ethnic, nationalist, political, and diplomatic, as well as spiritual issues related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arious approaches to North Korea will be discussed and analyzed. In the final half, a step-by-step guide to various strategies for obtaining a visa will be covered, along with a list of "do's and don'ts" for your first visit.

### ㉓-2 평화선교로서의 대북활동

조동진 / 민족통일애스라운동협의회 이사장



장로회신학교(B.D.)와 미국 에즈베리신학교(Th.M.), 윌리엄케리대학교(Ph.D.)를 졸업한 조동진 목사는 국제선교협력기구(KIM) 창립 및 창립총재이며 제3세계 선교협의회(TWMA) 창립회장으로 1974년 로잔세계복음학회의 강사로도 활약하였고 1968년도에 창설한 동서선교연구개발원장, 사단법인 민족통일애스라운동협의회 이사장으로 약 20여회 북한을 방문하며 선교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한반도의 복음은 19세기 중반 봉국으로부터 압록강을 통해 전래되었고 1945년 한반도 교회수는 3천개 정도로 그 중 2천개가 이복에 있었다. 국토분단과 함께 시작된 이데올로기 대결시대 50년 동안 남과 북은 민족상잔의 전쟁과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적대관계가 지속되고 서로가 원수처럼 대하였다. 2000년 대 기독교 대북활동은 화해의 선교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경쟁적 자기 세력확장이 아니라 소멸된 그릇터기 교회에서 새싹이 돋아나게 하는 일에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 새 시대의 대북활동은 평화선교로서의 패러다임부터 정립해야 하며 화해와 평화 활동을 통한 전도환경 조성부터 시작해야 한다. 전도예비활동의 방향과 방법은 분단과 북녘땅의 교회소멸 과정과 그 땅 속의 묻힌 풀뿌리 신도들을 찾아내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 ㉓-3 북한교회재건운동

김중석 / 서울사랑교회 담임



서울대,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김중석 목사는 현재 총신대신학원 강사이며 서울 사랑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북한교회 재건협의회 실행위원장이며 한국통일신문 발행인으로 「교회는 통일을 대비하라」, 「북한교회재건백서」, 「북한교회재건론」, 「무너진 재단을 세운다」 등의 저서가 있다.

1945년 이전의 북한교회는 약 3,000 교회에 30만 정도의 성도가 있었다. 통일을 대비하여 이 교회들의 재건, 그리고 개척을 위한 북한교회재건위원회가 발족되어 범교회적인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 세미나에서는 현재 북한의 경제, 정치, 기독교, 조선 그리스도인 연맹 등의 상황을 살펴보고 남한의 햇볕정책,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북한정권의 전망 등을 통해 통일의 때와 이를 위한 준비로 북한교회재건 및 개척 사업의 자세한 내용과 전망을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한다. 통일은 반드시 되며 멀지 않다. 북한교회재건은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며 구체적인 준비는 필수이다.

## 10-4 북한선교 평가와 제안

이이삭 / 모퉁이들선교회 설립자

이이삭 목사는 1982년 개혁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주총회 가주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1985년부터 모퉁이들선교회를 설립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 북음제한지역에 선교사역을 벌이고 있다.

북한교회의 상황과 전략변화를 1950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북한선교에 관계했던 일본과 중국, 유럽과 미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방법론적인 면을 중점으로 평가해 보고 남한교회는 북한의 지하교회에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으며 구제와 해외동포들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평가해 본다. 그리고 이 평가를 통해 신학의 정립과 성경번역, 통일을 준비하는 북한행 선교사와 선교기관의 자세, 그리고 통일 후의 총체적 대비, 이렇게 세 가지의 제안점을 제시해 본다. 마지막으로 북한 지하교회의 실상과 지하성도들의 사례들을 나누어 본다.

## 10-5 북한선교의 장기전략

김진환 / 아가페침례교회 담임



전북대, 알라바마주립대, 남침례신학교(목회학 석사, 철학 박사)를 수료한 김진환 목사는 현재 오하이오의 아가페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남침례신학교의 강사로 있다.

북한선교정책은 북한의 정치체제, 주체사상, 사회구조 등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북한주민들의 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탁상공론에 그치게 되고 말 것이다. 북한은 순수한 정치적인 단계를 넘어서 하나의 종교적인 단계로 보아야 한다. 북한주민은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주체사상을 믿는 종교인들로 보아야 한다. 또한 북한의 체제가 갑자기 붕괴되거나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이 일어날 확률은 희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선교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꼭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주민들은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종교인들이기에 타종교권 선교전략이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에큐메니컬 사역이 불가피하나 교단의 교리까지 넘어선 에큐메니컬한 사역은 불가하다. 또한 외국 선교사들과도 상호존중하며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남한의 대북포용정책을 이용해야 한다. 식민주의적 선교를 시도해선 안되며 특히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우던 평양사람들의 긍지를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존 사회구조를 이용한 가정교회모델의 교회개혁이 바람직하다. 처음부터 복음을 통하여 북한의 사회구조를 변화시킨다는 체제의 변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현실불가능하다. 그런데 북한의 사회구조는 네트워크로 되어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의 자원과 남한의 인력(북한에 파견되는 기술자나 여행자)들을 이용하여 가정교회를 개척해 나간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 10-6 북한을 바로 알자

이정남 /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위임목사



한양공대를 나와 월드미션대학(선교학 석사), 개혁장로회신학교(목회학 석사), 웨이스신학교(선교학 박사), 아메리칸성서대학교(목회학 박사)를 졸업한 이정남 목사는 현재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위임목사이며 북미주선교교회장, 워싱턴신학교 선교학 교수 등으로 사역하고 있다.

세계의 이목은 현재 한반도로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남북한이 역사상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움직이는 '파워엘리트'들은 어떤 인물들일까. 북한을 바로 알려면 영도핵심층과 지도핵심층을 알아야 한다. 통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북한을 바로 알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신학자와 선교학자 그리고 일선의 목회자와 평신도 전문인들 사이에는 원활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종합하고 북한을 바로 알고 통일을 대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며 교회간 협력의 제도화를 앞당기고 교회 안에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이행하며 전문적 북음사역자와 평신도선교사를 집중 훈련 양성할 시기, 즉 교회의 적극적 행동과 실천의 시기이다.

## 10-7 탈북자문제와 북한선교

장석규 / 백암성결교회 담임

서울신대학원(M.Div.)와 전주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Th.M.)을 수료한 장석규 목사는 현재 한국의 백암성결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한국학성 청년선교회의 실행위원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북한주민의 탈북현상은 급속한 수적 증가추세를 보여왔다. 근본적으로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사회 자체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 우리 동포들의 북한 이탈추세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탈북자들을 단순히 양식을 찾아 남한까지 온 이들이 아닌 북한선교를 위하여 예비된 동역자로 이해하는 선교적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중국 등지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들의 긴급한 상황들은 지난해부터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서 국제적인 관심거리가 되었다. 반면에 국내 탈북자들은 생명의 위협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또 다른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다가올 통일 이후의 북한선교와 북한교회재건에 저들 탈북자들을 북음으로 훈련시켜 동반자로 활약토록 해야 할 것이다. 저들은 이미 이질화된 북한사회에 통일 이후 선교와 교회재건에 첨병역할을 북한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적자원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는 탈북자들을 북음의 사역자로 초교파적으로 훈련하는 프로그램과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탈북자 사회적응 훈련원인 통일부 산하 하나원 같은 시설을 교회가 위탁받거나 사회적응과 북음사역자로 양육해야 하는 일이 시급하다. 탈북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북한선교의 파트너임을 기억하자.

## 10-8 21세기 중국선교의 도전

조나단 차오 / 중국국제선교회 창설자



Jonathan Chao : 대만에 위치한 중국국제선교회의 창설자 및 현 총재이며 지난 21년간 중국선교에 헌신하며 매년 100여 명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훈련, 파송해 왔다. 세계적인 중국선교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저서로 「중국선교핸드북」 등이 있다.

## ⑩-9 중국선교전략회의

황의춘 및 이관숙, 이벤후, 고동주, 브르스길라리



황의춘 목사는 뉴저지 트랜톤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 ⑩-10 파키스탄 선교

이평자/파키스탄 선교사

이평자 선교사는 한국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에서 1997년 파키스탄으로 파송받아 사역해 오고 있다.

## ⑩-11 일본 선교

이수구/국제 OMF 선교사



총신대학,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한 이수구 선교사는 한국예수전도단에서 봉사하였고 1990년 국제 OMF 선교사로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일본의 교회개척사역을 해오고 있다.

## ⑩-12 몽골 선교

최병효/몽골 선교사

광신대, 개혁신학연구원(M.Div.),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M.A.)을 졸업한 최병효 선교사는 몽골선교사로 1995년 파송받아 신학교사역 및 교회 개척사역을 해오고 있다.

## ⑩-13 네팔 선교

이춘심/김명호



**이춘심** : 예수간호대학,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의료선교과를 졸업한 이춘심 선교사는 1985년 네팔의료선교사로 파송받아 현재 카투만두신학교 학장, 히말라안선교부 설립 등으로 사역하고 있다.  
**김명호** : 1923년 출생, 대구의전, 아비소다대학, UCLA, 연세대학원을 의학박사로 졸업한 김명호 선교사는 1991년 네팔의료선교사로 파송, 사역해 오고 있으며 다수의 저서와 대통령표창 등 여러 훈장도 받은바 있다.

## ⑩-14 베트남 선교

김영관/베트남 선교사



성균관대 법대, 서울신대, 감신대학원을 나온 김영관 선교사는 베트남에 파송받아 한인 2세 교육기관인 휴먼직업기술학교와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등 10년째 사역해 오고 있다.

## ⑩-15 홍콩 선교

문대규/홍콩 선교사

1991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타슈켄트로 파송받은 문대규 선교사는 고려인과 소련인들을 대상으로 교회개척 및 지도자 양성사역을 하다 현재 홍콩으로 사역지를 옮겨 사역하고 있다.

## ⑩-16 대만 선교

최명익/대만 선교사

최명익 선교사는 국제농아인선교회에서 1985년 대만에 파송되어 사역해오고 있다.

## ⑩-17 라오스 선교

김정인/라오스 선교사



개혁신학연구원을 나와 총신대학선교대학원 D.G.M.과정 이수 중 1991년 총회에서 라오스로 파송받아 선교사로 섬기고 있다. 현재 라오스미션센터의 대표선교사이며 라오스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라오스 회화집을 저술하기도 했다.

## ⑩-18 말레이시아 선교

노중해/말레이시아 선교사



성균관대 법대, 서울신대, 감신대학원을 나온 김영관 선교사는 베트남에 파송받아 한인 2세 교육기관인 휴먼직업기술학교와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등 10년째 사역해 오고 있다.

## ⑩-19 방글라데시 선교

장영인 / 이향엽

**장영인** : 이화여대, 덕성여대, 감리교신학대학을 졸업한 장영인 선교사는 1996년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의료사역과 교회개척을 하고 있다.  
**이향엽** : 부산신학, 부산동의대, 서울장로회신학교(M.Div.)를 졸업한 이향엽 선교사는 1995년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파송받아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다.

## ⑩-20 미얀마 선교

김군배 / 강대현



**김군배** : 1995년 미얀마로 파송된 김군배 선교사는 총회세계선교회 미얀마 지회장, 메콩개발기구 서부지부장, 미얀마선교회 대표, 미사청모 대표 등으로 사역하고 있다.  
**강대현** : 강대현 선교사는 예장개혁선교부에서 1993년 미얀마로 파송되어 사역해 오고 있다.

## ⑩-21 싱가포르 선교

손중철 / 싱가포르 선교사



1978년 파송된 이래 두루선교회를 세워 60여명의 동역자들과 사역하며 인터넷세계선교사대학교를 설립, 범세계적 선교네트워킹의 비전을 불태우고 있는 손중철 선교사는 세계선교사회 사무총장으로도 봉사하고 있다.

## ⑩-22 인도 선교

김광선 / 인도 선교사



고려신학대학원 선교학과를 졸업한 김광선 선교사는 경향선교회 선교국장, 예장고려 선교국장 등을 역임하였고 1993년 인도 선교사로 파송, 현재까지 델리임마누엘한인교회 담임, PIM(Paul India Mission) 설립 및 회장으로 사역해오고 있다. 현 인도선교사협의회 회장이자이다.

## ⑩-23 인도네시아 선교

안성원 / 송광욱



**안성원** : 서울대, 합동신학교를 졸업한 안성원 선교사는 1985년 인도네시아로 파송, 현재 안중안 신학교 교수사역, 안디옥기독교등학교 설립 및 운영, 자카르타 현지인교회를 개척하여 목회중이다.  
**송광욱** : 장로회신학(B.A., M.Div.), 맥코믹신학교(D.Min.),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Th.M.M.)를 졸업한 송광욱 선교사는 1990년 인도네시아로 파송되어 자카르타 SETIA 신학교 교수 등으로 사역하고 있다.

## ⑩-24 태국 선교

김성곤 / 태국 선교사



총신대를 나와 1984년 태국으로 파송받은 김성곤 선교사는 태국전역에 20여개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개혁신학교를 설립, 운영하며 사랑의 집, 나환자자립정착촌 사랑의 마을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⑩-25 필리핀 선교

이원식 / 남후수



**이원식** : 이원식 선교사는 기감에서 파송받아 필리핀에서 1985년부터 사역해오고 있다.  
**남후수** : 고신대(B.Th.), 고신신학대학원(M.Div.), 덴버신학교(M.A.)를 졸업하고 아시아침례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준비중인 남후수 선교사는 1987년 필리핀으로 파송되어 세부신학교 학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 ⑩-24 태국 선교

김성곤 / 태국 선교사



총신대를 나와 1984년 태국으로 파송받은 김성곤 선교사는 태국전역에 20여개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개혁신학교를 설립, 운영하며 사랑의 집, 나환자자립정착촌 사랑의 마을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⑩-26 캄보디아 선교

서병도 / 캄보디아 선교사

서병도 선교사는 예장통합선교부에서 1991년 캄보디아로 파송되어 사역해 오고 있다.

## ⑩-27 스리랑카 선교

최도식 / 이성상



**최도식** : 최도식 선교사는 예장통합에서 1989년 스리랑카에 파송되어 사역해 오고 있다.

**이성상** : 목원신학대(B.Th.), 인도 New Life College 신학대학원(M.Div.),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M.A.)을 졸업한 이성상 선교사는 1990년 스리랑카 선교사로 파송되어 현재 스리랑카한인선교사회 회장 등으로 사역하고 있다.

## 11. 중앙아시아/유럽선교

## ⑪-1 우즈베키스탄 선교

김경일 / 권영봉



**김경일** : 충신신대원을 졸업하고 가이모세계선교회 총무를 역임하다 1992년 우즈베키스탄으로 파송, 문화센터 원장, 교역자협의회 회장 등으로 사역중이다.

**권영봉** : 부산고신대, 충신신대원을 졸업한 권영봉 선교사는 1996년 우즈베키스탄으로 파송되어 사범대 한국어과 교수, 장애아동탁아소, 회사운영 등으로 사역하고 있다.

## ⑪-2 카작스탄 선교

박기곤 / 최진규



**박기곤** : 박기곤 선교사는 바울선교회에서 카작스탄으로 파송되어 사역해 오고 있다.

**최진규** : 최진규 선교사는 예장고신선교부에서 1997년 카작스탄으로 파송되어 사역해 오고 있다.

## ⑪-3 키르기즈스탄 선교

유동수 / 키르기즈스탄 선교사

유동수 선교사는 예장통합세계선교부에서 키르기즈스탄에 1994년 파송되어 사역해 오고 있다.

## ⑪-4 몰도바 선교

한호진 / 몰도바 선교사



부산공업대와 성결교신학대학을 졸업한 한호진 선교사는 1992년 몰도바로 파송되어 목회자 훈련과 교회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 11-5 우크라이나 선교

정희술 / 우크라이나 선교사



정희술 선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세계선교회에서 우크라이나로 파송되어 사역해 오고 있다.

## 11-6 러시아 선교

이희재 / 남일우



**이희재** : 서울대 법대, 장신대신대원, 싱가포르 ACTI, 시카고 멕코믹신학교를 졸업한 이희재 선교사는 1994년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 현재 성페테스부르크신학교 및 교회사역을 하고 있다.

**남일우** : 총신신대원을 졸업한 남일우 선교사는 1991년 러시아로 파송되어 현재 하바롭스크장로교회를 시무하며 극동장로교신학교 교장으로 재직중이다.

## 11-7 루마니아 선교

박천규 / 박창수



**박천규** : ACTS, 런던신학교 등을 수료한 박천규 선교사는 1991년 유럽으로 파송, 루마니아에서 외국인 최초로 현지교단 목사안수를 받고 현재까지 집시교회를 목회하고 있다.

**박창수** : 예장장신 라보도신학교를 졸업하고 1991년 루마니아에 파송된 박창수 선교사는 현재 교회 개척과 공동체사역을 해오고 있다.

## 11-8 불가리아 선교

김호동 / 불가리아 선교사



부산장로회신학교, 총신대학원, 총회MTI를 수료하고 소피아대학에서 박사학위 이수중인 김호동 선교사는 1992년 불가리아로 파송되어 개혁장로교신학교를 설립하고 소피아한인교회를 시무하고 있으며 현 동유럽선교사협의회 회장으로 있다.

## 11-9 알바니아 선교

이항모 / 알바니아 선교사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한 이항모 선교사는 1985년 독일로 파송되었다가 현재 알바니아로 옮겨 사역하고 있다. 예장총회산하 유럽독노회 회장직도 맡고 있다.

## 11-10 체코공화국 선교

남상이 / 체코공화국 선교사

해군사관학교와 순복음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대위로 전역한 남상이 선교사는 1990년 체코공화국으로 파송되어 현재까지 사역해 오고 있다

## 11-11 헝가리 선교

하용달 / 헝가리 선교사



영산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하용달 선교사는 1992년 헝가리 선교사로 파송받아 현지인 교회개척, 제자훈련, 노방전도, 구제 사역, 찬양사역 등을 해오고 있다.

## 11-12 폴란드 선교

김헌중 / 폴란드 선교사



부산대, 칼빈신학교, 대학신학대학, 캘리포니아 유니온신학대학원(Th.M.)을 졸업한 김헌중 선교사는 1983년 나이지리아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였고 1987년 스웨덴 스톡홀름한인교회 협동목사로 시무하였고 1991년 폴란드 바르샤바한인교회를 개척하였다. 육군대령 예편 후 다시 1995년 폴란드로 재파송되어 사역해 오고 있다.

## ⑪-13 스웨덴 선교

조충일 / 스웨덴 선교사



고려신학대학교 신학과(Th.B.), 신학대학원(M.Div.),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샌프란시스코신학교(D.Min.)를 졸업한 조충일 선교사는 1994년 스웨덴으로 파송되어 사역해오고 있다.

## ⑪-14 포르투갈 선교

강병호 / 포르투갈 선교사

강병호 선교사는 예장고신선교부에서 1986년 포르투갈로 파송되어 사역해 오고 있다.

## ⑪-15 독일 선교

박인갑 / 독일 선교사



박인갑 선교사는 기감선교부에서 1987년 독일로 파송되어 사역해 오고 있다.

## ⑪-16 프랑스 선교

이극범 / 프랑스 선교사



1989년 프랑스로 파송받은 이극범 선교사는 파리장로교회를 담임하며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활동과 아프리카 불어권 국가들을 향한 유학생 단기선교활동 등 불어권 지역사역에 전념하고 있다.

## ⑪-17 그리스 선교

손영삼 / 그리스 선교사



손영삼 선교사는 AFC(만민선교회)에서 1987년 그리스로 파송되어 사역해 오고 있다.

## 12. 중남미/오세아니아선교

## 12-1 도미니카공화국 선교

최광규 / 김영구



**최광규** : 안양신대원, ACTS, Tercer Edad 대학 등을 수료한 최광규 선교사는 1988년 도미니카 주재 1호 한인선교사로 파송받아 사역해오고 있다.

**김영구** : 중앙대, 침례신학대(M.Div.)와 대학원(Th.M.)을 나온 김영구 선교사는 1991년 도미니카로 파송되어 9년째 원주민사역을 해오고 있다

## 12-2 코스타리카 선교

민영진 / 박성도



**민영진** : 민영진 선교사는 예장통합세계선교부에서 코스타리카로 1989년 파송되어 사역해오고 있다.

**박성도** : 박성도 선교사는 1989년 북미주 SEED선교회에서 코스타리카로 파송되어 사역하고 있다

## 12-3 유카탄 선교

김종혁 / 유카탄 선교사



연세대 법대를 나온 김종혁 선교사는 미국 벨츠빌장로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하다 선교의 소명을 받고 1996년 선교사 안수를 동 교회에서 받고 1997년 멕시코 유카탄에 파송되어 유카탄선교협의회 책임자로, 유카탄 농충훈련소 소장으로 사역해오고 있다.

## 12-4 멕시코 선교

이주태 / 멕시코 선교사



이주태 선교사는 1999년 뉴저지 베다니교회에서 멕시코로 파송되어 사역해오고 있다.

## 12-5 볼리비아 선교

문익배 / 볼리비아 선교사



문익배 선교사는 예장통합에서 1986년 볼리비아로 파송되어 사역해오고 있다.

## 12-6 브라질 선교

노시영 / 브라질 선교사



총신대와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노시영 선교사는 1990년 브라질선교사로 파송되어 현재 상파울로 근교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선교를 하고 있다.

## 12-7 아르헨티나 선교

임훈철 / 정현식



**임훈철** : 임훈철 선교사는 예장통합세계선교회에서 1987년 아르헨티나로 파송되어 사역해오고 있다.

**정현식** : 총신신대원, 총신선교대학원 박사과정 중인 정현식 선교사는 1987년 아르헨티나로 파송되어 현지인선교를 해오고 있다.

## 12-8 파라과이 선교

정금태 / 임성익



**정금태** : 부산고신대학, 총신대학원을 나와 1992년 파라과이 선교사로 파송받아 현재 현지인 목회를 하며 여러 곳에 교회를 개척하며 유아원, 유치원, 국민학교를 설립, 학교사역을 해오고 있다.

**임성익** : 한양대, 장로회신대원(M.Div.), 장로회선교대학원(Th.M.)을 졸업한 임성익 선교사는 1988년 파라과이로 파송되어 현지인교회개척, 기독교학교 설립 등으로 사역해 오고 있다.

## 12-9 에쿠아도르 선교

이영민 / 에쿠아도르 선교사



1987년 에쿠아도르로 파송되어 현재까지 14년 동안 사역해오고 있는 이영민 선교사는 인디언 문맹퇴치와 부족어 성경활용 전략 및 인디언과 현지인 지도자 훈련을 감당해 오고 있으며 에쿠아도르 타문화권선교사훈련원 원장이다.

## 12-10 칠레 선교

김종길 / 이재삼

**김종길** : 예장재건총회신학(Th.B.), 웨스트민스터신학(M.Div.), 칼빈성서신학(D.Min.)을 졸업한 김종길 선교사는 1991년 칠레로 파송, 칠레한인연합교회, 칠레개혁신학교로 사역하고 있다.

**이재삼** : 1994년 칠레로 파송된 이재삼 선교사는 콘셉시온 비오비오 지역에서 원주민교회개척, 선원선교, 부랑아동을 위한 소망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 12-11 콜롬비아 선교

서신길 / 콜롬비아 선교사



서신길 선교사는 예장통합세계선교부에서 1991년 콜롬비아로 파송되어 사역해오고 있다.

## 12-12 페루 선교

이춘현 / 박맹춘



**이춘현** : 총신대와 전북신학대, GAPCK신학교(M.Div.)를 졸업한 이춘현 선교사는 1992년 페루로 파송되어 한인 및 현지인 목회사역을 해오고 있다.

**박맹춘** : 박맹춘 선교사는 예장통합세계선교부에서 1992년 페루로 파송되어 사역해오고 있다.

## 12-13 과테말라 선교

조득성 / 과테말라 선교사

조득성 선교사는 예장통합세계선교부에서 1997년 과테말라로 파송되어 사역해오고 있다.

## 12-14 온두라스 선교

박명하 / 온두라스 선교사



박명하 선교사는 예장통합세계선교부에서 1992년 온두라스로 파송되어 사역해오고 있다.

## 12-15 뉴질랜드 선교

신종혁 / 김종수



**신종혁** : 신종혁 선교사는 1987년 예장통합세계선교부에서 뉴질랜드로 파송되어 원주민 마오리족 사이에 교회, 신학교 사역을 해오고 있다.

**김종수** : 김종수 선교사는 1991년 뉴질랜드로 파송되어 사역해 오고 있다.

## 12-16 파푸아뉴기니 선교

정재순 / 파푸아뉴기니 선교사



정재순 선교사는 GBT에서 파푸아뉴기니에 1987년 파송되어 사역해오고 있다.

## 13. 아프리카/중동선교

## 13-1 가봉 선교

김상욱 / 가봉 선교사



서울대, 장신대를 졸업한 김상욱 선교사는 1985년 가봉으로 파송되어 현재까지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 13-2 남아공 선교

전준수 / 남아공 선교사

전준수 선교사는 예장통합세계선교부에서 남아공으로 1991년 파송되어 사역해오고 있다.

## 13-3 우간다 선교

배상호 / 우간다 선교사



총신대(B.A.), 총신신대원(M.Div.),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Th.M.) 선교사훈련원을 졸업한 배상호 선교사는 1990년 우간다로 파송, 현재 개혁신학교 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 13-4 에티오피아 선교

조창현 / 에티오피아 선교사

1994년 에티오피아로 파송된 조창현 선교사는 현지에 에티오피아 장로교회를 조직, 사역해오고 있다.

## 13-5 이집트 선교

이준교 / 이집트 선교사



안양대 신학과, 서울대학원, 총신대 신학대학원, 카이로 아메리칸대학 아랍어 과정, 미국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미국 헤리티지대학교(신학박사)를 졸업한 이준교 선교사는 1979년 이집트로 파송되어 사역해오고 있다.

## 13-6 보츠와나 선교

김혜영 / 보츠와나 선교사



김혜영 선교사는 그루터기에서 1991년 보츠와나로 파송되어 사역해오고 있다.

## 13-7 탄자니아 선교

이영권 / 안명찬



**이영권** : 이영권 선교사는 세계총회선교회에서 1993년 탄자니아로 파송되어 교회개척, 신학교 교수, 유초중고등학교 설립 등으로 사역하고 있다.

**안명찬** : 안명찬 선교사는 예장합동세계선교회에서 탄자니아로 1993년 파송되어 사역해오고 있다.

## 13-8 케냐 선교

이장식 / 강인중



**이장식** : 이장식 선교사는 기장 에큐메니칼 협력사업부에서 케냐로 1990년 파송되어 사역해 오고 있다.

**강인중** : 강인중 선교사는 예장합동세계선교회에서 케냐로 1987년 파송되어 사역해오고 있다.

## 13-9 소말리아 선교

조성덕 / 소말리아 선교사



조성덕 선교사는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1983년 파송되어 소말리아를 위해 사역해오고 있다.

## ⑬-10 콩고 선교

곽군용 / 콩고 선교사



곽군용 선교사는 예장통합세계선교부에서 1989년 콩고로 파송되어 사역해오고 있다.

## ⑬-11 이스라엘 선교

정연호 / 김진해



**정연호** : 장로회신학대/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히브리대학 성서학 박사과정 중인 정연호 선교사는 1991년 이스라엘로 파송되어 사역해오고 있다.

**김진해** : 서울신학대학원(M.Div.),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Th.M.)을 졸업, 현재 예루살렘의 히브리대학에서 박사과정 중인 김진해 선교사는 1995년 이스라엘로 파송되었다.

## ⑬-12 터키 선교

윤태권 / 터키 선교사



윤태권 선교사는 예장합신선교회에서 1990년 터키로 파송되어 사역해오고 있다.

## ⑬-13 이란 선교

이만석 / 이란 선교사



장신, 장신대신대원을 졸업한 이만석 선교사는 1986년 이란 선교사로 파송되어 사역해오고 있다.

## ⑬-14 감비아 선교

허경문 / 감비아 선교사

허경문 선교사는 감비아에서 사역하고 있다.

## ⑬-15 모잠비크 선교

이창규 / 모잠비크 선교사



중국신학교, 기독교민음신학교(Th.B.)를 졸업한 이창규 선교사는 1995년 모잠비크로 파송되어 사역해오고 있다.

## ⑬-16 짐바브웨 선교

박란순 / 짐바브웨 선교사

박란순 선교사는 예장합동세계선교회에서 1991년 짐바브웨로 파송되어 사역해오고 있다.

## ⑬-17 코트디브와르 선교

황익진 / 코트디브와르 선교사



총신대, 합동신학교, New Tribe Mission 선교훈련을 받은 황익진 선교사는 1991년 북미주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코트디브와르에서 I.B.R.A. (Institut Biblique Reforme d'Abidjan) 교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 ⑬-18 모리타니아 선교

권경숙 / 모리타니아 선교사



권경숙 선교사는 예장통합세계선교부에서 1994년 모리타니아로 파송되어 사역해오고 있다.

13-19 세네갈 선교

유춘안/세네갈 선교사



프랑스 아비뇽국립대학, 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한-불)을 졸업한 유춘안 선교사는 1990년 자비량 선교사로 세네갈에 입국, 사마리아 기술원운영, 방송선교 등으로 사역해오고 있다.

13-20 모로코 선교

허영희/모로코 선교사



허영희 선교사는 기감선교국에서 1991년 모로코로 파송되어 사역해오고 있다.

13-21 튀니지 선교

백남일/튀니지 선교사



백남일 선교사는 예장통합세계선교부에서 1992년 튀니지로 파송되어 사역해오고 있다.

13-22 가나 선교

이용학/가나 선교사



이용학 선교사는 기침해외선교회 파송으로 1987년부터 가나에서 사역해오고 있다.

제4차 한인세계선교대회 참가선교사

● 아시아

네팔

김명호	1971/07/07	은광장로교회
김백립	1971/07/07	은광장로교회
김원식	1997/07/06	예장통합
김창석	1977/06/03	예장합동
민지영	1998/09	웰링턴연합한인교회
박용현	1994/03	예장합동
이춘심	1985/01/20	독립

대만

노성천	기감
최명희	국제농아

라오스

김정인	1991/12/01	예장개혁
백승규	1999/08/25	예장개혁
백승윤	1999/08/25	예장개혁
이종현	1997/09/24	예장개혁
최종운	1995/09/18	예장개혁

마카오

권종덕	1993/11/03	예장통합
김의정	1996/02/10	예장통합
박귀자	1993/11/03	예장통합
조한	1996/02/10	예장통합

말레이시아

강신오	1991/01/26	한국어린이전도협회
김현수		예장
노종해	1985/04/05	기감
박생배		GP선교회
복경자	1989/10/11	기감
이규석	1989/10/11	기감
이문숙		예장

이철동		예장대신
최완숙	1985/04/05	기감

몽골

김용숙		남서울교회
윤향숙		남서울교회
장승기		남서울교회
미안마		
강대현	1993/09/22	예장개혁
김정미	1999/11/01	베다니교회
정경운	1999/11/01	베다니교회

방글라데시

김은경		방글라데시개발선교회
김진영	1994/06/04	예장통합
김청선	1996/07	기독교대한국외선교연회
박천록	1995/08	그리스교의 교단
송은옥		예장통합
안바울	1997/05/28	예장
엄명희	1998/06/14	예장통합
오삼열	1994/12/21	예장
오철진		
이석로	1994/06/04	예장통합
이성숙	1989/06	예장
이정숙	1995/08	그리스도의 교단
이향엽		예장통합
임성진	1995/09	합동정통(총신)
임혜신	1986/08/24	수영로교회
장만영	1994/06/05	방과선교회(통합)
장영인		방글라데시개발선교회
장혜숙	1995/09	합동정통(총신)
전육엽	1994/06/05	방과선교회(통합)
조상희	1992/11/01	예장통합

베트남

김영관	1990/10/21	기감
김정애	1990/10/21	기감
원양희		
이영미		

**스리랑카**

강기종	1992/01	기감
강현종	1996/12/02	기감
김혜경	1996/12/02	기감
도육환		
박종건	1995/12/02	기감
이경희		
이미자	1989/06/28	예장통합
이성상	1990/12/21	기감
전유미	1992/01	기감
정미혜	1990/12/21	기감
최도식	1989/06/28	예장통합
최재영		예장

**싱가폴**

김대균	1992/04	기감
김종석	1995/07	한국외향선교회
문전섭	1994/01/06	예장통합
손중철	1978/07/11	예장통합
유양업	1994/01/06	예장통합
유재정	1999/12/26	예장
정운교		예장고신

**인도**

강선주	1989/04/29	국제복음선교회
공숙자		
권기홍		예장
김광선	1993/12/01	예장고려
김봉식	1995/11/07	예장합동
박진균	1992/02	
변미화	1980/12/02	예장합동
송영애	1993/12/01	예장고려
유순옥		
이기섭	1991/02/17	총회세계선교회
정윤진	1980/12/02	예장합동
조동욱	1994/07/24	기감
황수덕	1994/07/24	성지교회

**인도네시아**

고맹래		예장개혁
김미영	1992/11/13	예장통합
김선진		기감
김영동		예장
김영숙		GP
김종련	1992/11/13	예장통합
김진덕		기감
문수청		예장통합
박성오		예장개혁
박은영		GP
박정렬	1994/12/04	세계선교회/예장
박정숙	1999/07/18	예장통합
배종혜		예장통합
백운영		GP
송광옥		
양춘석	1994/12/04	세계선교회/예장
오상울		예장
이춘모	1999/07/18	예장통합
이현숙	1990/07/30	예장통합
이현주	1995/12/15	예장개혁
조은숙		GP
주성웅	1996/04/07	기감
최광수	1990/07/30	예장통합
최광자	1996/04/07	기감
최원금	1995/12/15	예장개혁

**일본**

곽근우		GP
김기동	1987/10/16	기성
김숙일	1988	한국해외선교회 OMF
김순옥	1989/03/22	예장합동
김옥동	1995/01	예장
김채리	1993/03/10	예장
김화연	1993/03/10	예장
박미애	1994/03/30	예장통합
신길자		한국세계선교회
신복규	1996/01/26	예장
이봉자	1985/10	씨뿌림선교회
이수구	1988	한국해외선교회 OMF

이신형	1992/09	예장고신
이오남	1995/01	예장
장신덕	1993/09/08	기감
장춘근	1990/04/10	
조기철	1991/12/29	C&MA
조성우	1990/08/24	예장통합
최순자	1995/01	예장
황영국	1991/02/11	예장

**중국**

교OO		
김OO	1995	OO한인교회
김OO		
손OO	1988	기성
이OO	1988	기성

**캄보디아**

서병도	1991/05/30	예장통합
송진섭	1993/05/17	기감/아시아선교회

**태국**

김미란		GP
김성곤	1984/12/21	태국선교협의회
김성희	1991/05/07	예장합동
김수안	1994/12/01	루디아
김정웅		GP
배종원	1992/05/04	예장합동
송용자	1989/02/02	세계선교회
신순영	1971/06/14	예장합동
신옥련	1994/09/28	예장개혁
신흥식	1971/06/14	예장합동
오경하		GP
오세관	1990/12/23	성광교회(기감)
이병숙	1990/12/23	성광교회(기감)
이상원	1994/12/01	루디아
이순교		GP
이용웅		GP
이은순	1992/05/04	예장합동
함옥자	1991/05/07	예장합동

**파키스탄**

이평자	1997/10/28	한국대학생선교회
-----	------------	----------

**필리핀**

강경균		예장통합
고광석	1988/04/13	예장개혁
고병호		기감
고부자	1994/02/01	세계협력선교회
곽시동	1989/01/10	예장고신
곽춘식	1991/04/19	기감
권영구		기침 한마음교회
권태복		GP
김남수	1996/09/11	예장고려
김말손	1987/08/26	예장고신
김석진	1995/11/14	총회세계선교회
김유식		
김은영	1991/04/19	기감
김인효	1995/03/01	아가페세계선교회
김자선		
김정열	1995/03/01	아가페세계선교회
김창배	1991/09	기감
김현태		기감
나혜옥	1990/04/10	아가페세계선교회
남후수	1987/08/26	예장고신
노영철	1990/07/18	총회세계선교회
노화진		
박연용		KMC
박동권		예장통합
박지덕	1994/10/21	예장고신
박헌남	1995/01/08	
서은자		
신석완	1990/04/10	광주중앙교회
송경모	1994/02/01	세계협력선교회
송윤선	1988/04/13	예장개혁
송홍석	1992/11/01	예장대신
신경미	1989/08/08	예장고신
신동식		
신승철		세계선교공동체
심언애	1990/09/26	예장고려
안억희	1998/05/08	합동정통경기도회

안창원		기감
양정용	1997/03/02	세계선교공동체
오동순		기감
유효숙		예장통합
이경근	1989/08/08	예장고신
이경선	1999/12/12	임마누엘선교회
이광수	1988/8/16	기침
이교성	1989/05/20	예장통합
이상덕	1889/07/11	바울선교회
이성희	1987/08/26	예장고신
이승희	1992/11/01	예장대신
이옥선		
이원식		
이춘선	1983/10/31	예장합동
이태길		
이한영		믿음침례교회
이현옥		예장통합
임평환	1991/07/16	바나바선교회
임향숙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장귀선	1994/10/21	예장고신
장필성	1994/05/17	한사랑선교회
전귀순	1988/08/16	기침
전봉주	1988/11/27	예장
정기양	1991/03/30	예성
정순성	1990/03/12	코람데오선교회
정원기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
정해란		GP
조현묵		예장
차정웅	1995/09/24	전도총회
최경자	1995/11/14	총회세계선교회
최광석	1987/08/26	예장고신
최세종	1987/02/07	예장대신
최창환		개혁장로교
한덕희		
한호연		KMC
황태연	1983/10/31	예장합동

● 중앙아시아

몰도바

김원심	1992/03/22	예성
한호진	1992/03/22	예성

우즈베키스탄

김경일	1992/09/18	예장
김순희	1996/09/20	예장
김영미		금곡교회
김은숙	1995/08/16	예장
김인호	1995/03/26	한사랑교회
김태원		
문경미	1995/03/26	한사랑교회
박종현	1997/03/02	예장통합
백명휘	1996/07/05	예장
윤영수	1994/08	세계체육인선교회
이상웅		SEED선교회
이상준		금곡교회
이상표	1996/07/05	예장
이옥희	1992/09/18	예장
정성현	1995/08/16	예장
정정옥	1995/07/23	예장
최광순	1996/12/31	예장통합
최하영	1996/09/20	예장
권영봉	1996/06/08	예장
김정신	1996/06/08	예장

우크라이나

김말숙		예장
정희술		예장
카작스탄		
박권순		바울선교회
박기곤		
최에스더	1997/03/31	예장고신
최진규	1997/03/31	예장고신

● 아프리카

가봉

김상옥		예장통합
방혜숙	1991/06/23	기성신길교회
이필귀		예장통합

감비아

허경문		GMP
홍종란		GMP

남아공

김종식	1997/07/01	한국대학생선교회
맹연수	1993/07/13	예장
석광익	1990/04	한국외향선교회
엄영흠		
전준수	1991/03/03	예장통합
표복자	1997/07/01	한국대학생선교회
말라위		
임중식	1997/09/28	예장통합

모로코

허영희	1991/06	기감
-----	---------	----

모잠비크

이창규	1995/05/01	두란노해외선교회
최순득	1995/05/01	두란노해외선교회

모리타니아

권경숙	1994/11	예장통합
-----	---------	------

세네갈

유춘안		명성교회
-----	--	------

소말리아

조성덕	1983/04/30	한국기독교장로회
-----	------------	----------

시에라레온

이순복		예장고신
-----	--	------

우간다

강난숙		
김미숙		한국월드컨선
김순옥	1994/09/11	총회세계선교회
류형열	1992	예장통합
배상호	1990/12	예장통합
배영선	1988/04/10	GMS
이명시	1992/08	총회세계선교회
엄옥순	1988/04/10	GMS
최승암	1995/03/19	예장합동

아이보리코스트

황명숙	199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황익진	199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이집트

권혁기		중동선교회
김경숙		
김선옥		
김수련	1979/10/31	예장합동
김신숙	1977/08	예장합동
박현화	1994/06/05	체부동교회
양승천		
이준교	1979/10/31	예장통합
홍동휘		총회세계선교회/중동선교회

에티오피아

조창현	1994/07/04	예장통합
최정희	1994/07/04	예장통합

**짐바브웨**

박관순      청안교회  
손창덕      1992/10/22      GBGM UMC(미국감리교)

**탄자니아**

김정립      기감  
박찬달      세계선교십자군/기감  
송귀섭  
안명찬      1993/12/05      예장  
이영권      1993/07      세계총회선교회  
최재선      1983/06/23      예수전도단

**케냐**

강인중      1987/09/06      예장합동  
권순옥      1989/02/26      모든민족선교회  
김성백      1999/11/01      베다니교회  
김정완      1999/11/01      베다니교회  
김옥실      1995/11/15      예장통합  
박삼일      1989/02/26      모든민족선교회  
서숙자  
송충석  
윤민애      1991/09/13      한국감리교단본부  
   한국기독교농아인선교회  
정광호      1981/04/13      예장  
주진국      1984/04/19      기성  
최명은  
최용낙      1996/03

**콩고**

곽군영      1989/06/25      예장통합  
튀니지  
백남일      1992/08      예장통합

● **중동**

**예멘**

김명숙      1995/10      중동선교회  
임성진      1995/10      중동선교회

**요르단**

고현주      SEED선교회  
김영섭      바울선교회  
이춘우      SEED선교회  
정형남      예장

**이란**

이만석

**이스라엘**

이유순      장로교회세계선교부  
이정복      1994      한국기독교장로회  
정연호      장로교회세계선교부

**터키**

곽동신  
김귀순      1992/07      한국외향선교회  
김현문      1998/12      중동선교회  
배혜수      1998/12      중동선교회  
송정애      1990/05/25      예장합신  
윤명희  
윤태권      1990/05/25      예장합신

● **북미**

**미국**

David Smith      WEC International  
강동희      Wycliffe  
강옥자      Wycliffe  
구자범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  
김경란      1993      예성  
   국제찬양을동선교회  
김기선  
김대준      필라한인연합교회  
김동권      OMF  
김명선  
김명희      브니엘선교회  
김무선  
김병태  
김사라      GP  
김상찬      1993      예성  
김선순      1993/10/01      국제장애인선교회  
김성각      OMF  
김승봉      1996/01      GP  
김옥호      1996/02      미하나님의성회  
김원호  
김윤결      1993/10/01      국제장애인선교회  
김윤희      1956/10      예장  
김은정      C&MA  
김종국      1983/10/30      예장고신  
김진영      C&MA  
김창학      2000/04/11      기독교의료복지선교회  
김철수      1989/06/24      예장합동  
김혜강      휴스턴동산감리교회  
문대규      1991/06      미남침례회국제선교부  
박달용      Opne Doors  
박수연      퀸즈한인교회  
박연심  
반만열      1985  
반혜숙      1985

배정희  
백성미      GP  
서문주      OMF  
서한나  
성낙소      2000/01/09      휴스턴서울침례교회  
아마노 리에 에스터      1999/06/03      듀페이지한인연합감리교회  
안길웅      1990/06/02      길-실 크리찬선교회  
안희진  
엄승호      1990/05      기독교대한감리회  
연면흠      기독교세계선교회  
연화보      기독교세계선교회  
오대선      GP  
오지은  
유영선      1996/01      GP  
윤하영      GP  
이계자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  
이관숙      1988/12/22      미주한인장로교회  
이다윗      GP  
이브리스길라  
이사라      GP  
이사야      GP  
이수자      1992/10      미주지구촌선교회  
이순재      1988/12/22      미주한인장로교회  
이안나      GP  
이영기      유니온성결교회  
이영희      1993/06/13      예장통합  
이요섭  
이은무      GP  
이장렬      1992/10      미주지구촌선교회  
이재덕      사랑의빛선교회  
이정권      1993/06/13      예장통합  
이줄리  
이현숙      GP  
이화숙      사랑의빛선교회  
장영호      GP  
장재영      1976/09/15      예장합동  
전철한      한국외향선교회  
정문자  
정주연  
정형선      나라누리선교회

● 중남미

**과테말라**

조득성 1997/03/30 예장통합

**도미니카공화국**

전재덕 1999/11/01 베다니선교부  
 김보원 1991/11 개척선교부  
 김성자  
 김영구 1991/11 개척선교부  
 이철영 1995/06 두란노해외선교부  
 최광규 1988/08/29 한국해외선교회

**멕시코**

김중혁  
 손옥순 한국해외선교회  
 이금숙 예장통합  
 이명수 1997/06/11 동양선교교회  
 이주태 1999/11/01 베다니교회  
 임원석 미주한인장로회총회  
 장덕인 예장통합  
 최남영 1997/08/03 예장통합

**볼리비아**

최천휴 1990/03/01 예장개혁

**브라질**

Lusineide Maria De Moura 1995/05/20 Igreja Evangelica Assembleia de Deus  
 강성일 1983/03/23 예장통합  
 권운숙 예장개혁  
 권혁봉  
 김선웅 GP  
 김운석 1991/03/17 예장통합  
 김점례 1989/12/18 예수고려

김철기 1991/03/17 예장통합  
 김철성 1989/12/18 예수고려  
 김혜란 GP  
 노시영 1990/04/28 예장통합  
 박동주 예장  
 박상영 예장개혁  
 박상하 기갑  
 백광현 예장합신  
 이금숙 예장  
 이성전 1990/10 기갑  
 정현명 바울선교회  
 최양숙 예장고신  
 한도수 바울선교회  
 현봉희 1983/03/23 예장통합

**수리남**

안석렬 1989/02/22 예장합동

**아르헨티나**

Sandra e. dicindio De Rim 1987/11/20 예장합동  
 강기안 1996/09/15 기성  
 김기선 1996/11/20 예장합동  
 김영화 1995/10/01 예장합동  
 윤춘식 1990/02 총회선교부  
 이상천 1995/10/01 예장개혁  
 이해숙 1987/05/10 예장  
 임훈철 1996/11/20 예장합동  
 장영관 1995/07 예장합동  
 정현식 1987/05/10 예장

**에쿠아도르**

이영민 1987/3/15 한국외향선교회

**온두라스**

박명하 1992/01 예장통합  
 최은심 1992/01 예장통합  
 김명은 1997/07/12 중미국제선교회  
 김세웅 1997/07/12 중미국제선교회

● 유럽

**칠레**

김명수 예장통합  
 이길소 1989/09/24 기갑

**코스타리카**

박성도 SEED선교회

**콜롬비아**

김위동 1987/05 예장통합  
 서신결

**파라과이**

김정훈 1994/01/12 기성  
 양창근  
 임성익 1988/03/27 예장통합  
 정금태 GP

**페루**

김선옥 1992/02/25 예장  
 박맹준 1992/02/25 예장  
 방도호 1996/06/17 예장고신  
 우웅섭  
 이상기 1995/06/02 예장  
 이춘현 1992/10/18 예장  
 허성월 1996/06/17 예장고신

**푸에르토 리코**

김해진 1996/02 예장고신  
 김희숙 1996/02 예장고신

**그리스**

김수길 1997/7/30 예장합동  
 손영삼

**독일**

나승필 1997 바울선교회  
 박인갑 1988/06/05 기갑

**러시아**

강정수 1993/01/01 예장  
 김병모 1996/02 바울선교회  
 김송열 인천부평서부감리교회  
 김용미 1995/03/06 세계체육인선교회  
 김정희 1993/07/07 예장통합  
 김지윤 1997/08/31 기성  
 남일우 1993/12/07 예장  
 박정수  
 송광석 1999/08/29 광림교회  
 신필희 1993/09/06 옥인교회  
 유지열 신당제일교회  
 윤명희 1999/08/29 광림교회  
 윤미경 1992/11/01 소련선교회  
 이권덕 1992/10/30 한국해외선교회 개척선교부  
 이미화 1991/09/21  
 이성실  
 이용재 1992/11/16 하나님의성회총회  
 이정희 1993/01/01 예장  
 이희재  
 임국현 1995/03/06 세계체육인선교회  
 엄창순 1992/06/07 예장합동  
 장경순 1993/12/07 예장  
 장금숙 1992/10/30 한국해외선교회 개척선교부  
 전형선 사랑누리선교회  
 정경희 나라누리선교회

정리안 1998/03/15 고신  
 조상현 1997/08/31 기성  
 최인녕 1994/11/07 예장통합  
 한재희  
 한중숙 1992/07/19 총회세계선교회  
 허충강 1991/09/21 예장개혁  
 황관효 1992/06/07 예장합동

#### 루마니아

김홍식 1997/03/30 개혁합신  
 박창수 1991/06/18 예장장신  
 박천규 1991/07/25 그리스도의 대사들  
 박현규 1992/12 AFC  
 신화선 1991/07/25 그리스도의 대사들  
 정립수 1997/11 나이가라한인장로교회  
 정홍기 1992/07 AFC  
 홍수정 1997/03/30 개혁합신

#### 불가리아

김호동

#### 스페인

김대영  
 이희자

#### 알바니아

이향모  
 정병철 1997/07/20 예장  
 총회세계선교회

#### 영국

김창환 한국외향선교회  
 박영은 예장

#### 체코공화국

남상이 1990/07/17

#### 폴란드

김헌종 1995/04/23 예장  
 임진 1995/04/23 예장

#### 포르투갈

강병호 1986/03/19 예장고신  
 지성범 1995/02/24 예장

#### 프랑스

김숙희 1989/04/16 예장통합  
 이극범 1989/04/16 예장통합

#### 헝가리

김옥자 1992/12/09 기하성/여의도순복음교회  
 박윤애 1991/06/21  
 하용달 1992/12/09 기하성/여의도순복음교회

#### ●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김중수  
 송창근  
 신종혁 1987/10 예장통합  
 이재오  
 임원혁 1995/08 예성광주지방회  
 정재순 1987 GBT  
 조삼은 1988/10/01 예장통합

조경련 1987 GP  
 조용중 1987 GP  
 주완식 1981/11/22 기감  
 최순이 1992/03/10 포항낙원침례교회  
 최정희  
 최찬영 OMF  
 최학철  
 한명구  
 한명우  
 허지연 OMF  
 홍은선 1994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  
 홍주영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

**캐나다**

권경미 1999/02 예장통합  
 김광오 1997/10/09 미주한인장로회 캐나다노회  
 김덕규 1993/10/06 예장통합  
 김재광 1990/01 미주한인장로회총회  
 김후식 1999/02 예장통합  
 박계로 1986/09/01 신우세계선교회  
 박선희 1986/09/01 신우세계선교회  
 양정숙

● **한국**

등록한 주소에 따라 분류되었으므로 특히 한국의 경우 실제 사역지가 아닌 안식년이나 주소지일 경우가 있습니다.

강석중 1995/01/14 세계선원선교회  
 강영철 1993/02/24 시카고성결교회  
 고상진  
 공성윤  
 김광태 1990/03/05 분당예닮교회  
 김균배 1995 예장합동  
 김명숙  
 김민표 1997/08/20 방글라데시개발협회  
 김성길

김영준 예성총회  
 김용기 1993/09/01 GMS  
 김용만 세계오메가선교회  
 김은빈 예장통합  
 김일태 제자선교회  
 김재봉  
 김정순  
 김진해 1995/09/12 기성  
 김현식  
 김혜경 1990/03/05 분당예닮교회  
 문미희 1991/08/22 기침  
 박영완 GP  
 박종승 GP  
 박혜숙 1999/06/20 한국예수전도단  
 변옥선 1994/08/08 총회세계선교회  
 선정현  
 송기태 1995/12/10 국제사랑의봉사단  
 송덕용 1989/09/20 기감  
 송원숙 1994/04/17 예장  
 심석운 예성총회  
 안은경 1990/05/07 한국외향선교회  
 양주림 1994/12/18 예장  
 유정임 세계오메가선교회  
 유태중 MVP선교회  
 윤홍집  
 이경화 예장통합  
 이경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이미란 1997/04/03 기하성  
 이병구 1995/03 인도협력선교회  
 이성혁 인터넷세계선교사대학교  
 이악사나 1993/02/10 세계태권도선교회  
 이영재 한국컴퓨터선교회  
 이용일 1993/02/10 세계태권도선교회  
 이철수 1991/08/22 기침  
 이한신 1990/05/07 한국외향선교회  
 임니나 왕십리감리교회  
 임세한 1994/04/17 예장  
 임재성 한국외향선교회  
 임재옥  
 장석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장완익 1994/08/08 총회세계선교회

정기목 인터넷세계선교사대학교  
 정준모 1995/02/05 예장통합  
 정혜림  
 조규철 1999/06/20 한국예수전도단  
 조춘실 1997/09/25 바울선교회  
 조현주 1993/11/10 방글라데시개발협회  
 채선희 1991/12/08 총회세계선교회  
 최기만 한국외향선교회  
 최병국 총회세계선교회  
 최재숙 1995/02/05 예장통합  
 최향숙 1997/09/01 방글라데시개발협회  
 한영숙 1993/11/10 방글라데시개발협회  
 한정국 MVP선교회  
 홍연선 인터넷세계선교사대학교  
 황은주 1998/06/10 국제사랑의봉사단

